

I. 서 론

I. 서론

21세기에 들어서 '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은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식정보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수요구조를 변화시켜 노동시장의 유연화현상을 낳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차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회도 점차 전세계적으로 '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지식정보산업과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노동력 수요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서도 파트타임노동의 비율이 점차 높아가고 있으며, 파트타임고용의 인력은 주로 청소년, 여성, 노인과 같은 주변부(Marginal) 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파트타임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일(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이며, 현재 ILO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파트타임근로’라는 개념정의는 전일제 근로와는 상반된다는 것(part-time as opposed to full-time employment)을 의미하고, 또한 ‘비전형근로’(part-time in relation to non-standard employment)라고 분류되어 단속적·계절적·임시적 및 일시적인 고용형태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오문완, 1997)

따라서 청소년파트타임고용이란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비(非)전일·비(非)전형의 유형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파트타임고용은 청소년의 교급과 재학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16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표 1-1> 청소년파트타임 고용의 분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I-1	I-2	I-3	I-4
휴학생	II-1	II-2	II-3	II-4
종퇴자(비전학자 포함)	III-1	III-2	III-3	III-4
졸업자(비전학자 포함)	IV-1	IV-2	IV-3	IV-4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비전일·비전형고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재학생의 신분으로 비전일·비전형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의 고용은 '아르바이트'로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의 표에서 제시한 청소년 파트타임고용의 16가지 형태중에서 I-2와 I-3을 포함하는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최근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그들에게 건전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고,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함에 따라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고용실태는 1997년 7월부터 1998년 5월까지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에 의해 산출된 고등학교 재학생의 고용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박창남, 1999)

<표 1-2> 고등학교 재학생의 고용현황

	97년7월	97년9월	97년11월	98년1월	98년3월	98년5월
경제활동참가율	1.3%	1.9%	3.2%	4.9%	0.7%	0.8%
실업률	3.2%	2.2%	7.5%	26.7%	1.6%	2.9%
실업자수	1,057	1,006	5,882	29,957	249	531
취업자수	32,258	45,050	72,770	82,310	15,214	17,795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학기중에는 1-3%인 반면, 겨울방학기간인 1월에 약 5%까지 증가하며, 실업률은 학기중에는 대체로 3-8%인 가운데 1월에 27%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업자수는 학기중에는 1천-6천명정도에 머물다가 1월에 약 3만명까지 증가하였다. 취업자수도 1월에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1월 이후부터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 취업자수의 감소는 IMF 이후 침체된 경기하에서 구직활동의 포기에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성인에 비하여 비록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학기중에도 '아르바이트'와 같은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방학이라는 특정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방학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가 이들을 고용하려는 노동시장의 수요량보다 많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등학생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이며, 따라서 방학기간동안 급증하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청소년실업률을 높이는 중요한 계절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첫번째 목적은 전국적인 청소년아르바이트의 고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며, 두번째 목적은 청소년이 기본적인 권리보호를 받으면서 건전하고 유익한 아르바이트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첫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고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국내외 노동법 및 관련 규약 중에서 청소년아르바이트 고용에 관련된 조항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실태, 참여하는 이유, 근로조건, 구직방법, 아르바이트의 영향, 인권침해실태, 만족도, 원하는 지원내용 등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아르바이트 고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외국에서 청소년파트타임고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청소년파트타임고용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방침,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방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사회에 사사해줄 수 있는 것들을 도출해내고, 끝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의 촉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청소년아르바이트 고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의 원인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에 관련된 국내 노동법 현황
3. 청소년 고용에 관련된 국제 협약 및 규약 현황

II. 청소년아르바이트 고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의 원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은 증가추세에 있다.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대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청소년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히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최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높은 참여의 원인은 노동시장 공급과 수요의 양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노동시장 공급의 측면에서 첫째 청소년소비문화, 둘째 학교에서의 소외와 자기찾기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소비문화에 의해 설명해보도록 하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돈이 부족한 이유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 절대적 부족 - 일 수도 있고, 자신의 소비수준이 높아졌기 때문 - 상대적 부족 - 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주로 절대적 부족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가했지만, 요즘에는 주로 상대적 부족상태의 해결을 위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주로 상대적 부족상태의 해결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에 대해 살펴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소비는 시장에서의 교환을 통해 상품이 갖고 있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동시에 실현시킨다. 특정의 상품이 본래 거기에 내재되어있던

쓸모있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사용가치의 측면이라면 그 상품이 추상적 인간노동으로 환원되어 화폐와 같은 등가물로 교환되어지는 것이 교환가치의 측면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노동력상품의 소비를 통해 잉여를 창출하고, 이윤을 축적하여 자본을 증식하며,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기업의 이윤축적과 확대재생산을 가능케하며, 또한 이윤축적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노동력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토록함으로써 자본주의생산양식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행위는 점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상업광고의 확산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띠게되었다. 정보화라는 사회변화는 뉴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 주위에 엄청난 새로운 정보통신환경의 변화를 몰고왔다. TV, 컴퓨터, PC통신, 인터넷, 네트워크, 케이블 TV, 빼빼와 핸드폰 등은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유형과 정보접근의 방식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광고는 바로 이러한 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빠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인간의 새로운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소비욕구를 창출하고 있다. 점차 인간이 주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광고에 자극받아 '새롭게 생겨난 욕망'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소비자의 소비행위는 객체화되며, 소비의 규모와 수준은 점차 광고와 매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된다. 점차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각종 매체를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냈으로써 끊임없는 과대소비를 조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상품소비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행동이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기호와 취향을 공유하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구매하는 소비패턴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은 아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집단적인 기호와 취향을 갖게된 이유는 요즘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탈권위, 자유, 개성, 저항 등과 같은 신세대적

인 가치지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신세대적인 가치지향에 편승하여 각종 매체를 통해 집단적인 기호를 조장시키고 확산시키는 유행과 광고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년소비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학교, 가정, 사회에서의 불만을 대리 발산시키고, 자신들의 하위문화를 지향하는 듯이 보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촉진과 이윤추구를 노리는 상업적인 유행과 광고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점점 기업의 마케팅전략에서 주 공략대상(target)으로 설정되어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바로 이러한 주변상황들이 청소년들의 정서와 심리를 파고들면서 욕망을 자극하며, 소비를 창출한다. 예전에 학용품, 교복, 교통비 등만으로 지출되던 소비항목들이 이제는 핸드폰·빼빼, 옷·신발·장신구, 친구들간의 외식·교제비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소비수준은 신세대적인 가치지향과 함께 집단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여기에 같은 수준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청소년은 점차 따돌림을 받게 되므로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의 문화와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하여 예전보다 더 많은 용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대적 부족상태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서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번째 요인은 학교에서의 소외와 자기찾기이다. 이 요인은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과 전학을 포기한 일반계 고등학생에게서 잘 나타난다. 최근 들어 '학급붕괴'라는 표현으로 드러났던 사회현상은 학교라는 공간이 더 이상 학생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일부 성적이 우수한 청소년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에게 폐배감과 차별의식만을 조장함으로써 그들이 학교에서 겪게되는 극도의 소외의식이 교사-학생 관계로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상당수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내용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며, 학교에서의 성적도 우수한 몇몇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줄이나 외모에 의해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강대근 외, 1999)임을 감안한다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

이 학교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수업을 받는 것보다는 자신이 관심있는 직업분야에 하루빨리 뛰어들어 경험을 쌓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졸업이전에 비록 자신의 관심분야와는 다를지라도 학교밖에서의 사회경험에 적극적이며 개방적이다. 이와 같은 생활세계를 공유하는 이들에게 방과후, 방학중의 여가시간동안 돈도 벌면서 사회경험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 비록 현실적으로 일하는 여건이 열악하고, 바람직한 학습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은 노동시장수요의 측면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살펴보도록 하자. 요즘 청소년들이 과거보다 소비수준이 높아졌고, 자기를 찾아 학교밖의 공간으로 뛰쳐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고용해줄 곳이 없다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정보화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에도 강요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서도 각종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추어 노동인력 규모, 노동시간, 임금 등에 관한 유연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노동력의 채용과 해고를 원활히 하고, 노동시간을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며, 성과급임금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 그 내용으로서 사실상 미숙련·단시간 노동력의 수요를 높인다.(김장호, 1999) 이러한 미숙련·단시간 노동력의 주요 대상은 청소년, 주부, 노령자 등이며, 청소년들이 주 소비계층이거나 활발한 활동을 요구하는 업종분야에서 청소년 노동력의 수요가 많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고용에 관련된 국내 노동법 현황

노동법상에서 청소년아르바이트 고용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주로 연소자로서의 보호 및 권리제한, 그리고 단시간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연관되어 있다. 청소년아르바이트고용에 관련된 법령별로 근거, 벌칙,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최저연령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2조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5세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13세이상 15세미만이면서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138호)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동협약 제1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아동근로의 효과적인 철폐를 확보하고, 또한 취업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해야 하며, 제2조 3항에 따르면 취업의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를 하회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협약 제7조에 따르면 국내법령은 '건강 또는 발육에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학교출석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인정된 직업지도나 훈련과정의 참가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또는 학습능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노동(輕勞動)에 관하여는 13세 이상 15세 미만 자의 취업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Joachim Girmsmann, "The ILO - Minimum Age Convention", 1973,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 사용금지 직종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3조

-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8세 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3) 친권자 동의서와 호적증명서 비치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4조

- ▶ 벌칙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4) 근로계약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5조

- ▶ 벌칙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5) 임금청구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6조

18세미만의 청소년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6) 근로시간 제한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7조

-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7) 야업금지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8조

-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8세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여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하지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8) 간내근로금지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0조

-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를 간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9) 교육시설 설치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5조

- ▶ 벌칙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상시 30인이상의 18세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자는 이에 대한 교육시설을 하여야 하지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대신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0) 폭행의 금지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조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
 를 하지 못한다.

11) '단시간근로자'로서의 권리제한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1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주당 44시간 이내)

(2) 고용보험법의 비적용

▶ 근거 : 고용보험법 제8조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의 권리제한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5조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권리제한내용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5조 시행령 제9조

근로기준법상에 보장된 퇴직금, 휴급휴일, 월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13)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과 적용의 제한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0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의 설정이다.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적용규정

제2장 근로계약 : 제25조

제5장 여자와 소년 : 제62조, 제63조, 제64조 내지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72조

14) 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 근거 : 직업안정법 제18조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미만의 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별칙 : 사업정지 2개월(1차 위반), 허가취소(2차 위반)

▶ 근거 : 직업안정법 제18조

18세미만의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에는 소개하여서는 안된다.

▶ 별칙 : 허가취소(1차 위반)

1.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

15) 최저임금의 적용범위와 연소자의 설정금액

(1)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 근거 : 최저임금법 제3조

2000년 11월24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종전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연소자의 최저임금 설정금액

▶ 근거 : 최저임금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별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00.9.1 ~ 2001.8.31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1,865 원, 일급(8시간 기준) 14,920원,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421,490원이다. 따라서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시간급 1,678.5원)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

3. 청소년 고용에 관련된 국제 협약 및 규약 현황

1) 유엔 아동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1989)²⁾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미만으로 규정된 아동의 인권을 인정한 국

2)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1997, “내 일을 여는 책”, pp84-85.

제적인 조약으로서 1999년 10월 당시 191개국이 비준하였다. 총 41개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에서 제32조가 아동 노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

【1】 당사국은 경제적 취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여타 국제 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 다. 본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2) 브라가 청소년실천계획(유엔 제3차 세계청소년포럼, 1998. 8)³⁾

1998년 8월 포르투갈의 브라가에서 청소년, 청소년단체, 유엔, 여러 정부조직들의 대표들의 모임인 유엔 제3차 세계청소년포럼이 개최되었다. 청소년의 참여, 인권증진, 교육, 건강, 고용에 관련한 30가지의 항목이 채택되었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고용에 관련된 항목은 다음의 19-21번 항목이다.

【19】 청소년실업문제는 심각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사회적 파

3) 정희숙 역, “세계청소년장관회의 자료집”, 1998, 한국청소년개발원, pp41-43.

트너들·시민사회단체들·유엔에 의한 미시적·거시적 수준의 대책이 요구된다. 청소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고안·실행을 촉진·향상·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엔이 청소년단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여러나라의 청소년고용 프로그램들을 비교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평가는 여자청소년, 장애청소년, 장기실업청소년, 원주민청소년, 이민청소년과 같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조해야 한다. 평가는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만들어진 직업의 지속성과 질, 그리고 프로젝트의 사회발전에의 기여도와 같은 이슈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용영역에서의 역량이 부족하며, 시민사회단체와 유엔 사이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종종 프로젝트 기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현존하는 청소년고용촉진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청소년 시민사회단체들과 유엔시스템 사이의 정보교환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과 시민사회단체들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첫번째 단계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엔시스템의 도움을 통해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매일 디렉토리를 만드는 것이다. 웹사이트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단체들·국제조직들에 관한 정보, 유엔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건들, 최신 프로젝트, 청소년고용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21】 청소년들에게 직장에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에게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발전의 촉진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청소년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약·제안·결의안, 특히 1998년 6월 세계노동회의에서 채택된 “직장에서의 근본적인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을 널리 알리려는 국제노동기구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비준서의

청소년권리에 대한 청소년교육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엔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홍보캠페인을 할 것을 제안한다. 캠페인은 학술회의, 정보제작 및 제공, 훈련의 형태를 취하고 풀뿌리 참여를 강조한다.

3)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리스본선언(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 1998. 8, 제1차 세계청소년장관회의)⁴⁾

1998년 8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를 대표하여 모인 청소년장관들의 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참여, 발전, 평화, 교육, 고용, 건강, 약물남용에 관련된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모두 88개의 항목이 채택되었으며, 그 중에서 청소년들의 고용에 관련한 항목은 다음의 53-63번 항목이다.

【53】 직장과 수입에 대한 청소년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완전고용이라는 궁극적인 사회적 목표를 주창한다.

【54】 민족이나 출신국가, 종족, 성별, 장애, 정치적 이념, 신앙·종교, 혹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청소년차별에 대한 평등성 보호뿐아니라 평등한 고용의 기회를 촉진한다.

【55】 청소년들의 동등한 일이나 동등한 가치의 일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고, 노동시장의 남녀차별을 없애는 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여자청소년에 대한 평등한 고용기회를 촉진한다.

【56】 청소년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 시민사회기관 사이의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향상시킨다.

【57】 남녀별 특수상황을 고려하는 청소년 고용정책과 프로그램을 고

4) 정희숙 역, “세계청소년장관회의 자료집”, 1998, 한국청소년개발원, pp26-27.

안·실행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경향, 노동의 수요와 공급 등의 관계를 밝히는 청소년실업에 관한 연구를 촉진한다.

【58】 청소년들의 기업가적 능력을 지원한다. 청소년들이 그들 자신의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제공한다.

【59】 최악의 아동노동을 즉각적으로 금지시키고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특히 여자청소년의 상황에 유의하여, 섹스관광, 매춘, 인신매매 및 노예화, 청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사회적·도덕적 발달을 저해하는 노동을 포함하는 여러 형태의 착취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60】 교육이 노동시장의 필요 및 사회경제적 환경에 끊임없이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취업을 재향하는 교육·훈련을 촉진한다.

【61】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직업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제를 발전시킨다.

【62】 청소년 이민노동자들의 인권향유와 사회적 필요 향유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다 많은 국가적·국제적 협상을 촉진한다.

【63】 지방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을 촉진한다. 지방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금을 동원하여 경영하는 활동을 시작하도록 돕는다.

4) 국제노동기구(ILO) -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38호⁵⁾

1973년 6월 26일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채택되었던 협약으로서 아동 근로의 전면적인 철폐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된 경제부문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각종 협약을 국제협약의 형식을 빌여 일반적 협약으로 전진적으로 대체하고자 채택되었던 협약이다.

5) Joachim Girmsmann, "The ILO - Minimum Age Convention", 1973, International Labour Office.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은 아동근로의 효과적인 철폐를 확보하고, 또한 취업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 비준서 첨부하는 선언에서 자국영토 및 자국의 영역내에서 등록된 운송수단에 있어서의 취업의 최저연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최저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직업에도 취업시켜서는 아니된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그 후 추가적 선언에 의해 이전에 명시한 연령보다 높은 최저연령을 명시하는 취지를 국제노동사무총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한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교육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러한 단체와 협의한 후 처음부터 최저연령을 14세로 명시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저연령을 14세로 명시한 회원국은 국제노동기구 현장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이유가 존속한다는 사실

(나)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일정기일 이후에는 포기한다는 사실

【제3조】 1. 업무의 성질에 따라 또는 업무가 행해지는 상황에 따라 연소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18세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업무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국내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

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당해 연소자가 그 건강, 안전 및 도덕에 관하여 충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과 관련활동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특별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조건으로 16세부터 취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1. 권한있는 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하여 특수하고도 실질적인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제한된 종류의 업무를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국내노동기구 현장 제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한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보고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한 종류를 그 제외사유를 첨부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후속 보고에서 제외한 종류에 관한 자국의 법률과 관행의 현황 및 그 종류에 관하여 협약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가 또는 시행하려고 하는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3조에 규정한 업무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의 적용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1. 경제 및 행정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한 후 시행 당시부터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각 회원국은 그 비준시 첨부하는 선언에서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제활동부문 또는 기업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이 협약은 최소한 다음의 분야에는 적용되어야 한다.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위생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사업, 농원(農園) 및 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생산하는 기타의 농업부

문 사업장, 다만, 지역적 소비를 위하여 생산하는 가족기업 및 소규모 기업으로 임금근로자를 상시적으로 고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회원국은

(가)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경제활동부문에 있어서의 연소자 및 아동의 업무에 관한 일반적 현황 및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취한 진전사항을 국제노동기구 현장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국제노동사무총장에게 송부한 선언으로 언제라도 이 협약의 적용범위를 공식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제6조】 일반교육, 직업교육 또는 기술교육을 위한 학교 기타 훈련기관에서 아동 및 연소자에 의하여 행해진 근로 또는 기업에서 14세 이상의 자에 의해 행해진 근로에 대하여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해지고 또한 다음 각호의 과정의 불가결한 일부분인 경우에는 이 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학교 또는 훈련기관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교육과정 또는 훈련과정

(나) 주로 또는 전면적으로 기업내에서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서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한 것

(다) 직업 또는 훈련과목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과정

【제7조】 1. 국내법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노동(輕勞動)에 관하여는 13세 이상 15세 미만 자의 취업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그러한 자의 건강 또는 발육에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나) 그러한 자의 학교출석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인정된 직업지도나 훈련과정의 참가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또는 학습능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할 것

2. 국내법령은 제1항 (가)호 및 (나)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에 관하여는 15세 이상의 자로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의 취업을 인정할 수 있다.

3. 권한있는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업이 인정되는 경제활동을 결정하고, 그러한 취업의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4항의 규정을 원용하는 회원국은 그 원용을 계속하는 동안 제1항의 13세 및 15세의 연령을 12세 및 14세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2항의 15세의 연령을 14세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예술공연 참가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에 관하여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와 협의한 후 제2조에서 규정하는 취업의 금지에 대한 예외를 개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취업시간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1.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법칙조항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국내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은 이 협약을 실시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정하여야 한다.

3. 국내법령 또는 권한있는 기관은 사용자가 이용·보관하여야 하는 명부 기타 서류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 명부 또는 서류는 당해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당해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는 18세 미만의 자의 성명 및 연령 또는 정당하게 증명될 수 있는 한 생년월일을 포함하여야 한다.

III. 조사방법

1. 조사개요
2. 표집절차
3. 조사대상자의 특성

III. 조사방법

1. 조사개요

본 조사는 전국 45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3,679명과 교사 419명을 대상으로 2000년 11월 9일 ~ 13일까지 집단조사법(group survey)으로 수행되었다. 모집단은 전국에 재학중인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로서 학생의 경우 모집단수는 3,930,241명이며, 표본은 3,679명으로서 학생모집단의 약 0.1%이다.

표본추출은 다단계총화집락표집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으로 이루어졌으며, 표집설계(sampling design)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적으로 도시의 규모별로 지역을 총화하고, 1차 총화된 3개의 층을 다시 권역별로 나누어 지역을 총화하여 모두 9개의 층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각 9개의 층에서 최종적으로 1개의 행정구역(시, 군)을 집락표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집락표집된 9개의 행정구역에서 각각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를 9개의 층 각각의 학생모집단수에 비례하여 학교수를 산출한 뒤, 그 수만큼 무작위로 추출하여 모두 전국적으로 45개의 학교를 표집하였다. 학생의 표집은 1개반에 40명 정도의 인원을 예상하여 표집된 학교에서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을 선정하였으며, 각 반의 전원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교사의 표집은 역시 각각의 표집된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10명을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조사가 11월경에 실시됨으로 인해 인문고의 경우에는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실업고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3학년생은 현장 실습으로 이미 상당수 실습현장으로 등교함에 따라 인문고 3학년생과 실업고 3학년생은 실제 조사에서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학생조사는 전국 45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6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중에서

무응답이 많은 36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643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교사는 전국 45개 중·고등학교의 교사 4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419부 모두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III-1> 학교 표집

1차 지역총화	2차 지역총화	집락	교급총화			계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대도시	중부	서울	5	4	2	11
	서남부	광주	1	1	1	3
	동남부	부산	3	2	1	6
	소계		9	7	4	20
중소도시	중부	춘천	4	3	1	8
	서남부	아산	2	1	1	4
	동남부	안동	2	1	1	4
	소계		8	5	3	16
군지역	중부	보은	1	1	1	3
	서남부	해남	1	1	1	3
	동남부	고령	1	1	1	3
	소계		3	3	3	9
합계			20	15	10	45

<표 III-2> 학교별 학생 표집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1학년	40명	40명	40명
2학년	40명	40명	40명
3학년	40명	40명	40명
계	120명	120명	1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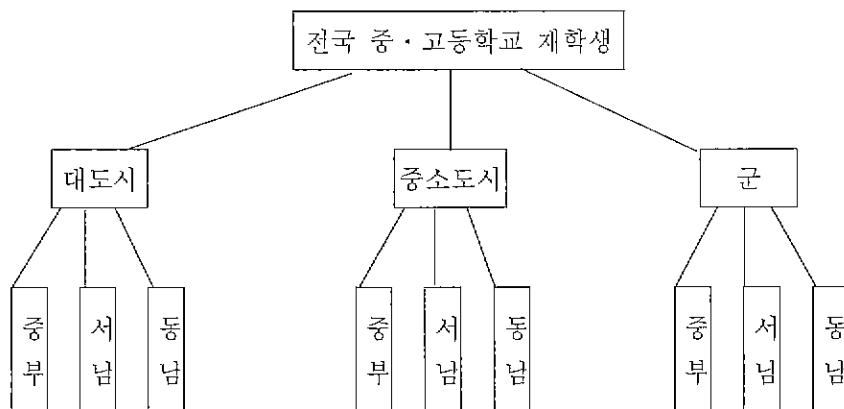
<표 III-3> 학교별 교사 표집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인원	10명	10명	10명

2. 표집절차

1) 총화표집

표본추출은 먼저 학교표본을 선정한 후, 학교안에서 학생표본을 추출하였다. 학교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전국을 도시규모에 따라 대도시(특별시와 광역시), 중소도시(시), 군으로 나누고, 전국을 지역별로 중부(수도권, 강원, 충북), 서남부(충남, 전남, 전북), 동남부(경남, 경북)로 나눈 뒤, 도시규모와 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국을 총화하였다.(제주도는 제외)



[그림 III-1] 도시규모와 권역을 고려한 총화표집

2) 집락표집

전국적으로 9개의 층에 대하여 각각의 층별로 1개의 행정구역을 뽑는 집락표집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는 전국을 도시의 규모와 권역별로 총화한 결과 각각의 층에 있는 최종표집단위에 맞는 행정구역의 수이다.

<표 III-4> 총화표집결과 각 층별 행정구역의 수

	대도시	중소도시	군	계
중부	2	33	27	62
서남	2	17	34	53
동남	3	20	23	46
계	7	70	84	161

다음은 세 개의 권역별 대도시 행정구역의 지명으로서 중부권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서남권에는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동남권에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있다. 이 중에서 각각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를 추출하였다.

다음은 세 개의 권역별 중소도시 행정구역의 지명으로서 중부권에는 33개, 서남권에는 17개, 동남권에는 20개의 시가 있다. 이 중에서 각각 춘천시, 아산시, 안동시를 추출하였다.

<표 III-5> 권역별 대도시 행정구역의 지명현황

	대도시명	도시의 수
중부	서울, 인천	2
서남	광주, 대전	2
동남	부산, 대구, 울산	3

<표 III-6> 권역별 중소도시 행정구역의 지명현황

	중소도시명	도시의 수
중부	강릉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동해시, 부천시, 삼척시, 성남시, 속초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원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티백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33
서남	공주시, 광양시, 군산시,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논산시, 목포시, 보령시, 서산시, 순천시, 아산시, 여수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천안시	17
동남	거제시,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김해시, 마산시, 문경시, 밀양시, 사천시, 상주시, 안동시, 양산시, 영주시, 영천시, 진주시, 진해시, 창원시, 통영시, 포항시	20

다음은 세 개의 권역별 군 행정구역의 지명으로서 중부권에는 27개, 서남권에는 34개, 동남권에는 23개의 시가 있다. 이 중에서 각각 보은군, 해남군, 고령군을 추출하였다.

<표 III-7> 권역별 군단위 행정구역의 지명현황

	군지역명	도시의 수
중부	가평군, 고성군, 광주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양구군, 양양군, 양주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영동군, 영월군, 옥천군, 음성군, 인제군, 경천군, 진천군, 철원군, 청원군, 평창군, 포천군, 홍천군, 화성군, 화천군, 횡성군	27
서남	강진군, 고흥군, 광성군, 구례군, 군산군, 담양군, 당진군, 무안군, 무주군, 보성군, 부안군, 부여군, 서천군, 순창군, 신안군, 연기군, 영광군, 영암군, 예산군, 완도군, 완주군, 임실군, 장성군, 장수군, 장흥군, 진도군, 진안군, 청양군, 태안군, 함평군, 해남군, 홍성군, 화순군	34
동남	거창군, 고령군, 고성군, 군위군, 남해군, 봉화군, 산청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령군, 의성군, 창녕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3

3) 모집단수에 비례한 각 층별 학교수 산출

다음은 전국적으로 표집된 9개의 행정구역에서 학교를 선정하는 절차이다. 앞에서 층화표집에 따라 표집된 9개의 층별로 중·고등학생의 모집단수를 각각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별로 인원수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여기에 이용된 자료는 “2000년 교육통계연보”이다.

먼저, 교급별 인원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III-8> 교급별 모집단 인원 및 비율

교급별	인원	퍼센트
중학교	1,860,539	47.3%
인문고	1,324,482	33.7%
실업고	745,220	18.9%
합계	3,930,241	100%

다음으로 교급별 인원을 도시의 규모별로 나누어 인원과 비율을 산출하였다.

<표 III-9> 교급별 도시규모별 모집단 인원 및 비율

교급 지역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계	
	인원	퍼센트	인원	퍼센트	인원	퍼센트	인원	퍼센트
대도시	901,268	48.4%	708,595	53.5%	328,540	44.1%	1,938,403	49.3%
중소도시	768,591	41.3%	519,952	39.3%	301,878	40.5%	1,590,421	40.5%
군자역	190,680	10.2%	95,935	7.2%	114,802	15.4%	401,417	10.2%
합계	1,860,539	100%	1,324,482	100%	745,220	100%	3,930,241	100%

그리고 이것을 다시 3개의 권역별로 나누어 인원과 비율을 산출하였다.

(1) 대도시

<표 III-10> 교급별 권역별 대도시 모집단 인원 및 비율

권역	지역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지역별 인원	권역별 인원 및 퍼센트	지역별 인원	권역별 인원 및 퍼센트	지역별 인원	권역별 인원 및 퍼센트
중부	서울	375,605	481,151 (53%)	335,684	403,139 (57%)	117,384	158,116 (48%)
	인천	105,546		67,455		40,732	
서남	광주	58,783	118,803 (13%)	46,736	92,829 (13%)	21,991	42,330 (13%)
	대전	60,020		46,093		20,339	
동남	부산	150,783	301,314 (33%)	105,364	212,627 (30%)	71,891	128,094 (39%)
	대구	105,198		76,716		39,685	
	울산	45,333		30,547		16,518	
합계		901,268		708,595		328,540	

(2) 중소도시

<표 III-11> 교급별 권역별 중소도시 모집단 인원 및 비율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권역	지역	지역별 인원	권역별 인원 및 퍼센트	지역별 인원	권역별 인원 및 퍼센트	지역별 인원	권역별 인원 및 퍼센트
중부	경기	322,570	408,644 (54%)	207,168	259,927 (51%)	99,574	143,645 (48%)
	강원	43,878		25,537		25,914	
	충북	42,196		27,222		18,157	
서남	충남	46,550	157,071 (21%)	30,680	107,949 (21%)	21,621	77,526 (26%)
	전남	44,593		35,138		22,105	
	전북	65,928		42,131		33,800	
동남	경남	104,540	187,658 (25%)	75,984	139,847 (28%)	37,395	75,225 (25%)
	경북	83,118		63,863		37,830	
합계 (제주 제외)		753,373		507,723		296,396	
제주		15,218		12,229		5,482	
합계 (제주포함)		768,591		519,952		301,878	

(3) 군 지역

<표 III-12> 교급별 권역별 군단위 모집단 인원 및 비율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권역	지역	지역별 인원	권역별 인원 및 퍼센트	지역별 인원	권역별 인원 및 퍼센트	지역별 인원	권역별 인원 및 퍼센트
중부	경기	36,650	72,181 (39%)	8,964	25,391 (27%)	26,292	48,107 (43%)
	강원	17,124		7,728		10,006	
	충북	18,407		8,699		11,809	
서남	충남	27,443	75,312 (41%)	20,365	45,772 (49%)	12,293	43,248 (39%)
	전남	34,942		21,015		19,677	
	전북	12,927		4,392		11,278	
동남	경남	18,403	37,868 (20%)	10,552	22,467 (24%)	12,649	19,598 (18%)
	경북	19,465		11,915		6,949	
합계 (제주 제외)		185,361		93,630		110,953	
제주		5,319		2,305		3,849	
합계 (제주 포함)		190,680		95,935		114,802	

이와 같이 중고등학생의 모집단수와 비율을 교급별, 도시구모별, 권역별로 나누어 각각의 층별로 인원과 비율을 산출한 뒤, 조사기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조사인원을 5000명을 하여 각각의 비율을 적용시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중학교 2,367명, 인문고 1,685명, 실업고 948명으로 산출되었다. 그리고 1개 학교에서 3개 학년, 그리고 각 학년별로 1개반씩을 선정하여 그 반의 학생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하에 각각의 산출된 층별 인원을 120명으로 나누어 각 층별로 표집할 학교수를 산출하였다. 학교수는 41.5개였으나, 각 층별로 소수점을 조정한 결과 전국적으로 표집해야 할 학교수는 모두 45개로 되었다.

<표 III-13> 조사인원의 모집단수에 따른 비율적 적용결과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인원	학교수	인원	학교수	인원	학교수
합계	2,367	19.7	1,685	14.0	948	7.9
대도시	소계	1,147	9.6	901	7.5	418
	중부	612	5.1	513	4.3	201
	서남	151	1.3	118	1.0	54
	동남	383	3.2	271	2.3	163
중소 도시	소계	978	8.1	661	5.5	384
	중부	530	4.4	339	2.8	186
	서남	204	1.7	141	1.2	100
	동남	244	2.0	182	1.5	97
군지역	소계	243	2.0	122	1.0	146
	중부	94	0.8	33	0.3	63
	서남	99	0.8	60	0.5	57
	동남	50	0.4	29	0.2	26

4) 각 행정구역별 학교목록에서 무작위 추출

전국적으로 표집되어야 할 45개의 학교는 서울 11개, 광주 3개, 부산 6개, 춘천 8개, 아산 4개, 안동 4개, 보은 3개, 해남 3개, 고령 3개이며, 각각의 행정구역에 있는 학교목록을 가나다순으로 정렬한 뒤, 무작위로 학

교를 선정하였다. 이 때 실업고의 경우 공고와 상고가 각각 50%씩 추출되도록 각 층별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표 III-14> 교급별 행정구역별 조사학교수 최종현황

1차 지역총화	2차 지역총화	집락	교급총화			계
			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대도시	중부	서울	5	4	2	11
	서남부	광주	1	1	1	3
	동남부	부산	3	2	1	6
	소계		9	7	4	20
중소도시	중부	춘천	4	3	1	8
	서남부	아산	2	1	1	4
	동남부	안동	2	1	1	4
	소계		8	5	3	16
군지역	중부	보은	1	1	1	3
	서남부	해남	1	1	1	3
	동남부	고령	1	1	1	3
	소계		3	3	3	9
합계			20	15	10	45

5) 학교에서 학생 및 교사의 표집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선정된 45개의 학교별로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을 정하여 그 반의 모든 학생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교사의 경우에는 45개의 학교별로 10명씩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1) 학생

조사대상자 3,643명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52.5%, 여자가 47.5%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51.7%, 인문고생이 31.6%, 실업고생이 16.7%로서 모집단의 비율보다 중학생이 4.4% 과대표집되었고, 인문고생은 2.1% 그리고 실업고생은 2.2% 각각 과소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45.9%, 중소도시가 37.1%, 군지역이 17.0%로서 모집단의 비율보다 대도시가 3.4%, 중소도시가 3.4% 각각 과소표집되었고, 군지역이 6.8% 과대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집단별로 약간의 오차가 있기는 하지만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5> 학생 표본집단의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913	52.5%
	여자	1,730	47.5%
교급별	중학교	1,883	51.7%
	인문고	1,153	31.6%
	실업고	607	16.7%
지역별	대도시	1,673	45.9%
	중소도시	1,351	37.1%
	군지역	619	17.0%
계		3,643	100.0%

2) 교사

조사대상자 419명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55.8%, 여자가 44.2%로

서 남자가 약 1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7.6%, 30대가 33.2%, 40대가 43.0%, 50대 이상이 16.2%로 각각 나타나 40대 교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 50대 이상, 2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교가 45.3%, 인문고가 34.4%, 실업고가 20.3%로서 중학교 교사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44.6%, 중소도시가 34.8%, 군치역이 20.5%를 각각 차지하였다. 교사의 표집은 학생과는 다르게 교사의 모집단 분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진다.

<표 III-16> 교사 표본집단의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34	55.8%
	여자	185	44.2%
연령별	20대	32	7.6%
	30대	139	33.2%
	40대	180	43.0%
	50대이상	68	16.2%
교급별	중학교	190	45.3%
	인문고	144	34.4%
	실업고	85	20.3%
지역별	대도시	187	44.6%
	중소도시	146	34.8%
	군치역	86	20.5%
계		419	100.0%

IV.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실태

I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 및 아르바이트에 대한 태도
2.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 이유
3.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과 구직방법
4.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5.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6.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방안
7.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욕구
8. 교사가 바라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9.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 소결

IV.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실태

본 장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실태를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문제의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둘째,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셋째,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넷째,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현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여섯째,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러한 여섯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이제부터는 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참여를 일종의 금기로 간주하면서 더 이상 사회적인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견진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가 바라보는 청소년아르바이트를 살펴봄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청소년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 및 아르바이트에 대한 태도

본 절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

(1)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경험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29.2%로 나타나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약 3분의 1가량이 아르바이트 경

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학생의 경험률이 여학생보다 높고,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특히 실업고생의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지역,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서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수요의 측면에서 도시화의 정도가 클수록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이 잘 발달되어있고, 이러한 직종에서의 청소년인력에 대한 수요가 타 지역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V-1>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경험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경험				계	
		있다		없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622	32.5%	1291	67.5%	1913	100.0%
	여자	442	25.5%	1288	74.5%	1730	100.0%
교급별***	중학교	442	23.5%	1441	76.5%	1883	100.0%
	인문고	342	29.7%	811	70.3%	1153	100.0%
	실업고	280	46.1%	327	53.9%	607	100.0%
학교성적***	상	222	22.5%	765	77.5%	987	100.0%
	중	441	27.7%	1151	72.3%	1592	100.0%
	하	396	38.4%	636	61.6%	1032	100.0%
가정형편***	상	132	25.0%	395	75.0%	527	100.0%
	중	724	28.0%	1858	72.0%	2582	100.0%
	하	208	39.5%	319	60.5%	527	100.0%
지역***	대도시	534	31.9%	1139	68.1%	1673	100.0%
	중소도시	394	29.2%	957	70.8%	1351	100.0%
	군지역	136	22.0%	483	78.0%	619	100.0%
계		1064	29.2%	2579	70.8%	3643	100.0%

(1) * 표시는 집단변수 별 카이스퀘어(χ^2) 검증에 따른 유의도수준을 나타냄

(2)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2) 지난 여름방학때 아르바이트 경험

<표 IV-2> 지난 여름방학때 아르바이트 경험

		지난 여름방학때 아르바이트 경험				계	
		있다		없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	남자	289	15.1%	1624	84.9%	1913	100.0%
	여자	155	9.0%	1575	91.0%	1730	100.0%
교급별 ^{**}	중학교	185	9.8%	1698	90.2%	1883	100.0%
	인문고	130	11.3%	1023	88.7%	1153	100.0%
	실업고	129	21.3%	478	78.7%	607	100.0%
학교성적 ^{**}	상	94	9.5%	893	90.5%	987	100.0%
	중	182	11.4%	1410	88.6%	1592	100.0%
	하	166	16.1%	866	83.9%	1032	100.0%
가정형편 ^{**}	상	58	11.0%	469	89.0%	527	100.0%
	중	294	11.4%	2288	88.6%	2582	100.0%
	하	92	17.5%	435	82.5%	527	100.0%
지역*	대도시	216	12.9%	1457	87.1%	1673	100.0%
	중소도시	172	12.7%	1179	87.3%	1351	100.0%
	군지역	56	9.0%	563	91.0%	619	100.0%
계		444	12.2%	3199	87.8%	3643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지난 여름방학 때(2000년 7월 – 8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2.2%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경험실태’와 마찬가지로 남학생의 경험률이 여학생보다 높고, 실업고생의 경험률이 중학생과 인문고생의 두 배정 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지난 여름방학 때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역시 군지역,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서 규모가 큰 지역 일수록 지난 여름방학 때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현재 아르바이트 참여여부

<표 IV-3> 현재 아르바이트 참여여부

		현재 아르바이트 참여여부				계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67	3.5%	1846	96.5%	1913	100.0%
	여자	47	2.7%	1683	97.3%	1730	100.0%
교급별 ^{*1+}	중학교	33	1.8%	1850	98.2%	1883	100.0%
	인문고	39	3.4%	1114	96.6%	1153	100.0%
	실업고	42	6.9%	565	93.1%	607	100.0%
학교성적	상	33	3.3%	954	96.7%	987	100.0%
	중	41	2.6%	1551	97.4%	1592	100.0%
	하	40	3.9%	992	96.1%	1032	100.0%
가정형편 ^{**+}	상	16	3.0%	511	97.0%	527	100.0%
	중	63	2.4%	2519	97.6%	2582	100.0%
	하	35	6.6%	492	93.4%	527	100.0%
지역 [*]	대도시	63	3.8%	1610	96.2%	1673	100.0%
	중소도시	41	3.0%	1310	97.0%	1351	100.0%
	군지역	10	1.6%	609	98.4%	619	100.0%
계		114	3.1%	3529	96.9%	3643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조사기간(2000년 11월) 중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이 3.1%로 나타났다.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참여율이 높고, 특히 실업고생의 참여율이 인문고생의 두 배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현재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높고, 지역별로도 역시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현재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현재 아르바이트 미참여자의 구직활동(아르바이트 경험자)

<표 IV-4> 현재 아르바이트 미참여자의 구직활동

		현재 아르바이트 미참여자의 구직활동				계	
		아르바이트하려고 구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않고 있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96	35.3%	359	64.7%	555	100.0%
	여자	130	32.9%	265	67.1%	395	100.0%
교급별***	중학교	112	27.4%	297	72.6%	409	100.0%
	인문고	89	29.4%	214	70.6%	303	100.0%
	실업고	125	52.5%	113	47.5%	238	100.0%
학교성적	상	54	28.6%	135	71.4%	189	100.0%
	중	140	35.0%	260	65.0%	400	100.0%
	하	131	36.3%	225	63.2%	356	100.0%
가정형편**	상	35	30.2%	81	69.8%	116	100.0%
	중	210	31.8%	451	68.2%	661	100.0%
	하	81	46.8%	92	53.2%	173	100.0%
지역	대도시	158	33.5%	313	66.5%	471	100.0%
	중소도시	118	33.4%	235	66.6%	353	100.0%
	군지역	50	39.7%	76	60.3%	126	100.0%
계		326	34.3%	624	65.7%	950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현재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은 34.3%로 이는 전체 중·고등학생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여기에 현재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3.1%를 더한다면 학기중의 기간이라고 할 지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중·고등학생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는 최소한 전체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중·고등학생 열 명중의 한 명꼴로 학기중에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려 다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기중 구직활동은 실업고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5)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아르바이트 경험자)

<표 IV-5>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경험 횟수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10회		11회 이상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성별 ***	남자	177	29.9%	147	24.4%	108	17.1%	41	6.8%	46	7.8%	60	10.0%	29	4.8%	638	100%
	여자	167	37.9%	112	25.4%	80	18.1%	30	6.8%	24	5.4%	21	4.8%	7	1.6%	411	100%
교급별	중학교	148	34.3%	98	22.7%	73	16.9%	28	6.5%	31	7.2%	33	7.6%	21	4.9%	422	100%
	인문고	102	30.3%	78	23.4%	67	20.1%	25	7.8%	21	6.3%	31	9.3%	9	2.7%	331	100%
	설립고	94	33.8%	83	29.9%	43	15.5%	17	6.1%	18	6.5%	17	6.1%	6	2.2%	278	100%
학교 성적 *	상	75	34.4%	51	23.8%	31	15.6%	12	5.5%	16	7.3%	21	9.6%	6	2.8%	218	100%
	중	143	32.9%	119	27.4%	81	18.7%	27	6.2%	26	6.0%	32	7.4%	6	1.4%	431	100%
	하	125	33.3%	84	21.7%	63	17.6%	31	8.0%	27	7.0%	28	7.2%	24	6.2%	337	100%
가정 형편	상	37	28.3%	28	21.5%	23	17.7%	10	7.7%	10	7.7%	15	11.5%	7	5.4%	130	100%
	중	29	33.7%	183	25.8%	127	17.9%	48	6.8%	46	6.5%	47	6.0%	19	2.7%	70	100%
	하	68	33.2%	48	23.4%	33	16.1%	13	6.3%	14	6.8%	19	9.3%	10	4.9%	205	100%
지역	대도시	171	32.6%	123	23.5%	88	16.8%	31	6.3%	41	7.8%	46	8.8%	21	4.0%	524	100%
	중소도시	120	30.7%	103	26.3%	78	19.9%	30	7.7%	22	5.6%	36	6.0%	12	3.1%	391	100%
	군자역	53	41.1%	33	25.9%	17	13.2%	7	5.4%	7	5.4%	9	7.0%	3	2.3%	129	100%
계		344	33.0%	239	24.8%	183	17.5%	71	6.8%	70	6.7%	81	7.8%	35	3.4%	1044	1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중에서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단 한 번 만 해본 사람은 33.0%로 아르바이트 경험자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2회는 24.8%, 3회는 17.5%로서 1-3회가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경험자들이 비교적 적은 횟수의 경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르바이트 경험횟수가 대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처음으로 아르바이트한 시기(아르바이트 경험자)

<표 IV-6> 처음으로 아르바이트한 시기

		처음으로 아르바이트한 시기												계 빈도 퍼센트			
		초등학교		중1		중2		중3		고1		고2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98	15.8%	105	17.0%	130	21.0%	132	21.3%	105	17.0%	49	7.9%	61	100.0%		
	여자	62	14.0%	81	18.3%	118	26.7%	72	16.3%	59	13.3%	50	11.3%	44	100.0%		
교급별 **	중학교	129	29.3%	137	31.1%	126	28.6%	48	10.9%					44	100.0%		
	인문고	21	6.2%	29	8.5%	80	23.5%	90	26.4%	77	22.6%	44	12.9%	34	100.0%		
	실업고	10	3.6%	20	7.2%	42	15.1%	66	23.7%	87	31.2%	54	19.4%	27	100.0%		
학과 성적	상	41	18.0%	39	17.6%	52	23.5%	40	18.1%	34	15.4%	15	6.8%	22	100.0%		
	중	60	13.6%	68	15.5%	106	24.1%	94	21.4%	66	15.0%	46	10.5%	44	100.0%		
	하	57	14.4%	78	19.7%	90	22.8%	68	17.2%	64	16.2%	38	9.6%	39	100.0%		
가정 형편	상	26	19.8%	29	22.1%	29	22.1%	24	18.3%	13	9.9%	10	7.6%	13	100.0%		
	중	111	15.4%	124	17.2%	172	23.8%	140	19.4%	113	15.7%	62	8.6%	72	100.0%		
	하	23	11.1%	33	15.9%	47	22.6%	40	19.2%	38	18.3%	27	13.0%	20	100.0%		
지역 ***	대도시	95	17.8%	104	19.5%	132	24.8%	85	15.9%	78	14.6%	39	7.3%	53	100.0%		
	중소도시	55	14.0%	70	17.9%	87	22.2%	81	20.7%	58	14.8%	41	10.5%	39	100.0%		
	군지역	10	7.4%	12	8.8%	29	21.3%	38	27.9%	28	20.6%	19	14.0%	13	100.0%		
계		160	15.1%	186	17.5%	248	23.4%	204	19.2%	164	15.5%	99	9.3%	106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중에서 아르바이트를 처음 한 시기로는 중학교 2학년(23.4%), 중학교 3학년(19.2%), 중학교 1학년(17.5%), 고등학교 1학년(15.5%), 초등학교(15.1%), 고등학교 2학년(9.3%) 순으로 나타나 약 60%의 학생들이 중학생일 때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인문고생과 실업고생이 초등학생때 아르바이트를 처음 했다는 응답이 각각 6.2%, 3.6%인데 비하여 중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이 초등학생때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했다는 응답이 29.3%나 되어 최초 아르바이트 참여하는 시기가 점차 저연령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고생은 아르바이트를 처음 한 시기가 중학생, 인문고생보다 늦고,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연령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태도

(1)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참여에 대한 인식

<표 IV-7>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참여에 대한 인식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참여에 대한 인식						계			
		아주 좋게 생각한다		약간 좋게 생각한다		약간 나쁘게 생각한다		아주 나쁘게 생각한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	남자	490	25.7%	1090	57.2%	288	15.1%	38	2.0%	1976	100.0%
	여자	485	23.2%	1018	59.3%	208	11.8%	12	.7%	1718	100.0%
교급별 ^{***}	중학교	471	25.1%	1102	58.8%	274	14.6%	27	1.4%	1874	100.0%
	인문고	296	25.8%	660	57.6%	176	15.4%	14	1.2%	1146	100.0%
	실업고	208	34.4%	346	57.3%	41	6.8%	9	1.5%	604	100.0%
학교성적 ^{***}	상	206	21.0%	579	59.0%	182	18.6%	14	1.4%	931	100.0%
	중	421	26.0%	958	59.2%	208	13.1%	17	1.1%	1584	100.0%
	하	345	33.6%	566	55.1%	97	9.4%	19	1.9%	1027	100.0%
가정형편 ^{***}	상	111	21.1%	277	52.8%	123	23.4%	14	2.7%	335	100.0%
	중	655	26.7%	1533	59.7%	319	12.4%	31	1.2%	2558	100.0%
	하	178	34.0%	298	55.9%	48	9.2%	5	1.0%	524	100.0%
지역 ^{***}	대도시	413	24.9%	956	53.4%	237	14.3%	24	1.4%	1660	100.0%
	중소도시	322	26.9%	762	56.0%	205	15.2%	18	1.3%	1347	100.0%
	군지역	200	32.4%	330	53.3%	49	7.9%	8	1.3%	617	100.0%
계		975	26.9%	2108	58.2%	491	13.5%	50	1.4%	3624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05, ** = p <.01, *** = p <.001

중·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아주 좋게 생각한다'가 26.9%, '약간 좋게 생각한다'가 58.2%, '약간 나쁘게 생각한다'가 13.5%, '아주 나쁘게 생각한다'가 1.4%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5.1%로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그리고 중학생과 인문고생보다는 실업고생이 높고, 학교성적이 낮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서 높으며, 지역별로는 군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허용도

<표 IV-8>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허용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허용도								계	
	당연히 할 수 있다		한두번 정도 할 수도 있다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867	46.5%	747	39.3%	240	12.6%	46	2.4%	1900 100.0%
	여자	816	47.5%	749	43.6%	135	7.9%	17	1.0%	1717 100.0%
교급별****	중학교	755	40.3%	842	44.9%	236	12.6%	41	2.2%	1874 100.0%
	인문고	538	51.5%	437	38.3%	105	9.2%	11	1.0%	1141 100.0%
	실업고	340	53.5%	217	36.0%	34	5.6%	11	1.8%	602 100.0%
학교성적 *****	상	46	43.4%	403	41.6%	133	13.6%	14	1.4%	981 100.0%
	중	729	46.2%	680	43.1%	151	9.6%	17	1.1%	1577 100.0%
	하	518	50.4%	389	37.9%	88	8.6%	32	3.1%	1027 100.0%
가정형편 ****	상	200	38.2%	214	40.9%	92	17.6%	17	3.3%	523 100.0%
	중	1189	46.4%	1100	42.9%	240	9.4%	35	1.4%	2564 100.0%
	하	290	35.4%	181	34.0%	41	7.8%	11	2.1%	523 100.0%
지역	대도시	761	45.9%	710	42.8%	160	9.7%	27	1.6%	1658 100.0%
	중소도시	613	45.7%	557	41.5%	149	11.1%	23	1.7%	1322 100.0%
	군지역	309	50.1%	229	37.1%	66	10.7%	13	2.1%	617 100.0%
계	1683	46.5%	1466	41.4%	375	10.4%	63	1.7%	3617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중·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당연히 할 수 있다’가 46.5%, ‘한두번 정도 할 수도 있다’가 41.4%로서 87.9%가 허용적 태도를 가지는 반면,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가 10.4%,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가 1.7%로서 12.1%의 학생만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불가의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참여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그리고 중학생과 인문고생보다 실업고생이 높고, 학교성적이 낮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허용도를 살펴 보면 전체의 약 85-88%가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인식을 가짐으로써 중·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아르바이트는 자연스럽고,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 실업고생, 학교성적이 낮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아르바이트경험이 많은 집단에서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해 긍정적이고 허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여학생의 경우에는 예외인데 이들은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남학생보다 낮기는 하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하거나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은 현실과 아르바이트를 경험이 없는 여학생이 갖고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높은 잠재적인 욕구가 존재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 이유

1)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두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두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51.3%가 '평소 용돈이 부족해서'라고 하였고, '중요한 무언가를 꼭 사거나 쓸 곳이 생겨서'도 38.7%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비행위를 위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가 28.1%, '친구들의 권유'가 17.8%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진로선택에 도움을 받으려고'는 2.5%,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는 3.3%에 불과하였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소비행위

를 위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실업고생은 중학생과 인문고생보다 '남는 시간을 활용하려고', '진로선택에 도움을 받으려고',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단이 가정형편이 나은 집단보다 '평소 용돈이 부족해서'와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9>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두가지(1)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두가지 (1)									
		용돈이 부족해서		무언가를 사거나 끌곳이 생겨		친구들의 권유로		남는 시간을 활용하려고		진로선택에 도움을 받으려고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97	49.5%	206	34.3%	106	17.7%	186	31.0%	14	2.3%
	여자	228	53.5%	191	44.8%	79	18.5%	104	24.4%	11	2.6%
교급별	중학교	208	48.2%	165	39.2%	98	23.3%	106	25.2%	7	1.7%
	인문고	177	53.3%	130	39.2%	62	18.7%	92	27.7%	5	1.5%
	실업고	145	53.1%	102	37.4%	25	9.2%	92	33.7%	13	4.8%
가정형편	상	57	45.2%	53	42.1%	23	18.3%	40	31.7%	1	.8%
	중	340	48.6%	279	39.9%	131	18.7%	199	28.5%	19	2.7%
	하	128	63.7%	65	32.3%	31	15.4%	51	25.4%	5	2.5%
아르바이트 종류	친구자 돌리기	232	52.4%	109	38.1%	110	24.8%	104	23.5%	5	1.1%
	페스트루드점	26	55.5%	19	41.3%	6	13.0%	12	26.1%	1	2.2%
	상점에서 물건판기	20	64.5%	11	35.5%	5	16.1%	8	25.8%	0	.0%
	신문배달	34	61.8%	25	45.5%	7	12.7%	13	23.6%	1	1.8%
	주유소	10	35.7%	8	28.6%	2	7.1%	12	42.9%	2	7.1%
	건설현장 일	20	57.1%	17	48.6%	1	2.9%	9	25.7%	4	11.4%
	음식점에서 서빙	66	50.0%	58	43.9%	17	12.9%	43	32.6%	6	4.5%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21	48.8%	19	44.2%	5	11.6%	15	34.9%	0	.0%
	기타	84	44.9%	61	32.6%	25	13.4%	65	34.8%	6	3.2%
계		513	51.3%	387	38.7%	178	17.8%	281	28.1%	25	2.5%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소비를 위한 용돈벌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단지 돌리기는 '친구들의 권유로', 주유소는 '남는 시간을 활용하려고'와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페스트푸드점은 '친구들을 폭넓게 사귀기 위해',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은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가 각각 다른 업종에서보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9>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두가지(2)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두가지(2)						계	
		친구들을 폭넓게 사귀기 위해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0	33%	22	37%	60	100%	600	58.5%
	여자	9	21%	12	28%	33	77%	426	41.5%
교급별	중학교	13	31%	9	21%	40	95%	421	41.0%
	인문고	12	36%	9	27%	33	99%	332	32.4%
	실업고	4	15%	16	59%	20	73%	273	33.6%
가정형편	상	7	56%	1	8%	15	11.9%	126	12.3%
	중	17	24%	13	19%	66	94%	699	68.1%
	하	5	25%	20	100%	12	60%	201	19.6%
아르바이트 종류	전단지 돌리기	10	23%	6	14%	33	86%	443	44.3%
	페스트푸드점	4	87%	0	.0%	4	87%	46	4.6%
	상점예시물권팔기	1	32%	0	.0%	1	32%	31	3.1%
	신문배달	1	18%	3	55%	5	91%	55	5.5%
	주유소	0	.0%	5	17.9%	2	7.1%	28	2.8%
	건설현장 일	1	29%	2	57%	5	14.3%	35	3.5%
	음식점에서 서빙	3	23%	5	38%	8	61%	132	13.2%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0	.0%	4	93%	3	7.0%	43	4.3%
	기타	7	37%	8	43%	25	139%	187	18.7%
계		27	27%	33	33%	92	92%	1000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2)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 두가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 두가지를 선택하라는 복수응답에서 응답자의 72.2%가 '보수'라고 응답하였으며, 48.4%가 '시간적 여유', 10.9%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10.1%가 '근무환경'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V-10>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 두가지(1)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 두가지 (1)									
		보수		시간적 여유		나의 적성		근무환경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440	72.9%	288	47.1%	44	7.2%	55	9.0%	71	11.6%
	여자	322	73.2%	220	50.0%	39	8.9%	50	11.4%	41	100%
교급별	중학교	309	70.7%	215	49.2%	42	9.6%	30	6.9%	35	80%
	인문고	262	77.7%	154	45.7%	17	5.0%	41	12.2%	43	12.8%
	실업고	191	69.0%	139	50.2%	24	8.7%	34	12.3%	37	13.4%
아르바이트 종류	전단지 돌리기	348	76.7%	228	50.2%	30	6.6%	31	6.8%	32	7.0%
	페스트푸드점	30	65.2%	22	47.8%	4	8.7%	10	21.7%	6	13.0%
	상점에서 물건팔기	21	67.7%	21	67.7%	4	12.9%	4	12.9%	1	3.2%
	신문배달	48	75.4%	40	70.2%	5	8.8%	3	5.3%	5	8.8%
	주유소	18	62.1%	13	44.8%	4	13.8%	5	17.2%	4	13.8%
	건설현장 일	30	83.3%	11	30.6%	2	5.6%	4	11.1%	6	16.7%
	음식점 서빙	95	72.0%	62	47.0%	8	6.1%	22	16.7%	28	21.2%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29	65.9%	19	43.2%	2	4.5%	6	13.0%	5	11.4%
	기타	124	64.2%	79	40.9%	21	10.9%	18	9.3%	24	12.4%
계		738	72.9%	495	48.4%	80	7.8%	103	10.1%	111	10.9%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업종별로 살펴보면, '보수'라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업종은 건설현장일, 전단지 돌리기, 신문배달이며, '시간

'적 여유'는 신문배달, '나의 적성'은 주유소와 상점에서 물건팔기, '근무환경'은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음식점 서빙, '고용주의 성격'은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 '숙식제공'은 주유소,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문배달로 각각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수를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여 현재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있어서 아르바이트는 직업체험을 통해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한다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용돈벌기의 수단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V-10>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 두가지(2)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 두가지(2)						계	
		고용주의 성격		숙식제공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47	77%	16	26%	24	39%	26	43%
	여자	23	52%	4	9%	22	50%	26	59%
교급별	중학교	30	69%	6	14%	22	50%	32	73%
	인문고	21	62%	7	21%	8	24%	15	45%
	실업고	19	69%	7	23%	16	58%	5	18%
아르바이트 종류	전단지 돌리기	20	57%	6	13%	19	42%	26	57%
	패스트푸드점	3	6.5%	0	0%	1	2.2%	1	2.2%
	상점에서 물건팔기	1	3.2%	0	0%	1	3.2%	0	0%
	신문배달	4	7.0%	0	0%	5	8.8%	2	3.5%
	주유소	3	10.3%	3	10.3%	1	3.4%	0	0%
	건설현장 일	4	11.1%	3	83%	0	0%	1	2.8%
	음식점에서 서빙	9	6.8%	3	23%	5	38%	1	8%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7	15.9%	3	68%	1	23%	1	23%
	기타	12	6.2%	2	10%	12	62%	20	10.4%
계		69	68%	20	20%	45	44%	52	51%
								1022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05, ** = p <.01, *** = p <.001

3) 아르바이트 수입의 가장 큰 사용처 두 곳

<표 IV-11> 아르바이트 수입의 가장 큰 사용처 두 곳(1)

		아르바이트 수입의 가장 큰 사용처 두 곳 (1)							
		웃이나 신발같은 것을 산다		핸드폰을 사거나 월 이용료를 낸다		노래방이나 PC방에 간다		영화나 비디오를 본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53	42.3%	45	7.5%	234	39.1%	41	6.9%
	여자	219	51.5%	39	9.2%	79	18.6%	24	5.6%
교급별	중학교	139	33.0%	29	6.9%	148	35.2%	25	5.9%
	인문고	180	54.5%	25	7.0%	100	30.3%	30	9.1%
	실업고	153	56.3%	30	11.0%	65	23.9%	10	3.7%
가정형편	상	65	51.6%	13	10.3%	41	32.5%	15	11.9%
	중	319	45.8%	49	7.0%	219	31.4%	37	5.3%
	하	88	44.0%	22	11.0%	53	25.5%	13	6.5%
지역	대도시	240	46.7%	49	9.5%	166	32.3%	35	6.8%
	중소도시	179	47.1%	22	5.8%	122	32.1%	25	6.6%
	군자역	53	41.1%	13	10.1%	25	19.4%	5	3.9%
아르바이트 종류	전단지 돌리기	162	35.7%	27	6.1%	154	34.9%	31	7.0%
	페스트푸드점	28	60.9%	7	15.2%	8	17.4%	2	4.3%
	상점에서 물건팔기	19	63.3%	1	3.3%	7	23.3%	2	6.7%
	신문배달	30	55.6%	5	9.3%	19	35.2%	3	5.6%
	주유소	10	34.3%	6	20.7%	9	31.0%	1	3.4%
	건설현장 일	21	60.0%	0	.0%	11	31.4%	3	8.6%
	음식점에서 서빙	87	66.4%	20	15.3%	23	17.6%	9	6.9%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26	59.1%	5	11.4%	11	25.0%	0	.0%
	기타	73	39.2%	11	5.9%	68	36.6%	8	4.3%
계		455	45.8%	82	8.2%	310	31.1%	59	5.9%

(1) 유의도 수준 : * = p <.05, ** = p <.01, *** = p <.001

아르바이트 수입의 가장 큰 사용처 두 곳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웃이나 신발 같은 것을 산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고, ‘친구들과 군것질을 한다’가 43.8%, ‘노래방이나 PC방에 간다’가 3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을 한다'는 19.0%만이 응답해 아르바이트로 벌 돈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거나 친구 교제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았을 때, '저축을 한다'는 응답은 중학생이나 인문고생보다 실업고생에서 더 비율이 높았다.

<표 IV-11> 아르바이트 수입의 가장 큰 사용처 두 곳(2)

		아르바이트 수입의 가장 큰 사용처 두 곳(2)						계	
		친구들끼리 군거질을 한다		저축을 한다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43	40.6%	105	17.6%	63	10.5%	538	58.5%
	여자	206	48.5%	91	21.4%	50	11.8%	425	41.5%
교급별	중학교	211	50.1%	78	18.5%	46	10.9%	421	41.2%
	인문고	139	41.2%	54	16.4%	35	10.6%	330	32.3%
	실업고	99	36.4%	64	23.5%	32	11.8%	272	23.6%
가장학원	상	47	37.3%	17	13.5%	12	9.5%	125	12.3%
	중	319	45.8%	132	18.9%	72	10.3%	697	68.1%
	하	83	41.5%	47	23.5%	29	14.5%	200	19.6%
지역	대도시	232	45.1%	79	15.4%	57	11.1%	514	50.2%
	중소도시	168	44.2%	75	19.7%	31	8.2%	380	37.1%
	군지역	49	38.0%	42	32.6%	25	19.4%	129	12.6%
아르바이트 종류	천단지 돌기기	226	51.2%	66	15.0%	45	10.2%	441	44.3%
	페스트푸드점	13	28.3%	10	21.7%	8	17.4%	46	46%
	상점에서 물건 판매	12	40.0%	8	26.7%	0	0%	30	30%
	신문배달	21	38.9%	12	22.2%	4	7.4%	54	54%
	주유소	14	48.3%	6	20.7%	5	17.2%	29	29%
	건설현장 일	19	54.3%	5	14.3%	2	5.7%	35	35%
	음식점에서 시빙	45	34.4%	33	25.2%	12	9.2%	131	13.2%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13	29.5%	9	20.5%	7	15.9%	44	44%
	기타	73	39.2%	40	21.5%	30	16.1%	183	18.7%
계		436	43.8%	189	19.0%	113	11.3%	996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05, ** = p <.01, *** = p <.001

3.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과 구직방법

1) 현재 혹은 가장 최근에 해본 아르바이트

현재 혹은 가장 최근에 해보았던 아르바이트를 살펴보면, 전단지 돌리기가 4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음식점 서빙(13.1%), 신문배달(5.6%), 패스트푸드점(4.5%),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4.3%), 건설현장 일(3.5%), 상점에서 물건 팔기(3.0%), 주유소(2.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2> 현재 혹은 가장 최근에 해본 아르바이트(1)

		현재 혹은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종류 (1)											
		전단지 돌리기		패스트 푸드점		24시 편의점		상점에서 물건팔기		신문배달		주유소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	남자	243	40.4%	29	4.8%	7	1.2%	13	2.2%	53	8.8%	24	4.0%
	여자	213	49.9%	17	4.0%	7	1.6%	18	4.2%	5	1.2%	5	1.2%
교급별 ***	중학교	294	67.9%	6	1.4%	7	1.6%	11	2.5%	19	4.4%	8	1.8%
	입문고	104	32.5%	20	6.3%	4	1.3%	11	3.4%	26	8.1%	10	3.1%
	실업고	58	21.1%	20	7.3%	3	1.1%	9	3.3%	13	4.7%	11	4.0%
학교 성적	상	90	41.9%	12	5.6%	4	1.9%	9	4.2%	11	5.1%	5	2.3%
	중	176	41.8%	20	4.8%	6	1.4%	12	2.9%	30	7.1%	10	2.4%
	하	187	48.3%	14	3.6%	4	1.0%	10	2.6%	17	4.4%	14	3.6%
가정 형편*	상	56	44.4%	9	7.1%	1	.8%	10	7.9%	5	40%	1	.8%
	중	323	46.3%	24	3.4%	9	1.3%	12	1.7%	35	50%	20	29%
	하	77	37.7%	13	6.4%	4	2.0%	9	4.4%	18	8.8%	8	3.9%
지역 ***	영도사	258	50.1%	36	7.0%	6	1.2%	19	3.7%	23	45%	12	2.3%
	중소 도시	184	47.9%	6	1.6%	3	.8%	5	1.3%	22	5.7%	12	3.1%
	군지역	14	10.9%	4	3.1%	5	3.9%	7	5.4%	13	10.1%	5	3.9%
계		456	44.4%	46	4.5%	12	1.4%	31	3.0%	58	5.6%	20	2.8%
(1) 유의도 수준 : * = p <.05, ** = p <.01, *** = p <.001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학생 모두 전단지 돌리기가 가장 많은 가운데, 남학생은 신문배달, 음식점 서빙, 음식점 오토바이배달, 건설현장일의 순인데 비해, 여학생은 음식점 서빙, 상점에서 물건팔기, 패스트푸드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이 종사하는 업종이 대부분 전단지돌리기에 집중되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아르바이트업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전단지 돌리기,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서빙의 순이고, 중소도시가 전단지 돌리기, 음식점 서빙, 신문배달의 순이며, 군지역은 음식점 서빙, 전단지 돌리기, 신문배달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2> 현재 혹은 최근에 해본 아르바이트(2)

		현재 혹은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종류 (2)								계	
		건설현장 일		이벤트행사장		음식점에서 서빙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	남자	34	5.7%	7	1.2%	47	7.8%	41	6.8%	91	15.1%
	여자	2	5%	2	5%	88	20.6%	3	.7%	60	14.1%
교급별 ***	중학교	4	.9%	3	.7%	10	2.3%	10	2.3%	54	12.5%
	인문고	27	8.4%	5	1.6%	44	13.8%	18	5.6%	47	14.7%
	실업고	5	1.8%	1	.4%	81	29.5%	16	5.8%	50	18.2%
학교 성적	상	7	3.3%	4	1.9%	26	12.1%	7	3.3%	34	15.8%
	중	18	4.3%	3	.7%	65	15.4%	17	4.0%	56	13.3%
	하	11	2.8%	2	.5%	42	10.9%	20	5.2%	61	15.8%
가정 형편 **	상	5	4.0%	1	.8%	15	11.9%	4	3.2%	18	14.3%
	중	21	3.0%	6	9%	97	13.9%	28	4.0%	109	15.6%
	하	10	4.9%	2	1.0%	23	11.3%	12	5.9%	24	11.8%
지역 ***	대도시	12	2.3%	3	.6%	48	9.3%	25	4.9%	61	11.8%
	중소 도시	16	4.2%	6	1.6%	61	15.9%	14	3.6%	51	13.3%
	군지역	8	6.2%			26	20.2%	5	3.9%	39	30.2%
계		36	3.5%	9	9%	135	13.1%	44	4.3%	151	14.7%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2) 아르바이트 시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중 47.3%가 방학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9.0%는 방과후에, 그리고 13.6%는 방과후와 방학중 모두의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모두 '방학중', '방과후', '방과후와 방학중 모두'의 순이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방학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방과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아르바이트 시기

		아르바이트 기간								계 빈도 퍼센트			
		방과후		방학중		방과후와 방학중 모두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56	25.9%	303	50.3%	77	12.8%	66	11.0%	602	100.0%		
	여자	143	33.3%	185	43.0%	63	14.7%	39	9.1%	430	100.0%		
교급별***	중학교	129	30.1%	208	48.5%	55	12.8%	37	8.6%	429	100.0%		
	인문고	67	20.4%	109	51.4%	42	12.8%	51	15.5%	329	100.0%		
	실업고	103	37.6%	111	40.5%	43	15.7%	17	6.2%	274	100.0%		
아르바이트 종류***	전단지돌리기	148	33.0%	212	47.2%	54	12.0%	35	7.8%	449	100.0%		
	페스트푸드점	21	47.7%	14	31.8%	8	18.2%	1	2.3%	44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12	41.4%	12	41.4%	1	3.4%	4	13.8%	29	100.0%		
	신문배달	8	14.5%	30	54.5%	9	16.4%	8	14.5%	55	100.0%		
	주유소	1	3.4%	19	65.5%	6	20.7%	3	10.3%	29	100.0%		
	건설현장 일	2	5.7%	24	68.6%	3	8.6%	6	17.1%	35	100.0%		
	음식점에서 서빙	41	33.1%	45	33.8%	26	19.5%	18	13.5%	133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9	20.9%	21	48.8%	7	16.3%	6	14.0%	43	100.0%		
	기타	48	25.7%	92	49.2%	25	13.4%	22	11.8%	187	100.0%		
	계	299	29.0%	488	47.3%	140	13.6%	105	10.2%	1032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두 '방학중', '방과후', '방과후와 방학중 모두'의 순인 가운데, 중학교와 인문고가 '방학중'의 비율이 실업고보다 높은 반면, '방과후'의 비율은 실업고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과 인문고생은 방학중에만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데 비해, 실업고생은 방학중에 참여하는 비율 못지 않게 방과후에도 일상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단지 돌리기, 신문배달, 주유소, 건설현장일, 음식점 오토바이배달은 주로 방학중에 많이 종사하는 한편, 페스트푸드점은 방과후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점에서 물건팔기, 음식점 서빙은 방학중과 방과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간당 보수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의 시간당 보수를 살펴보면 '1500원 초과 - 2000원 이하'가 39.4%로 가장 많고, 다음이 '2000원 초과 - 2500원 이하'가 14.2%, '2500원 초과 - 3000원 이하'가 11.4%, '4000원 초과 - 5000원 이하'가 9.4%, '1000원 이하'가 6.0%의 순으로서, 1500원에서 3000원까지의 분포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0원 이하의 저임금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중학생이며, 업종별로는 신문배달,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 전단지 돌리기, 음식점 서빙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시간당 보수(1)

		시간당 보수(1)									
		1000원 이하		1000원 초과 - 1500원 이하		1500원 초과 - 2000원 이하		2000원 초과 - 2500원 이하		2500원 초과 - 3000원이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	남자	25	8.2%	39	12.7%	105	34.3%	46	15.0%	33	10.8%
	여자	8	3.3%	32	13.1%	112	45.7%	32	13.1%	30	12.2%
교급별 ^{***}	중학교	19	9.2%	29	14.1%	67	32.5%	19	9.2%	29	14.1%
	인문고	8	4.6%	16	9.2%	70	40.5%	30	17.3%	17	9.8%
	실업고	6	3.5%	26	15.1%	80	45.5%	29	16.9%	17	9.9%
아르바이트 종류 ^{****}	현단지돌리기	18	8.8%	22	10.8%	75	36.8%	25	12.3%	24	11.8%
	페스티벌참	2	4.8%	1	2.4%	20	47.6%	12	28.6%	6	14.3%
	상점에서 물건팔기	1	5.9%	1	5.9%	11	64.7%			1	5.9%
	신문배달			3	25.0%	4	33.3%	1	8.3%	1	8.3%
	주유소	1	4.8%	2	9.5%	12	57.1%	3	14.3%		
	건설현장일					5	41.7%	3	25.0%	1	8.3%
	음식점 서빙	2	20%	16	15.8%	46	45.5%	13	12.9%	12	11.9%
	음식점에서 오토마이네랄	1	2.9%	6	17.1%	12	34.3%	10	28.6%	4	11.4%
	기타	7	7.4%	19	20.0%	27	28.4%	9	9.5%	13	13.7%
계		33	6.0%	71	12.9%	217	39.4%	78	14.2%	63	11.4%

(1) 유의도 수준 : * = p <.05, ** = p <.01, *** = p <.00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까지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1678.5원인데, 이러한 시간당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보수를 받는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의 약 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법적으로 명시된 최저임금액 수준도 보장받지 못하며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들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취업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보장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V-14> 시간당 보수(2)

		시간당 보수(2)						계	
		3000원 초과 - 4000원 이하		4000원 초과 - 5000원이하		5000원 초과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1	36%	37	121%	10	33%	36	100.0%
	여자	6	24%	15	61%	10	41%	25	100.0%
교급별**	중학교	5	2.4%	28	13.6%	10	4.9%	26	100.0%
	인문고	7	4.0%	18	10.4%	7	4.0%	173	100.0%
	실업고	5	2.9%	6	35%	3	1.7%	172	100.0%
아르바이트 종류***	친구집 물리기	6	2.9%	29	14.2%	5	2.5%	204	100.0%
	페스드푸드점			1	24%			42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1	5.9%	1	5.9%	1	5.9%	17	100.0%
	신문배달	2	16.7%			1	8.3%	12	100.0%
	주유소			1	48%	2	95%	21	100.0%
	건설현장일	1	8.3%	2	16.7%			12	100.0%
	음식점에서 서빙	3	30%	4	40%	5	50%	101	100.0%
	음식점에서 오두막이 배달	1	2.9%	1	29%			35	100.0%
	기타	3	32%	12	126%	5	53%	95	100.0%
계		17	31%	52	94%	20	36%	351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4) 근무시간

평일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1-2시간'이 31.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6시간'이 24.6%, '3-4시간'이 20.8%, '11시간 이상'이 9.5%, '7-8시간'이 7.5%, '9-10시간'이 6.4%의 순으로서 평일 근무시간이 1시간에서 5시간사이인 학생이 7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근로시간이 길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근로시간이 길고, 업종별로는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업종은 건설현장일(57.9%), 주

유소(44%), 음식점 오토바이배달(35%), 상점에서 물건팔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은 3시간에서 6시간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패스트푸드점에서의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5> 평일 근무시간

		평일 근무시간										계	
		1-2시간		3-4시간		5-6시간		7-8시간		9-10시간		11시간 이상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	남자	116	31.3%	71	19.1%	83	22.4%	30	8.1%	22	5.9%	49	13.2%
	여자	83	31.0%	62	23.1%	74	27.6%	18	6.7%	19	7.1%	12	4.5%
교급별 ***	중학교	119	52.9%	54	24.0%	22	9.8%	9	4.0%	9	4.0%	12	5.3%
	일문고	49	24.5%	35	17.5%	52	26.0%	16	8.0%	19	9.5%	29	14.5%
	실업고	31	14.5%	44	20.6%	83	38.8%	23	10.7%	13	6.1%	20	9.3%
아르바이트 종류 ***	친구끼리 돌리기	119	55.3%	62	28.8%	16	7.4%	11	5.1%	1	.5%	6	2.8%
	패스트푸드점	1	2.9%	7	3.6%	23	67.0%	1	2.9%	2	5.9%		34
	상점에서 물건팔기	5	22.7%	5	22.7%	5	22.7%	1	4.5%	5	22.7%	1	4.5%
	전문배달	35	76.0%	8	17.0%	2	4.3%			1	2.1%		47
	주유소	1	4.0%			7	28.0%	6	24.0%	5	20.0%	6	24.0%
	건설현장 일	4	21.1%	1	5.3%	2	10.5%	1	5.3%	3	15.8%	8	42.1%
	음식점에서 서빙	5	52%	20	20.6%	46	47.4%	11	11.3%	4	4.1%	11	11.3%
	음식점에서 오토바이배달	1	2.5%	6	15.0%	17	42.5%	2	5.0%	3	7.5%	11	27.5%
기타		24	19.2%	21	16.8%	36	28.8%	13	10.4%	14	11.2%	17	13.6%
계		199	31.1%	133	20.8%	157	24.6%	48	7.3%	41	6.4%	61	9.5%
1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근로기준법상의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 최대제한범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학생이 전체적으로 1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일 장시간의 아르바이트 근로에 종사하는 중·고등학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토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학생이

25.5%,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학생이 36.7%로 각각 나타나 장시간의 아르바이트 근로에 종사하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5) 일주일동안 출근 횟수

<표 IV-16> 일주일동안 출근 횟수

		일주일동안 출근횟수										계	
		매일		1-2일		3-4일		5-6일		평균치 및자보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12	18.8%	96	16.0%	67	11.1%	126	21.0%	200	33.3%	601	100.0%
	여자	75	17.4%	99	23.0%	50	11.6%	56	13.0%	150	34.9%	430	100.0%
교급별	중학교	35	8.3%	101	23.9%	55	13.0%	47	11.1%	185	43.7%	423	100.0%
	인문고	60	18.0%	60	18.0%	37	11.1%	60	18.0%	117	35.0%	334	100.0%
	실업고	92	33.6%	34	12.4%	25	9.1%	75	27.4%	48	17.5%	274	100.0%
이트비아 트 종류	친단지돌리기	30	6.7%	110	24.6%	59	13.2%	28	6.3%	220	49.2%	447	100.0%
	페스트푸드점	7	15.6%	6	13.3%	10	22.2%	18	40.0%	4	8.9%	45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5	16.1%	14	45.2%	3	9.7%	5	16.1%	4	12.9%	31	100.0%
	신문배달	14	25.0%	1	1.8%	4	7.1%	34	60.7%	3	5.4%	56	100.0%
	주유소	15	51.7%	1	3.4%	4	13.8%	5	17.2%	4	13.8%	29	100.0%
	건설현장 일	4	11.4%	4	11.4%	3	8.6%	6	17.1%	18	51.4%	35	100.0%
	음식점 서빙	49	36.8%	16	12.0%	14	10.5%	28	21.1%	26	19.5%	133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19	43.2%	4	9.1%	1	2.3%	11	25.0%	9	20.5%	44	100.0%
	기타	40	22.0%	31	17.0%	18	9.9%	41	22.5%	52	28.6%	182	100.0%
계		187	18.1%	195	18.9%	117	11.3%	182	17.7%	350	33.9%	1031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일주일동안의 출근 횟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주유소, 음식점 서빙,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은 정해진 기간동안 매일 출근하는 비율이 높고, 상점에서 물건팔기는 일주일중 판매가 집중되는 특정일에만 근무하는 1-2일 출근이 많으며, 페스트푸드점과 신문배달은 일주일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5-6일 출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단지돌리기와 건설현장일은 일의 성격상 단시간·단기간동안만 업무가 집중되고 곧 종료되는 특성이 있어 출근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 사업장 종업원수

<표 IV-17> 사업장 종업원수

		사업장 종업원수										계	
		2인 이하		3-5인 이하		6-10인 이하		11-20인 이하		21인 이상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00	22.7%	138	31.4%	114	25.9%	55	12.5%	33	7.5%	40	100.0%
	여자	53	21.1%	109	39.0%	73	26.5%	21	7.6%	14	5.1%	25	100.0%
교과별	중학교	65	24.9%	99	37.9%	69	26.4%	18	6.9%	10	3.8%	261	100.0%
	인문고	50	21.8%	75	32.8%	61	26.6%	28	12.2%	15	6.6%	229	100.0%
	실업고	43	19.1%	73	32.4%	57	25.3%	30	13.3%	22	9.8%	235	100.0%
아르바이트 종류 **	전단지 돌리기	60	22.7%	107	40.5%	67	25.4%	18	6.8%	12	4.5%	364	100.0%
	페스트푸드점	2	5.1%	10	25.6%	4	10.3%	15	38.5%	8	20.5%	39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6	28.6%	10	47.6%	3	14.3%	1	4.8%	1	4.8%	21	100.0%
	신문매달	3	8.3%	15	41.7%	16	44.4%	2	5.6%			36	100.0%
	주유소	2	8.3%	6	25.0%	6	25.0%	7	29.2%	3	12.5%	24	100.0%
	건설현장 일	3	12.5%	2	8.3%	11	45.8%	4	16.7%	4	16.7%	24	100.0%
	음식점에서 시방	16	14.2%	40	35.4%	41	36.3%	13	11.5%	3	27%	113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14	34.1%	19	46.3%	7	17.1%	1	2.4%			41	100.0%
	기타	46	34.1%	36	26.7%	29	21.5%	11	8.1%	13	9.6%	135	100.0%
	계	158	22.1%	247	34.5%	187	26.2%	76	10.6%	47	6.6%	715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아르바이트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종사하는 사업장의 규모를 종업원수를 통해 살펴보면, '3-5인'이 34.5%로 가장 많고, '6-10인'이 26.2%, '2인 이하'가 22.1%, '11-20인'이 10.6%, '21인 이상'이 6.6%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5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약 57%나 되며, 약 83%가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전단지 돌리기, 상점에서 물건팔기, 음식점 오토바이배달이 대부분 5인 이하 사업장에 분포되어 있으며, 페스트푸드점, 주유소, 건설현장일은 다른 업종보다 11인 이상 사업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7)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표 IV-18>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계 빈도 퍼센트			
		1-2일		3-7일		8-15일		16-30일		31일 이상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	남자	179	30.5%	104	17.7%	69	11.8%	109	18.6%	125	21.3%	586	100.0%		
	여자	168	39.8%	83	19.7%	56	13.3%	59	14.0%	55	13.3%	422	100.0%		
교급별 ***	중학교	194	47.3%	83	20.2%	48	11.7%	42	10.2%	43	10.5%	410	100.0%		
	인문고	105	32.0%	58	17.7%	41	12.5%	63	19.2%	61	18.6%	328	100.0%		
	실업고	48	17.8%	46	17.0%	36	13.3%	63	23.3%	77	28.5%	270	100.0%		
아르바이트 종류 ***	전단지돌리기	232	53.6%	95	21.9%	42	9.7%	38	8.8%	26	6.0%	433	100.0%		
	페스트푸드점	6	13.0%	2	4.3%	6	13.0%	8	17.4%	24	52.2%	46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9	30.0%	4	13.3%	4	13.3%	5	16.7%	8	26.7%	30	100.0%		
	신문매달	3	5.7%	5	9.4%	3	5.7%	16	30.2%	26	49.1%	53	100.0%		
	주유소	2	6.9%	4	13.8%	9	31.0%	6	20.7%	8	27.6%	29	100.0%		
	건설현장 일	14	40.0%	6	17.1%	4	11.4%	6	17.1%	5	14.3%	35	100.0%		
	음식점 서빙	30	22.6%	22	16.5%	15	11.3%	34	25.6%	32	24.1%	133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배달	6	13.6%	10	22.7%	6	13.6%	11	25.0%	11	25.0%	44	100.0%		
	기타	37	20.6%	33	18.3%	33	18.3%	40	22.2%	37	20.6%	180	100.0%		
	계	347	34.4%	187	18.6%	125	12.4%	168	16.7%	181	18.0%	1008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아르바이트를 지속했던 기간을 살펴보면, '1-2일'이 34.4%로서 가장 많고, '3-7일'이 18.6%, '8-15일'이 12.4%, '16-30일'이 16.7%, '31일 이상'이 18.0%로 각각 나타났다. 일주일도 안되어 끝나는 아르바이트가 53.0%로서 과반수를 넘으며, 한달이상 지속되는 아르바이트는 단지 18%에 불과하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속기간이 길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지속기간이 중학생보다 길며, 특히 실업고생의 지속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의 지속기간은 업종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데, 전단지 돌리기와 건설현장일은 업종의 성격상 '1-2일'에 가장 많고, 일주일을 넘기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스트푸드점과 신문배달은 한 달이상 지속하는 학생의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 나타나 비교적 덜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구직방법

아르바이트를 구한 방법을 살펴보면, '친구소개'가 49.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점이나 길가에 붙은 광고전단을 보고'가 14.6%,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로'가 12.7%, '벼룩시장, 교차로 같은 곳에서 보고'가 10.9%의 순이다. 반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가 1.1%, '직업소개소 소개로'가 1.1%, '교사나 학교의 소개'가 0.9%에 불과하여 공식적인 구직방법보다 비공식적인 구직방법이 청소년들 사이에 훨씬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구직방법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친구소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인문고생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점, 신문배달, 음식점 오토바이배달에서 '친구소개'의 이용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표 IV-19> 아르바이트 구직 방법(1)

		아르바이트 구직방법(1)									
		친구소개로		벼룩시장, 교차로 같은 곳에서		상점·길가의 광고전단을보고		직업소개소 소개로		인터넷이나 인터넷을통해서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325	54.3%	47	7.8%	68	11.4%	11	1.8%	7	1.2%
	여자	190	45.3%	66	15.0%	84	19.1%			4	.9%
교급별***	중학교	206	48.0%	39	9.1%	76	17.7%	1	2%	8	1.9%
	인문고	180	54.1%	24	7.2%	39	11.7%	10	3.0%	2	.6%
	실업고	129	46.7%	50	18.1%	37	13.4%			1	.4%
아르바이트 종류***	진단지 돌리기	237	52.7%	62	13.8%	87	19.3%	2	4%	4	.9%
	페스트푸드점	30	66.7%	2	4.4%	8	17.8%			1	2.2%
	상점에서 물건팔기	16	51.6%	1	3.2%	3	9.7%			1	3.2%
	신문배달	36	63.2%	3	5.3%	5	8.8%				
	주유소	14	48.3%	6	20.7%	1	3.4%				
	건설현장 일	12	34.3%	2	5.7%			7	20.0%	1	2.9%
	음식점에서 서빙	64	48.5%	15	11.4%	30	22.7%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26	61.9%	4	9.5%	5	11.9%				
	기타	66	34.7%	15	7.9%	12	6.3%	2	1.1%	3	1.6%
계		515	49.6%	113	10.9%	152	14.6%	11	1.1%	11	1.1%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주유소는 '벼룩시장, 교차로'의 이용이, 음식점 서빙과 전단지 돌리기는 '상점이나 길가에 붙은 광고전단' 이용이, 건설현장일, 상점에서 물건팔기, 주유소는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가 각각 다른 구직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아르바이트 구직 방법(2)

		아르바이트 구직방법(2)						계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로		교사나 학교의 소개로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	남자	88	13.9%	7	1.2%	51	8.5%	59	100.0%
	여자	49	11.2%	2	.5%	44	10.0%	49	100.0%
교급별 ^{***}	중학교	47	11.0%	3	.7%	49	11.4%	49	100.0%
	인문고	49	14.7%	3	.9%	26	7.8%	33	100.0%
	실업고	36	13.0%	3	1.1%	20	7.2%	26	100.0%
아르바이트 종류 ^{***}	천단지 놀리기	25	56%	3	.7%	30	6.7%	40	100.0%
	페스트푸드점	1	2.2%			3	6.7%	5	100.0%
	상점에서 불전팔기	8	25.8%			2	6.5%	31	100.0%
	선문매달	6	10.5%			7	12.3%	57	100.0%
	주유소	7	24.1%	1	3.4%			29	100.0%
	건설현장 일	10	28.6%	1	2.9%	2	5.7%	35	100.0%
	음식점에서 서빙	17	12.9%			6	45%	132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4	9.5%			3	7.1%	22	100.0%
	기타	48	25.3%	3	1.6%	41	21.6%	190	100.0%
계		132	12.7%	9	.9%	95	9.2%	1038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4.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1) 학업성적의 변화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 학업성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변화없다'가 8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약간 떨어졌다'가 7.5%, '약간 올라갔다'가 5.4%, '많이 떨어졌다'가 4.2%, '많이 올라갔다'가 1.6%이다.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가 7.0%인 반면 '떨어졌다'가 11.7%로서

성적이 떨어진 학생이 올라간 학생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30.2%)과 패스트푸드점(28.9%) 업종에서 성적이 떨어진 학생의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0> 아르바이트 이후 학업성적의 변화

		아르바이트 이후 학업성적의 변화										계 빈도 퍼센트	
		많이 올라갔다		약간 올라갔다		변화없다		약간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3	22%	32	54%	473	79.4%	46	7.7%	32	54%	536	100.0%
	여자	3	.7%	23	53%	363	84.2%	31	7.2%	11	26%	431	100.0%
교급별 *	중학교	8	19%	22	53%	350	83.5%	25	6.0%	14	33%	419	100.0%
	일문고			15	45%	281	83.9%	24	7.2%	15	45%	335	100.0%
	실업고	8	29%	18	66%	205	75.1%	28	10.3%	14	51%	273	100.0%
아르바이트 종류 ***	전단지 돌리기	8	18%	18	40%	386	85.4%	28	6.3%	7	16%	447	100.0%
	패스트푸드점	2	4%	2	44%	28	62.2%	10	22.2%	3	6.7%	45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1	32%	25	80.6%	4	12.9%	1	3.2%	31	100.0%
	신문배달			4	73%	40	72.7%	8	14.5%	3	5.3%	55	100.0%
	주유소			1	34%	25	88.2%			3	10.3%	29	100.0%
	건설현장 일			3	88%	29	85.3%	2	5.9%			34	100.0%
	음식점에서 서빙	1	8%	6	46%	106	80.2%	12	9.2%	7	5.3%	131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2	47%	1	23%	27	62.8%	4	9.3%	9	20.9%	43	100.0%
	기타	3	16%	17	93%	144	78.7%	9	4.9%	10	55%	183	100.0%
	계	16	16%	55	54%	836	81.4%	77	7.5%	43	42%	1027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2) 친구관계의 변화

아르바이트 경험이후, 친구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변화없다'가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약간 늘어났다'가 16.8%, '많이 늘어났다'가 6.5%, '약간 줄어들었다'가 2.6%, '많이 줄어들었

다'가 0.6%이다.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가 23.3%인 반면 '줄어들었다'가 3.2%로서 친구관계가 늘어난 학생이 줄어든 학생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장이라는 더 폭넓은 사회관계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그 속에서 새롭게 사귀게 되는 친구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그리고 중학생이나 인문고생보다 실업고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후, 친구관계가 늘어났다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후, 친구관계가 늘어났다는 응답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아르바이트 이후 친구관계의 변화

		아르바이트 이후 친구관계의 변화										계	
		많이 늘어났다		의간 늘어났다		변화없다		의간 줄어들었다		많이 줄어들었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	남자	41	7.4%	125	21.0%	405	68.1%	15	2.5%	6	1.0%	595	100.0%
	여자	23	5.3%	47	10.9%	349	81.0%	12	2.8%			431	100.0%
교급별 ***	중학교	34	8.1%	55	13.1%	321	76.0%	6	1.4%	3	.7%	419	100.0%
	인문고	17	5.1%	60	17.9%	233	75.5%	4	1.2%	1	.3%	335	100.0%
	실업고	16	5.9%	57	21.0%	180	66.2%	17	6.3%	2	.7%	272	100.0%
아르바이 트 종류 ***	천단지돌리기	25	5.6%	58	13.0%	358	80.4%	2	.4%	2	.4%	445	100.0%
	패스트푸드점	6	13.0%	19	41.3%	18	39.1%	3	6.5%			46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2	6.5%	6	19.4%	22	71.0%	1	3.2%			31	100.0%
	신문매달	2	3.6%	10	18.2%	43	78.2%					55	100.0%
	주유소	2	6.9%	5	17.2%	17	58.6%	5	17.2%			29	100.0%
	건설현장 일			5	14.7%	29	85.3%					34	100.0%
	음식점 서빙	10	7.6%	21	16.0%	94	71.8%	5	3.8%	1	.8%	131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배달	4	9.3%	8	18.6%	23	53.5%	6	14.0%	2	4.7%	43	100.0%
	기타	16	8.7%	32	17.5%	129	70.5%	5	2.7%	1	.5%	183	100.0%
계		67	6.5%	172	16.8%	754	73.5%	27	2.6%	6	.6%	1025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3) 가족관계의 변화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 가족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서 ‘변화없다’가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모님이 조금 싫어하신다’가 13.5%, ‘부모님이 조금 좋아하신다’가 10.8%, ‘부모님이 아주 좋아하신다’가 4.3%, ‘부모님이 아주 싫어하신다’가 3.5%이다. 전반적으로 ‘부모님이 좋아하신다’가 15.1%인 반면 ‘부모님이 싫어하신다’가 17.0%로서 부모님이 싫어하신다는 비율이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2> 아르바이트 이후 가족관계의 변화

		아르바이트 이후 가족관계의 변화										계 빈도 퍼센트	
		부모님이 아주 좋아하신다		부모님이 조금 좋아하신다		변화없다		부모님이 조금 싫어하신다		부모님이 아주 싫어하신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30	50%	67	11.3%	401	67.4%	81	13.6%	16	2.7%	595	100.0%
	여자	14	33%	44	10.2%	235	68.6%	57	13.3%	20	4.7%	430	100.0%
교급별 **	중학교	26	6.2%	43	10.3%	291	69.5%	42	10.0%	17	4.1%	419	100.0%
	인문고	5	1.5%	29	8.7%	235	70.8%	53	15.9%	11	3.3%	333	100.0%
	실업고	13	4.8%	39	14.3%	170	62.3%	43	15.8%	8	2.9%	273	100.0%
아르바이 트 종류 *	전단지돌리기	22	4.9%	33	7.4%	325	72.9%	49	11.0%	17	3.8%	446	100.0%
	페스트푸드점			7	15.2%	27	58.7%	10	21.7%	2	4.3%	46	100.0%
	상점에서 물건 팔기	1	3.2%	2	6.5%	22	71.0%	5	16.1%	1	3.2%	31	100.0%
	산문배달			9	16.4%	37	67.3%	8	14.5%	1	1.8%	55	100.0%
	주유소	4	13.8%	3	10.3%	18	62.1%	3	10.3%	1	3.4%	29	100.0%
	건설현장 일	1	2.9%	5	14.7%	25	73.5%	3	8.8%			34	100.0%
	음식점 서빙	2	1.5%	19	14.5%	83	63.4%	21	16.0%	6	4.6%	131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2	4.7%	3	7.0%	23	53.5%	11	25.6%	4	9.3%	43	100.0%
	기타	12	6.6%	24	13.1%	116	63.4%	27	14.8%	4	2.2%	183	100.0%
계		44	4.3%	111	10.8%	666	67.9%	138	13.5%	35	3.5%	1025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05, ** = p <.01, *** = p <.001

중학생이나 인문고생보다 실업고생에게서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싫어하신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업종은 음식점 오토바이배달(34.9%), 음식점 서빙(20.6%), 상점에서 물건팔기(16.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는 응답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업종은 주유소(24.1%), 건설현장일(17.6%), 음식점 서빙(16%)이다.

4) 소비수준의 변화

<표 IV-23> 아르바이트 이후 소비수준의 변화

		아르바이트 이후 소비수준의 변화										계 빈도 퍼센트			
		많이 늘어났다		조금 늘어났다		변화없다		조금 줄어들었다		많이 줄어들었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42	7.0%	236	34.5%	304	50.9%	36	6.0%	9	1.5%	57	100.0%		
	여자	15	3.5%	120	27.9%	200	60.3%	28	6.5%	7	1.6%	43	100.0%		
교급별	중학교	24	5.7%	125	29.8%	22	57.8%	30	48%	8	1.9%	49	100.0%		
	인문고	16	4.8%	107	31.9%	187	55.8%	20	6.0%	5	1.5%	35	100.0%		
	실업고	17	6.2%	91	34.4%	135	49.5%	24	8.8%	3	1.1%	23	100.0%		
이르바이 트 종류 ***	전단지돌리기	17	3.8%	129	29.0%	22	61.1%	21	47%	6	1.3%	45	100.0%		
	파스토푸드점	4	8.7%	18	39.1%	19	41.9%	4	87%	1	22%	46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3	9.7%	10	32.3%	17	54.8%	1	3.2%			31	100.0%		
	신문배달			24	43.6%	30	54.5%	1	1.8%			55	100.0%		
	주유소	3	10.3%	12	41.4%	10	34.5%	4	13.8%			29	100.0%		
	건설현장 일	2	5.9%	13	38.2%	19	55.9%					34	100.0%		
	음식점에서 서빙	6	4.6%	29	37.4%	53	44.3%	17	13.0%	1	.8%	131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배달	5	11.6%	15	34.9%	15	34.9%	6	14.0%	2	4.7%	43	100.0%		
	기타	17	9.2%	46	25.0%	109	59.2%	7	3.8%	5	2.7%	184	100.0%		
	계	57	5.6%	326	31.7%	534	54.9%	64	6.2%	16	1.6%	1027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 소비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변화없다'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조금 늘어났다'가 31.7%, '조금 줄어들었다'가 6.2%, '많이 늘어났다'가 5.6%, '많이 줄어들었다'가 1.6%이다.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가 37.3%인 반면 '줄어들었다'가 7.8%로서 소비가 늘어났다는 응답이 줄어들었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소비가 늘어났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으며, 업종별로도 주유소(51.7%), 패스트푸드점(47.8%), 음식점 오토바이배달(46.5%)의 순으로 소비가 늘어났다는 응답의 비율이 나타났다.

5)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의 변화

<표 IV-24> 아르바이트 이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의 변화

		아르바이트 이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의 변화								계 빈도 퍼센트	
		많이 늘어났다		조금 늘어났다		변화없다		조금 줄어들었다		많이 줄어들었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59	99%	144	24.2%	380	63.8%	9	1.5%	4	.7%
	여자	45	10.5%	83	19.3%	29	69.7%	1	.2%	1	.2%
교급별 **	중학교	37	8.9%	74	17.7%	300	71.8%	5	1.2%	2	.5%
	인문고	29	8.7%	78	23.4%	24	67.1%	1	.3%	2	.6%
	설립고	38	13.9%	75	27.5%	155	56.8%	4	1.5%	1	.4%
아르바이 트종류 ***	전단지돌리기	37	8.3%	72	16.2%	330	74.3%	4	.9%	1	.2%
	패스트푸드점	5	10.9%	16	34.8%	25	54.3%				46
	상점에서 물건팔기	2	6.5%	9	29.0%	20	64.5%				31
	신문매달	4	7.3%	9	16.4%	41	74.5%	1	1.8%		55
	주유소	5	17.2%	6	20.7%	14	48.3%	2	6.9%	2	6.9%
	건설현장 일	4	11.8%	13	38.2%	17	50.0%				34
	음식점서빙	15	11.5%	34	26.2%	80	61.5%	1	.8%		13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배달	6	14.0%	14	32.6%	23	53.5%				43
	기타	24	13.0%	45	24.5%	111	60.3%	2	1.1%	2	1.1%
	계	104	10.1%	227	22.1%	679	66.2%	10	1.0%	5	.5%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아르바이트 경험이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변화없다'가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조금 늘어났다'가 22.1%, '많이 늘어났다'가 10.1%, '조금 줄어들었다'가 1.0%, '많이 줄어들었다'가 0.5%이다. 전반적으로 '관심이 늘어났다'가 32.2%인 반면 '관심이 줄어들었다'가 1.5%로서 변화가 없다는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르바이트 경험이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실업고생이 중학생이나 인문고생보다 훨씬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현장일(50%), 음식점 오토바이배달(46.6%), 페스트푸드점(45.7%)에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응답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6) 아르바이트 만족도

아르바이트에 대한 만족도에서 '약간 만족한다'가 5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약간 불만이다'가 29.6%, '아주 만족한다'가 9.6%, '아주 불만이다'가 6.9%로 나타나 '만족'이 63.5%, '불만족'이 36.5%로서 대체로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하는 학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대체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업종은 주유소, 음식점 오토바이배달, 상점에서 물건팔기, 건설현장일, 음식점 서빙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만족도가 낮은 업종은 전단지돌리기, 신문배달로 나타났다.

<표 IV-25> 아르바이트 만족도

		아르바이트 만족도								계	
		아주만족한다		약간만족한다		약간불만이다		아주불만이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59	99%	331	55.7%	167	28.1%	37	6.2%	34	100.0%
	여자	39	92%	218	51.4%	134	31.6%	33	7.8%	44	100.0%
교급별	중학교	35	85%	218	52.7%	122	29.5%	39	9.4%	414	100.0%
	인문고	35	106%	182	55.2%	99	30.0%	14	4.2%	330	100.0%
	실업고	23	10.2%	149	54.4%	80	29.2%	17	6.2%	274	100.0%
아르바이트 종류***	전단지 놀리기	24	54%	217	49.0%	155	35.0%	47	10.6%	443	100.0%
	페스트푸드점	6	130%	26	56.5%	14	30.4%			46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4	13.8%	18	62.1%	5	17.2%	2	6.9%	29	100.0%
	신문배달	3	55%	28	50.9%	23	41.8%	1	1.8%	55	100.0%
	주유소	6	20.7%	18	62.1%	4	13.8%	1	3.4%	29	100.0%
	건설현장 일	5	14.7%	20	53.8%	6	17.6%	3	8.8%	34	100.0%
	음식점에서 서빙	13	9.8%	83	62.9%	31	23.5%	5	3.8%	132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5	11.9%	28	66.7%	8	19.0%	1	2.4%	42	100.0%
	기타	28	15.4%	99	54.4%	45	24.7%	10	5.5%	182	100.0%
계		98	96%	549	53.9%	301	29.6%	70	6.9%	1018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7) 아르바이트가 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

아르바이트가 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를 살펴보면 ‘약간 도움이 되었다’가 53.1%로 가장 많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가 34.4%,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가 6.9%,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가 5.6%로 나타나,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이 60.0%로서 ‘도움이 되지 못했다’(40%)는 학생보다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특히 실업고생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응답의 비율보다 높은 업종은 주유소, 음식점 오토바이 배달, 페스트

푸드점, 건설현장일이고,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천단지 돌리기, 신문배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아르바이트가 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

		아르바이트가 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								계	
성별	주제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47	7.9%	316	53.3%	198	33.4%	32	5.4%	533	100.0%
	여자	23	5.4%	225	52.8%	153	35.9%	5	5.9%	426	100.0%
교급별*	중학교	26	6.3%	198	47.7%	157	37.8%	34	8.2%	415	100.0%
	인문고	21	6.3%	189	57.1%	108	32.6%	13	3.9%	331	100.0%
	실업고	23	8.4%	154	55.4%	86	31.5%	10	3.7%	273	100.0%
아르바이트 종류	천단지 돌리기	17	3.8%	208	45.6%	187	42.0%	38	8.5%	445	100.0%
	페스트푸드점	6	13.3%	29	61.4%	10	22.2%			45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3	10.3%	17	53.6%	8	27.6%	1	3.4%	29	100.0%
	신문배달	3	5.5%	28	50.9%	23	41.8%	1	1.8%	55	100.0%
	주유소	4	13.8%	20	60.0%	4	13.8%	1	3.4%	29	100.0%
	건설현장 일	2	5.9%	23	67.6%	6	17.6%	3	8.8%	34	100.0%
	음식점 서빙	12	9.1%	80	60.6%	36	27.3%	4	3.0%	132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8	19.3%	24	58.5%	9	22.0%			41	100.0%
	기타	14	7.7%	104	57.1%	55	32.2%	9	4.9%	182	100.0%
계		70	6.9%	511	53.1%	351	34.4%	57	5.6%	1019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5.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1)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낀 문제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낀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 중 38.9%가 '어른들

의 아르바이트를 안좋게 보는 시각'이라고 답했고, '임금수준'이 30.7%, '위험한 주변환경'이 9.5%, '구타나 폭행'이 1.2%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41.0%)이 아르바이트를 안좋게 보는 어른들의 시각을 문제점으로 더 많이 지적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페스트푸드점은 '낮은 임금수준'을, 상점에서 물건팔기와 전단지 돌리기는 '어른들의 안좋게 보는 시각'을, 주유소는 '구타나 폭행'을, 건설현장일이나 음식점 오토바이배달은 '위험한 주변환경'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비율이 각각 다른 업종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7> 아르바이트하면서 느낀 문제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낀 문제점									계		
		낮은 임금수준		아르바이트를 안 좋게 보는 시각		구타나 폭행		위험한 주변환경		기타		빈도	파센트
		빈도	파센트	빈도	파센트	빈도	파센트	빈도	파센트	빈도	파센트		
성별*	남자	165	23.8%	215	37.3%	9	1.6%	63	11.8%	118	20.5%	516	100.0%
	여자	134	33.3%	165	41.0%	3	.7%	25	6.2%	75	18.7%	402	100.0%
교급별	중학교	117	29.3%	173	43.3%	6	1.5%	34	8.5%	70	17.5%	400	100.0%
	인문고	90	29.0%	111	35.8%	2	.6%	39	12.6%	68	21.9%	310	100.0%
	실업고	93	34.7%	96	35.8%	4	1.5%	20	7.3%	55	20.5%	268	100.0%
아르바이트 종류***	전단지돌리기	142	33.1%	189	44.1%	3	.7%	35	8.2%	60	14.0%	429	100.0%
	페스트푸드점	16	36.4%	18	40.9%	1	2.3%	2	4.5%	7	15.9%	44	100.0%
	상점에서물건팔기	5	16.7%	16	53.3%			4	13.3%	5	16.7%	30	100.0%
	신문배달	16	30.2%	15	28.3%	1	1.9%	10	18.9%	11	20.8%	53	100.0%
	주유소	6	20.7%	12	41.4%	3	10.9%	4	13.8%	4	13.8%	29	100.0%
	건설현장 일	6	20.7%	11	37.9%	1	3.4%	6	20.7%	5	17.2%	29	100.0%
	음식점에서 서빙	42	33.6%	51	40.8%	1	.8%	4	3.2%	27	21.6%	125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12	29.3%	15	36.6%			8	19.5%	6	14.6%	41	100.0%
	기타	49	27.7%	44	24.9%	2	1.1%	17	9.6%	65	35.7%	177	100.0%
계		300	30.7%	380	38.9%	12	1.2%	98	9.5%	198	19.7%	978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2) 아르바이트한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공개여부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부모님께서 알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에서 ‘알고 계신다’가 75.6%, ‘모르고 계신다’가 23.5%로 나타나 상당수의 중·고등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반면, 약 24%의 중고생들은 부모님 모르게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8> 아르바이트한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공개여부

		아르바이트 한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공개여부						계	
		알고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부모님께서 인계신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466	78.3%	125	21.0%	4	.7%	591	100.0%
	여자	307	71.9%	115	26.9%	5	1.2%	427	100.0%
교급별***	중학교	283	68.0%	127	30.5%	6	1.4%	416	100.0%
	인문고	255	76.8%	76	22.9%	1	.3%	332	100.0%
	실업고	294	85.7%	37	13.6%	2	.7%	273	100.0%
지역*	대도시	391	75.2%	127	24.4%	2	.4%	520	100.0%
	중소도시	272	72.7%	96	25.7%	6	1.6%	374	100.0%
	군지역	109	85.8%	17	13.4%	1	.8%	127	100.0%
아르바이트 종류***	전단지 둘리기	239	64.9%	153	34.4%	3	.7%	455	100.0%
	패스트푸드점	43	98.5%	3	6.5%			46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24	82.8%	4	13.8%	1	3.4%	29	100.0%
	신문배달	46	83.6%	9	16.4%			55	100.0%
	주유소	23	79.3%	4	13.8%	2	6.9%	29	100.0%
	건설현장 일	26	76.5%	8	23.5%			34	100.0%
	음식점에서 서빙	113	85.6%	16	12.1%	3	2.3%	132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32	76.2%	10	23.8%			42	100.0%
	기타	152	83.5%	30	16.5%			182	100.0%
	계	722	75.6%	240	23.5%	9	.9%	1021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부모님 모르게 아르바이트하는 비율이 높으며, 고등학생중에서도 인문고생이 실업고생보다 부모님 모르게 아르바이

트하는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는 군지역에서 부모님께 알리고 공개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비율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개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서빙, 신문 배달, 상점에서 물건팔기이며, 비공개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비율이 다른 업종에서 보다 높은 업종은 전단지 돌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단지 돌리기는 다른 업종에 비해 짧은 시간내에 일회적으로 끝나는 업무의 성격상 부모님 모르게 하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구타나 폭행경험

<표 IV-29>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구타나 폭행경험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 구타나 폭행경험 유무				계	
		있다		없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70	12.8%	49	87.2%	59	100.0%
	여자	16	43%	34	56.7%	30	100.0%
교급열**	중학교	53	13.8%	330	86.2%	383	100.0%
	인문고	15	51%	280	49%	295	100.0%
	실업고	18	7.5%	223	92.5%	241	100.0%
지역**	대도시	56	12.1%	406	87.9%	462	100.0%
	중소도시	25	7.4%	314	92.6%	339	100.0%
	군지역	5	4.2%	113	95.8%	118	100.0%
아르바이트 종류*	전단지 돌리기	42	10.4%	360	89.6%	402	100.0%
	패스트푸드점	5	11.6%	38	88.4%	43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3	10.3%	26	89.7%	29	100.0%
	신문배달	6	12.2%	43	87.8%	49	100.0%
	주유소	8	28.6%	20	71.4%	28	100.0%
	건설현장 일	2	6.3%	30	93.8%	32	100.0%
	음식점에서 서빙	5	5.0%	96	95.0%	101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4	9.5%	37	90.2%	41	100.0%
	기타	10	5.8%	161	94.2%	171	100.0%
계		85	9.2%	833	90.6%	919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직장에서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9.4%나 되어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중·고등학생 열 명중의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의 비율이 높고, 중학생의 경험률이 고등학생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가 중소도시의 약 2배, 군지역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주유소가 전체경험률(9.4%)의 약 3배나 되는 28.6%를 기록하여 주유소에 종사하는 학생들이 구타나 폭행을 당하는 비율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4) 구타나 폭행을 가한 자

<표 IV-30> 구타나 폭행을 가한 자

		구타나 폭행을 가한 자												제 비 분 과 센 트			
		시장		정식직원		손님		같이일하는친구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6	24.0%	5	20.0%	2	8.0%	3	12.0%	1	4.0%	8	32.0%	25	100.0%		
	여자			2	40.0%			1	20.0%			2	40.0%	5	100.0%		
교급별	중학교	3	13.6%	6	27.3%	1	45%	3	13.6%	1	45%	8	36.4%	22	100.0%		
	인문고					1	50.0%	1	50.0%					2	100.0%		
	설립고	3	30.0%	1	16.7%							2	33.3%	6	100.0%		
이로바이 드 종류 **	전단지돌리기	3	21.1%	1	7.7%			2	15.4%			7	53.8%	13	100.0%		
	페스트푸드점	1	31.3%			1	33.3%	1	33.3%					3	100.0%		
	상점(마트)									1	100.0%			1	100.0%		
	신문배달			1	50.0%							1	50.0%	2	100.0%		
	주유소			3	75.0%							1	25.0%	4	100.0%		
	건설현장일					1	100.0%							1	100.0%		
	음식점서빙	1	100%											1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대							1	100.0%					1	100.0%		
	기타	1	5.0%	2	50.0%							1	25.0%	4	100.0%		
계		6	20.0%	7	23.3%	2	6.7%	4	13.3%	1	3.3%	10	33.3%	30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구타나 폭행을 가한 가해자를 살펴보면, 정식직원이 2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장이 20.0%이며, 같이 일하는 선배가 13.3%, 손님이 6.7%, 같이 일하는 친구가 3.3%로 각각 나타나 대부분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식직원과 사장에 의해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구타나 폭행이 가해짐을 알 수 있다.

5) 구타나 폭행에 대한 대처

<표 IV-31> 구타나 폭행에 대한 대처

		구타나 폭행에 대한 대처										계 빈도 퍼센트	
		이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만 행의하였다		기족들에게 알려주었다		경찰이나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였다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1	16.4%	32	47.8%	5	7.5%	13	19.4%	6	9.0%	67	100.0%
	여자	2	12.5%	6	37.5%	1	6.3%	5	31.3%	2	12.5%	16	100.0%
교급별	중학교	8	15.7%	20	39.2%	5	9.8%	13	25.5%	5	9.8%	51	100.0%
	일문고	2	13.3%	11	73.3%			1	6.7%	1	6.7%	15	100.0%
	실업고	3	17.6%	7	41.2%	1	5.9%	4	23.5%	2	11.8%	17	100.0%
아르바이트 종류	천단지돌리기	10	24.4%	17	41.5%	3	7.3%	8	19.5%	3	7.3%	41	100.0%
	페스트푸드점	1	20.0%	4	80.0%							5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1	33.3%	1	33.3%	1	33.3%			3	100.0%
	신문배달			4	66.7%	1	16.7%			1	16.7%	6	100.0%
	주유소	1	14.3%	4	57.1%			1	14.3%	1	14.3%	7	100.0%
	건설현장 일			1	50.0%					1	50.0%	2	100.0%
	음식점 서빙			2	40.0%	1	20.0%	2	40.0%			5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4	100.0%			4	100.0%
	기타	1	11.1%	4	44.4%			2	22.2%	2	22.2%	9	100.0%
계		13	15.7%	38	45.8%	6	7.2%	18	21.7%	8	9.6%	83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05, ** = p <.01, *** = p <.001

구타나 폭행을 당했을 경우 대처했던 방법을 살펴보면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자의 45.8%가 개인적으로만 항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이나 노동사무소에 신고한 경우는 21.7%뿐이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경우도 15.7%나 차지하였다.

6)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5.9%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이러한 경험이 더 많으며, 업종별로도 건설현장일(22.9%), 음식점 오토바이배달(20.5%), 전단지 돌리기(18.0%)와 같은 업종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				계	
		있다		없다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99	16.5%	500	83.5%	599	100.0%
	여자	65	15.1%	366	84.9%	431	100.0%
교급별	중학교	79	18.9%	340	81.1%	419	100.0%
	인문고	42	12.5%	293	87.5%	335	100.0%
	실업고	43	15.6%	233	84.4%	276	100.0%
아르바이트 종류	전단지 돌리기	89	18.0%	365	82.0%	454	100.0%
	페스트푸드점	7	15.2%	39	84.8%	46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4	12.9%	27	87.1%	31	100.0%
	신문배달	7	12.7%	48	87.3%	55	100.0%
	주유소	4	13.8%	25	86.2%	29	100.0%
	건설현장 일	8	22.9%	27	77.1%	35	100.0%
	음식점에서 서빙	23	17.3%	110	82.7%	133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9	20.5%	35	79.5%	44	100.0%
	기타	17	9.2%	167	90.8%	184	100.0%
계		164	15.9%	866	84.1%	1030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7)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다친 경험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다친 경험이 있는 학생이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친 경험이 많으며, 중학생보다는 인문고생이 다친 경험이 많고, 인문고생보다는 실업고생이 다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페스트푸드점(39.1%)에서 다친 경험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이 다친 업종이 음식점 오토바이배달(34.1%)이며, 주유소(20.7%), 건설현장일(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3>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다친 경험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다친 경험				계	
		있다		없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97	16.2%	503	83.8%	600	100.0%
	여자	48	11.1%	383	88.9%	431	100.0%
교급별**	중학교	40	9.5%	380	90.5%	420	100.0%
	인문고	46	13.7%	289	86.3%	335	100.0%
	실업고	59	21.4%	217	78.6%	276	100.0%
아르바이트 종류***	전단지 돌리기	31	7.0%	415	93.0%	446	100.0%
	페스트푸드점	18	39.1%	28	60.9%	46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5	16.1%	26	83.9%	31	100.0%
	신문배달	9	16.4%	46	83.6%	55	100.0%
	주유소	6	20.7%	23	79.3%	29	100.0%
	건설현장 일	7	20.0%	28	80.0%	35	100.0%
	음식점에서 서빙	23	17.3%	110	82.7%	133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15	34.1%	29	65.9%	44	100.0%
	기타	28	15.2%	156	84.8%	184	100.0%
계		145	14.1%	886	85.9%	1031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8)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성적희롱 경험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성적으로 회통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2%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주유소(10.3%)나 건설현장일(8.8%)에서 성적인 회통을 당한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왔다.

<표 IV-34>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성적희롱 경험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성적희롱 경험				계	
		있다		없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7	2.8%	583	97.2%	600	100.0%
	여자	6	1.4%	425	98.6%	431	100.0%
교급별	중학교	11	2.6%	410	97.4%	421	100.0%
	임문고	5	1.5%	330	98.5%	335	100.0%
	실업고	7	2.5%	268	97.5%	275	100.0%
아르바이트 종류*	친단지 돌리기	8	1.8%	438	98.2%	446	100.0%
	페스트푸드점	1	2.2%	45	97.8%	46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31	100.0%	31	100.0%
	신문배달	2	3.6%	53	96.4%	55	100.0%
	주유소	3	10.3%	26	89.7%	29	100.0%
	건설현장 일	3	8.8%	31	91.2%	34	100.0%
	음식점에서 서빙	1	.8%	132	99.2%	133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매달	1	2.3%	43	97.7%	44	100.0%
	기타	3	1.6%	182	98.4%	185	100.0%
계		23	2.2%	1008	97.8%	1031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9)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이 불과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이 낮으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작성한 비율이 낮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인문고생이 실업고생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이 낮다.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점(43.5%)과 주유소(20.7%)가 비교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이 높으며, 나머지 거의 모든 업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이 15% 이하로 나타났다.

<표 IV-35>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계	
		작성했다		작성하지 않았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49	8.2%	551	91.8%	600	100.0%
	여자	21	4.9%	410	95.1%	431	100.0%
교급별**	중학교	17	4.0%	403	96.0%	420	100.0%
	인문고	24	7.2%	311	92.8%	335	100.0%
	실업고	29	10.5%	247	89.5%	276	100.0%
아르바이트 종류***	천단지 돌리기	17	3.8%	429	96.2%	446	100.0%
	패스트푸드점	20	43.5%	46	56.5%	46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2	6.5%	29	93.5%	31	100.0%
	신문배달	3	5.5%	52	94.5%	55	100.0%
	주유소	6	20.7%	23	79.3%	29	100.0%
	건설현장 일	2	5.7%	33	94.3%	35	100.0%
	음식점에서 서빙	7	5.3%	136	94.7%	133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6	13.6%	38	86.4%	44	100.0%
	기타	7	3.8%	177	96.2%	184	100.0%
계		70	6.8%	931	93.2%	1001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10) 부모의 동의서 제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서'를 회사나 고용주에게 제출하였다는 응답이 17.2%에 불과한 가운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제출한 비율이 낮고, 인문고생이 실업고생보다 제출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점(54.3%), 주유소(41.4%), 상점에서 물건팔기

(32.3%)에서 비교적 타업종에 비해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단지 돌리기는 단지 9.6%에 불과하였다.

<표 IV-36> 부모의 동의서 제출 여부

		부모의 동의서 제출여부				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08	18.1%	490	81.9%	598	100.0%
	여자	69	16.0%	363	84.0%	432	100.0%
교급별**	중학교	55	13.0%	357	87.0%	422	100.0%
	인문고	57	17.1%	276	82.9%	333	100.0%
	실업고	65	23.6%	210	76.4%	275	100.0%
아르바이트 종류***	전단지 돌리기	43	9.6%	404	90.4%	447	100.0%
	캐스트푸드점	25	54.3%	21	45.7%	46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10	32.3%	21	67.7%	31	100.0%
	신문매달	13	23.6%	42	76.4%	55	100.0%
	주유소	12	41.4%	17	58.6%	29	100.0%
	건설현장 일	7	20.6%	27	79.4%	34	100.0%
	음식점에서 서빙	22	16.5%	111	83.5%	133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9	20.5%	35	79.5%	44	100.0%
	기타	32	17.4%	152	82.6%	184	100.0%
	계	177	17.2%	853	82.8%	1030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6.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방안

1) 아르바이트가 적성에 맞는지 여부

아르바이트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별로 맞지 않는 편이다'가 47.5%, '약간 맞는 편이다'가 31.6%, '전혀 맞지 않는 편이다'가

15.1%, ‘아주 잘 맞는다’가 5.9%로 각각 나타나 ‘적성에 맞는다’는 응답이 37.5%,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응답이 62.6%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중 상당수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급별로는 실업고생이 중학생이나 인문고생보다 적성에 맞는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성에 맞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업종은 음식점 오토바이배달, 페스트푸드점, 상점에서 물건팔기, 음식점 서빙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업종은 신문배달, 전단지 돌리기, 건설현장일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7> 아르바이트가 적성에 맞는지 여부

		아르바이트가 적성에 맞는 여부								계	
		아주 잘 맞는다		약간 맞는 편이다		별로 맞지 않는 편이다		전혀 맞지 않는 편이다		반도	퍼센트
		반도	퍼센트	반도	퍼센트	반도	퍼센트	반도	퍼센트		
성별	남자	37	6.2%	184	31.0%	287	48.3%	85	14.5%	594	100.0%
	여자	23	5.4%	138	32.4%	197	46.2%	68	16.0%	426	100.0%
교급별 **	중학교	25	6.0%	110	26.6%	212	51.2%	67	16.2%	414	100.0%
	인문고	18	5.4%	104	31.3%	151	45.5%	59	17.8%	332	100.0%
	실업고	17	6.2%	108	39.4%	121	44.2%	23	10.2%	274	100.0%
아르바이트 종류	전단지 돌리기	13	2.9%	103	23.3%	229	51.7%	93	22.1%	443	100.0%
	페스트푸드점	3	6.5%	21	52.2%	14	30.4%	5	10.9%	46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16	55.2%	10	34.5%	3	10.3%	29	100.0%
	신문배달	3	5.5%	9	16.4%	37	67.3%	6	10.9%	55	100.0%
	주유소	6	20.7%	7	24.1%	14	48.3%	2	6.9%	29	100.0%
	건설현장 일	2	5.8%	9	26.5%	15	44.1%	8	23.5%	34	100.0%
	음식점 서빙	9	6.8%	59	44.4%	56	42.1%	9	6.8%	133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5	11.9%	21	50.0%	15	35.7%	1	2.4%	42	100.0%
	기타	18	9.9%	69	37.9%	77	42.3%	18	9.9%	182	100.0%
계		60	5.9%	322	31.6%	481	47.5%	154	15.1%	1020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2) 친구들에게 아르바이트를 권할 의사여부

<표 IV-38> 친구들에게 아르바이트를 권할 의사여부

		친구들에게 그 아르바이트를 권할 의사여부								계	
		꼭 권하고 싶다		권하고 싶은 편이다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35	5.9%	174	29.3%	320	53.9%	65	10.9%	594	100.0%
	여자	10	2.4%	133	31.4%	228	53.8%	53	12.5%	424	100.0%
교급별**	중학교	24	5.8%	103	24.8%	227	51.7%	61	14.7%	415	100.0%
	일문고	10	3.0%	113	34.1%	180	54.4%	28	8.5%	331	100.0%
	실업고	11	4.0%	91	33.5%	141	51.8%	29	10.7%	272	100.0%
아르바이트 종류***	전단지돌리기	15	3.4%	101	22.7%	264	59.5%	64	14.4%	444	100.0%
	페스트푸드점	4	8.7%	22	47.8%	18	39.1%	2	4.3%	46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2	6.9%	15	51.7%	10	34.5%	2	6.9%	29	100.0%
	신문배달	2	3.6%	10	18.2%	38	69.1%	5	9.1%	55	100.0%
	주유소	2	6.9%	6	20.7%	17	58.6%	4	13.8%	29	100.0%
	건설현장 일	4	11.8%	14	41.2%	12	35.3%	4	11.8%	34	100.0%
	음식점서빙	6	4.6%	53	40.5%	63	48.1%	9	6.9%	131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미달			13	31.0%	27	64.3%	2	4.8%	42	100.0%
	기타	10	5.5%	65	35.9%	83	45.9%	23	12.7%	181	100.0%
계		45	4.4%	307	30.2%	548	53.8%	118	11.6%	1018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주위의 친구들에게 그 아르바이트를 권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가 53.8%, ‘권하고 싶은 편이다’가 30.2%,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다’가 11.6%, ‘꼭 권하고 싶다’가 4.4%로 각각 나타나 ‘권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65.4%로서 ‘권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34.6%)의 두 배 정도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권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업종은 신문배달, 전단지 돌리기, 주유소이며, ‘권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업종은 상점에서 물건팔기, 페스트푸드점, 건설현장일의 순이다.

3) 아르바이트가 직업과 연결될 가능성

<표 IV-39> 아르바이트가 직업과 연결될 가능성

		아르바이트가 직업과 연결될 가능성								계	
		많이 연결된다		약간 연결된다		별로 연결되지 않는다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a	남자	27	45%	61	10.2%	236	42.9%	253	42.4%	507	100.0%
	여자	10	2.4%	63	15.0%	175	41.6%	173	41.1%	421	100.0%
교급별 ^{b,c,d}	중학교	20	4.9%	37	9.0%	175	42.6%	179	43.0%	411	100.0%
	인문고	6	1.8%	33	11.4%	131	39.5%	157	47.3%	332	100.0%
	실업고	11	4.0%	49	17.8%	125	45.5%	90	32.7%	275	100.0%
아르바이트 종류 ^{e,f,g}	전단지 돌리기	16	36%	27	6.1%	177	40.1%	221	50.1%	441	100.0%
	페스트푸드점			13	28.3%	21	45.7%	12	26.1%	46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2	6.9%	3	10.3%	18	62.1%	6	20.7%	29	100.0%
	신문배달	1	1.8%	5	9.1%	29	52.7%	20	36.4%	55	100.0%
	주유소	2	6.9%	4	13.8%	15	51.7%	8	27.0%	29	100.0%
	건설현장 일			5	14.3%	13	37.1%	17	48.6%	35	100.0%
	음식점에서 서빙	4	30%	21	18.0%	55	41.4%	50	37.0%	133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6	14.3%	23	54.8%	13	31.0%	42	100.0%
	기타	12	6.6%	34	18.7%	70	38.5%	66	36.3%	182	100.0%
계		37	3.6%	124	12.2%	431	42.3%	426	41.8%	1018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그 아르바이트가 앞으로 본인이 갖게될 직업과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84.1%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답해 대다수의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자신이 앞으로 갖게될 직업과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이나 인문고생보다 실업고생이 아르바이트와 직업과 연결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패스트푸드점이 직업과 연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전단지 돌리기나 신문배달은 직업과 연결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각 지점의 관리직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기회와 경로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아르바이트 지속의사

<표 IV-40> 아르바이트 지속의사

		아르바이트 지속의사				계	
		있다		없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99	50.5%	298	49.5%	592	100.0%
	여자	186	43.8%	239	56.2%	425	100.0%
교급별*	중학교	181	43.7%	238	56.3%	414	100.0%
	인문고	176	53.2%	155	46.8%	331	100.0%
	실업고	128	47.1%	144	52.9%	272	100.0%
아르바이트 종류***	전단지 둘리기	177	40.0%	266	60.0%	443	100.0%
	페스트푸드점	30	66.2%	16	34.8%	46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16	53.2%	13	44.8%	29	100.0%
	산문배달	17	31.5%	37	68.5%	54	100.0%
	주유소	14	48.3%	15	51.7%	29	100.0%
	건설현장 일	26	73.8%	7	21.2%	33	100.0%
	음식점에서 서빙	67	50.4%	66	49.6%	133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29	69.0%	13	31.0%	42	100.0%
	기타	99	54.7%	82	45.3%	181	100.0%
계		485	47.7%	532	52.3%	1017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앞으로도 그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가 47.7%, '없다'가 52.3%로 나타나 약 절반정도만 그 아르바이트를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특히 인문고생에게서 지속할 의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현장일, 음식점 오토바이배달, 페스트푸드점, 상점에서 물건팔기의 순으로 지속할 의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지속

할 의사의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은 신문배달, 천단지 돌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표 IV-41>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1)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1)															
		천단지돌리기		페스트푸드점		24시간편의점		상점에서 물건팔기		신문배달		주유소		사무보조		건설현장 일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성별 ***	남자	39	67%	71	12.2%	70	12.0%	39	51%	22	38%	35	62%	21	36%	18	31%
	여자	22	53%	13	35.0%	78	19.1%	27	66%	3	7%	15	37%	20	49%	1	2%
교급별 ***	중학교	51	12.8%	91	23.5%	59	14.8%	18	43%	10	23%	22	55%	6	13%	2	3%
	일중고	6	1.9%	72	22.2%	47	14.3%	23	71%	10	31%	14	43%	19	59%	10	31%
	상업고	4	1.3%	48	18.0%	42	15.7%	16	60%	5	19%	15	56%	16	60%	7	26%
아르바이트 종류 ***	천단지돌리기	51	11.7%	105	24.4%	68	15.0%	19	44%	16	37%	19	41%	13	30%	4	9%
	페스트푸드점	1	2.2%	21	4.7%	4	8%	2	44%			1	23%	3	67%	2	4%
	상점에서 물건팔기			4	13.8%	4	13.8%	3	103%	1	34%	2	69%	1	34%	2	69%
	신문배달	1	1.9%	4	7.5%	9	17.0%	1	19%	5	9.5%	5	9.5%	4	75%		
	주유소			3	12.0%	5	200%	1	40%			3	120%			3	120%
	건설현장 일	1	2.9%	4	11.8%	5	14.7%	3	88%			3	88%			3	88%
	음식점 서빙	1	8%	29	22.7%	23	18.0%	13	102%			5	39%	8	63%	2	16%
	음식점에서 오토바이배달			2	45%	4	95%	2	48%			4	95%	2	48%	1	24%
계	61	62%	214	21.6%	143	14.9%	57	58%	25	23%	51	51%	41	41%	19	19%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를 살펴보면 페스트푸드점이 2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4시간 편의점이 14.9%, 컴퓨터 관련 일이 11.4%, 음식점 서빙이 10.6%, 천단지 돌리기가 6.2%, 상점에서 물건팔기가 5.8%, 음식점 오토바이배달이 4.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관계없이 대체로 페스트푸드점과 24시간 편의점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남학생은 컴퓨터 관련 일이 선호도가 가장 높고, 여학생은 음식점 서빙과 상점에서 물건팔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전단지 돌리기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중학생에게 전단지 돌리기 외에 사회에 별로 자신들이 할만한 대안적인 업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경험했던 아르바이트의 업종별로 자신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를 살펴본 결과, 자신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본 비율은 페스트푸드점(46.7%)과 오토바이 배달(40.5%) 업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업종에서는 대체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IV-41>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2)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2)										계	
		이벤트 행사장		음식점에서 서빙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컴퓨터 관련된 일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k}	남자	18	31%	55	94%	45	77%	97	16.6%	61	10.5%	383	100.0%
	여자	13	32%	50	12.3%	3	7%	16	39%	17	4.2%	408	100.0%
교급별 ^{*:k}	중학교	8	20%	30	75%	18	45%	53	13.3%	29	7.3%	400	100.0%
	인문고	13	40%	35	10.8%	15	46%	34	10.5%	35	8.0%	324	100.0%
	실업고	10	37%	40	15.0%	15	56%	26	9.7%	23	8.6%	257	100.0%
아르바이트 종류 ^{*:k}	전단지 돌리기	8	18%	40	9.2%	14	32%	46	10.6%	31	7.1%	435	100.0%
	페스트푸드점	1	22%	4	89%	1	22%	2	44%	3	6.7%	45	100.0%
	상점에서 물건팔기	1	34%	3	10.3%	2	6.9%	5	17.2%	1	3.4%	29	100.0%
	신문배달	1	1.9%	6	11.3%	1	1.9%	10	18.9%	6	11.3%	53	100.0%
	주유소	2	80%	3	12.0%			3	12.0%	2	8.0%	25	100.0%
	건설현장 일	3	88%	5	14.7%	4	11.8%	1	2.9%	2	5.9%	34	100.0%
	음식점 서빙	6	47%	22	17.2%	4	31%	11	86%	4	31%	128	100.0%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3	7.1%	17	40.5%	5	11.9%	2	4.8%	42	100.0%
	기타	8	46%	13	7.5%	5	2.9%	30	17.2%	26	14.9%	174	100.0%
		31	31%	105	10.6%	48	48%	115	11.4%	78	7.9%	991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6) 우리사회에서 중고생이 건전한 아르바이트에 접할 가능성

우리사회에서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0.6%가 적다고 하였으며, 단지 10.8%만이 많다고 하였고, 18.6%는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능성이 많다는 응답이 비율이 높고, 실업고생은 중학생과 인문고생보다 가능성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나 군지역이 중소도시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우리사회에서 중고생이 건전한 아르바이트에 접할 가능성

		우리사회에서 중고생이 건전한 아르바이트 접할 가능성									계		
		아주 많다		많다		적당하다		적다		아주 적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70	38%	161	87%	374	20.3%	94	51.2%	296	16.0%	1845	100.0%
	여자	44	20%	109	65%	282	16.7%	913	54.1%	339	20.1%	1687	100.0%
교급별	중학교	56	31%	131	72%	355	20.2%	923	51.0%	335	18.5%	1810	100.0%
	인문고	22	19%	82	7.2%	160	14.1%	645	56.9%	224	19.8%	1133	100.0%
	실업고	36	61%	57	9.7%	131	22.2%	289	49.1%	76	12.9%	589	100.0%
학교 성적	상	16	16%	63	65%	148	15.2%	549	56.5%	195	20.1%	971	100.0%
	중	46	30%	126	8.2%	289	18.7%	817	52.9%	267	17.3%	1545	100.0%
	하	52	53%	78	7.9%	212	21.5%	471	47.9%	171	17.4%	984	100.0%
가정 형편	상	21	41%	34	6.7%	110	21.7%	237	46.7%	106	20.9%	538	100.0%
	중	66	26%	200	8.0%	451	18.0%	1357	54.0%	437	17.4%	2511	100.0%
	하	27	53%	35	6.9%	95	18.7%	258	50.9%	92	18.1%	507	100.0%
지역	대도시	50	31%	129	7.9%	320	19.7%	835	51.4%	290	17.9%	1624	100.0%
	중소 도시	46	35%	85	6.5%	219	16.7%	697	53.1%	265	20.2%	1312	100.0%
	군지역	18	30%	50	9.4%	117	19.6%	325	54.5%	89	13.4%	586	100.0%
계		114	32%	270	7.6%	655	18.6%	1857	52.6%	635	18.0%	3332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7)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두가지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정부가 지원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양한 직종개발'이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높은 욕구에 비해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실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인식변화가 41.7%, 권익보호가 34.9%, 취업알선이 23.3%, 임금인상이 20.2%로 나타났다.

<표 IV-43>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두가지 (1)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두가지(1)							
		취업알선		권익보호		다양한 직종개발		사회인식변화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433	23.9%	626	34.5%	938	51.7%	705	38.9%
	여자	378	22.6%	590	35.4%	965	57.8%	747	44.8%
교급별	중학교	399	22.4%	636	35.8%	1041	58.5%	683	38.7%
	인문고	216	19.3%	448	39.9%	541	48.2%	572	51.0%
	설원고	196	33.6%	132	22.6%	321	55.1%	192	32.9%
학교 성적	상	201	20.9%	402	41.7%	492	51.0%	453	47.0
	중	350	22.9%	517	33.9%	886	58.0%	656	43.0%
	하	252	26.2%	284	29.6%	508	52.9%	331	34.4%
가정 형편	상	103	20.5%	198	39.4%	260	53.5%	224	44.5%
	중	563	22.7%	872	35.2%	1369	55.3%	1059	42.8%
	하	144	28.9%	144	28.9%	263	52.8%	167	33.5%
지역	대도시	347	21.6%	583	36.3%	861	53.5%	669	41.6%
	중소 도시	310	24.0%	445	34.4%	702	54.3%	571	44.2%
	군지역	154	26.5%	188	32.3%	340	58.4%	212	36.4%
계		811	23.3%	1216	34.9%	1903	54.6%	1452	41.7%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임금인상'의 비율이 높은데 비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다양한 직종개발'의 비율이 높다.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다양한

'직종개발'의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대체로 전단지 돌리기외에 중학생이 할 만한 업종이 거의 없는 현실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인문고생은 '권익보호'와 '사회인식변화', 실업고생은 '취업알선'과 '임금인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이 상인 집단은 '권익보호'와 '사회인식변화', 가정형편이 하인 집단은 '취업알선'과 '임금인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군지역에서 '다양한 직종개발'과 '취업알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도시에서는 '권익보호'와 '임금인상', 중소도시에서는 '사회인식변화'가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IV-43>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두가지 (2)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두가지(2)				계	
		임금인상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421	23.2%	50	2.8%	1814	52.1%
	여자	283	17.0%	48	2.9%	1669	47.9%
교급별	중학교	307	17.3%	63	3.8%	1778	51.0%
	인문고	229	20.4%	15	1.3%	1122	32.2%
	실업고	168	28.8%	15	2.6%	583	16.7%
학교 성적	상	160	16.6%	16	1.7%	964	27.9%
	중	305	20.0%	37	2.4%	1527	44.2%
	하	237	24.7%	43	4.5%	961	27.8%
가정 형편	상	97	19.3%	14	2.8%	503	14.5%
	중	483	19.5%	63	2.5%	2477	71.2%
	하	124	24.9%	20	4.0%	498	14.3%
지역	대도시	361	22.5%	39	2.4%	1608	46.2%
	중소 도시	234	18.1%	43	3.3%	1293	37.1%
	군지역	109	18.7%	16	2.7%	582	16.7%
계		704	20.2%	98	2.8%	3483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05, ** = p <.01, *** = p <.001

7.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욕구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는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욕구를 살펴보자 한다.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이유,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그리고 만약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어느 시간대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1)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

<표 IV-44>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

		아르바이트하지 않은 이유										계 빈도 퍼센트			
		학 시간이 없어서		하고싶어도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없어서		공부에 방해되니까		문제학생으 로 보이는 것같아서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455	36.5%	308	31.3%	143	11.2%	69	5.4%	198	15.6%	1273	100.0%		
	여자	369	29.3%	504	40.0%	130	10.3%	27	2.1%	230	18.3%	1260	100.0%		
교급별***	중학교	430	30.2%	503	35.3%	147	10.3%	80	5.6%	266	18.7%	1426	100.0%		
	인문고	315	40.0%	232	29.5%	114	14.5%	10	1.3%	116	14.7%	787	100.0%		
	설립고	89	27.8%	167	52.2%	12	3.8%	6	1.9%	46	14.4%	320	100.0%		
학교	상	238	34.3%	206	27.4%	137	18.2%	23	3.1%	129	17.1%	753	100.0%		
성적***	중	365	32.3%	426	37.7%	106	9.4%	41	3.6%	192	17.0%	1130	100.0%		
	하	202	32.4%	259	41.5%	29	4.6%	32	5.1%	102	16.3%	624	100.0%		
가정형편***	상	141	36.5%	84	21.8%	78	20.2%	21	5.4%	62	16.1%	386	100.0%		
	중	601	32.9%	665	36.5%	178	9.8%	61	3.3%	319	17.5%	1824	100.0%		
	하	91	28.8%	148	46.8%	16	5.1%	14	4.4%	47	14.9%	316	100.0%		
지역***	대도시	384	34.8%	330	29.9%	126	11.4%	32	2.9%	233	21.1%	1105	100.0%		
	중소도시	303	31.8%	333	35.0%	121	12.7%	47	4.9%	148	15.5%	952	100.0%		
	군지역	147	30.9%	239	50.2%	26	5.5%	17	3.6%	47	9.9%	476	100.0%		
계		834	32.9%	902	35.6%	273	10.8%	96	3.8%	428	16.9%	2533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05, ** = p <.01, *** = p <.001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하고 싶어도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어서'가 35.6%, '할 시간이 없어서'가 32.9%인 것으로 나타나 만약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제공되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경험은 지금보다 두 배 이상(약 77%)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아르바이트 무경험자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높은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며, 언제라도 주변 여건만 허락한다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의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참여에 대한 양성화와 권리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로서 '하고 싶어도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높고, 실업고 학생에게서 높으며, 학교성적이 낮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도시의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 그리고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아르바이트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 수요의 측면에서 여학생 인력에 대한 수요가 남학생보다 적고, 또한 군지역 같은 소규모 지역에서는 청소년 인력을 주로 채용하는 서비스업종의 발달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유로서 '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서 높고, 인문고 학생에게서 높으며, 학교성적이 높고,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2)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중에서 만약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생

진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68.3%가 '생각이 있다'고 응답해 여기에서도 아르바이트 무경험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높은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일자리가 생긴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한 학생들이 실제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경우 경험률은 전체 중고등학생의 77.4%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바이트 의사율 밝힌 학생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실업고 학생, 학교성적이 낮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도 도시의 규모가 적은 지역 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IV-45>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				계	
		있다		없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832	64.8%	451	35.2%	1283	100.0%
	여자	923	71.8%	362	28.2%	1285	100.0%
교급별***	중학교	966	67.3%	469	32.7%	1435	100.0%
	인문고	521	64.6%	286	35.4%	807	100.0%
	실업고	268	82.2%	58	17.8%	326	100.0%
학교성적***	상	456	60.0%	304	40.0%	760	100.0%
	중	807	70.2%	342	29.8%	1149	100.0%
	하	476	75.2%	157	24.8%	633	100.0%
가정형편***	상	207	52.7%	186	47.3%	393	100.0%
	중	1297	70.1%	554	29.9%	1851	100.0%
	하	246	77.6%	71	22.4%	317	100.0%
지역**	대도시	750	66.1%	385	33.9%	1135	100.0%
	중소도시	631	66.2%	322	33.8%	953	100.0%
	군지역	374	77.9%	106	22.1%	480	100.0%
계		1755	68.3%	813	31.7%	2568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3) 원하는 아르바이트 시간대

<표 IV-46> 원하는 아르바이트 시간대

		원하는 아르바이트 시간대								계			
		방과후에		방학중에		방과후와 방학중 상관없이 언제나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19	14.3%	591	70.9%	102	12.2%	22	2.6%	834	100.0%		
	여자	106	11.5%	652	70.9%	144	15.7%	17	1.8%	919	100.0%		
교급별 ***	중학교	109	11.3%	727	75.2%	113	11.7%	18	1.9%	967	100.0%		
	인문고	62	11.9%	383	73.7%	59	11.3%	16	3.1%	520	100.0%		
	실업고	54	20.3%	133	50.0%	74	27.8%	5	1.9%	266	100.0%		
학과 성적***	상	56	12.3%	338	74.1%	51	11.2%	11	2.4%	456	100.0%		
	중	85	10.5%	593	73.6%	108	13.4%	20	2.5%	806	100.0%		
	하	83	17.5%	298	62.7%	86	18.1%	8	1.7%	475	100.0%		
가정 형편**	상	25	12.1%	158	76.7%	18	8.7%	5	2.4%	206	100.0%		
	중	162	12.5%	931	71.9%	173	13.4%	29	2.2%	1295	100.0%		
	하	38	15.4%	149	60.3%	55	22.3%	5	2.0%	247	100.0%		
지역	대도시	85	11.4%	539	72.3%	103	13.8%	19	2.5%	746	100.0%		
	중소도시	89	14.1%	441	69.8%	85	13.4%	17	2.7%	632	100.0%		
	군지역	51	13.6%	263	70.1%	58	15.5%	3	.8%	375	100.0%		
계		225	12.8%	1243	70.9%	246	14.0%	39	2.2%	1753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 중 70.9%가 '방학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답해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과후'는 12.8%, '방과후와 방학중 상관없이 언제나'는 14%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인문고생의 약 74-75%정도가 방학중 아르바이트를 선호한 반면, 실업고생은 50%만이 방학중 아르바이트를 선호하고, 나머지는 '방과후'(20%), '방과후와 방학중 상관없이 언제나'(28%)에 분포되어있어 실업고생은 방학기간외에도 일상적으로 아르바이트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방학기간외의 일상적인 아르바이트 고용률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종류를 보면 패스트푸드점이 23.4%로 가장 많고, 24시간 편의점이 16.6%, 컴퓨터관련된 일이 11.9%, 음식점 서빙 11.2%, 전단지 돌리기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주로 컴퓨터 관련된 일, 패스트푸드점, 24시 편의점, 전단지 돌리기, 신문배달의 순인 반면, 여학생은 패스트푸드점, 24시 편의점, 음식점 서빙의 순이다. 중학생은 전단지돌리기를, 인문고학생은 패스트푸드점을, 실업고학생은 24시 편의점을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7>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1)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1)															
		전단지돌리기		패스트푸드점		24시 편의점		상점에서 물건팔기		신문배달		주유소		사무보조		건설현장일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반도	파센트
성별	남자	97	11.9%	108	13.3%	105	12.9%	16	20%	75	9.2%	54	6.6%	16	2.0%	22	2.7%
	여자	71	7.7%	297	32.2%	182	19.8%	54	59%	22	24%	10	1.1%	31	3.4%	2	.2%
고급별	중학교	134	14.1%	202	21.2%	157	16.5%	42	4.1%	64	6.7%	33	3.5%	17	1.8%	5	.5%
	인문고	25	4.9%	154	30.0%	71	13.8%	16	3.1%	27	5.3%	20	3.9%	24	4.7%	12	2.3%
	실업고	9	3.9%	49	18.4%	59	22.1%	12	4.5%	6	2.2%	11	4.1%	6	2.2%	7	2.6%
학교	상	39	8.7%	117	26.1%	53	12.9%	10	2.2%	20	4.5%	11	2.4%	18	4.0%	5	1.1%
	중	73	9.1%	201	25.5%	133	16.6%	32	4.0%	47	5.9%	32	4.0%	25	3.1%	10	1.3%
	하	56	11.9%	78	16.6%	93	19.8%	26	5.5%	29	6.2%	20	4.3%	4	.9%	9	1.9%
성적	상	21	10.4%	60	29.7%	24	11.9%	6	30%	9	4.5%	7	3.5%	4	20%	3	1.5%
	중	126	9.8%	305	23.8%	210	16.4%	51	4.2%	76	5.9%	40	3.1%	38	30%	14	11%
	하	21	8.6%	39	15.9%	53	21.0%	10	41%	12	4.9%	17	6.9%	5	20%	6	2.4%
지역	대도시	72	9.7%	186	25.2%	131	16.2%	27	3.7%	44	6.0%	25	3.4%	25	3.4%	10	1.4%
	중소 도시	83	13.2%	140	22.3%	98	15.6%	25	4.0%	40	6.4%	20	3.2%	15	2.4%	7	1.1%
	군지역	13	3.5%	79	21.5%	66	18.8%	18	4.9%	13	3.5%	19	5.2%	7	1.9%	7	1.9%
계		168	9.7%	405	23.4%	257	16.6%	70	4.0%	97	5.6%	64	3.7%	47	2.7%	24	1.4%

(1) 유의도 수준 : * = p <.05, ** = p <.01, *** = p <.001

<표 IV-47>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2)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2)								계 빈도 퍼센트	
		이랜트 행사장		음식점에서 서빙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		컴퓨터 관련판 일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	남자	15	18%	67	82%	40	49%	157	19.3%	43	5.3%
	여자	44	48%	127	13.8%	3	3%	49	5.3%	26	2.8%
교급별 ***	중학교	26	27%	98	10.3%	18	1.9%	118	12.4%	38	4.0%
	인문고	18	35%	59	11.5%	10	1.9%	56	10.9%	22	4.3%
	실업고	15	56%	37	13.9%	15	56%	32	12.0%	9	3.4%
학과 성적 ***	상	12	27%	48	10.7%	13	2.9%	77	17.1%	21	4.7%
	중	32	40%	83	10.4%	15	1.9%	83	10.4%	30	3.8%
	하	14	30%	62	13.2%	15	3.2%	45	9.6%	18	3.8%
가정 형편 **	상	12	5.9%	16	7.9%	1	5%	31	15.3%	8	4.0%
	중	40	31%	151	12.0%	36	2.8%	139	10.9%	49	3.8%
	하	6	24%	24	9.8%	6	2.4%	34	13.9%	12	4.9%
지역 ***	대도시	25	35%	73	9.9%	16	2.2%	80	10.8%	35	4.7%
	중소도시	24	35%	65	10.4%	8	1.3%	83	13.2%	19	3.0%
	군자역	9	25%	36	15.3%	19	5.2%	43	11.7%	15	4.1%
계		59	34%	191	11.2%	43	2.5%	236	11.9%	69	4.0%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05, ** = p <.01, *** = p <.001

8. 교사가 바라보는 청소년아르바이트

본 절에서는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이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태도

(1)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표 IV-48>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계	
		아주좋게생각		약간좋게생각		약간나쁘게생각		아주나쁘게생각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0	8.5%	79	33.8%	100	42.7%	35	15.0%
	여자	12	6.5%	44	23.8%	106	57.3%	23	12.4%
연령*	20대	3	9.4%	11	34.4%	18	56.3%		
	30대	12	8.6%	45	32.4%	72	51.8%	10	7.2%
	40대	12	6.7%	50	27.8%	84	46.7%	34	18.9%
	50세이상	5	7.4%	17	25.0%	32	47.1%	14	20.6%
교급	중학교	11	5.8%	54	28.4%	99	52.1%	26	13.7%
	인문고	14	9.7%	50	34.7%	66	45.8%	14	9.7%
	실업고	7	8.2%	19	22.4%	41	48.2%	18	21.2%
지역*	대도시	6	3.2%	54	28.9%	97	51.9%	30	16.0%
	중소도시	14	9.6%	47	32.2%	72	49.3%	13	8.9%
	군지역	12	14.0%	22	25.6%	37	43.0%	15	17.4%
계		32	7.6%	123	29.4%	206	49.2%	58	13.8%
								419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교사들의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약간 나쁘게 생각한다'가 49.2%로 가장 높고, '약간 좋게 생각한다'가 29.4%, '아주 나쁘게 생각한다'가 13.8%, '아주 좋게 생각한다'가 7.6%로 각각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37%인 반면, 부정적 인식이 63%로 나타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의 두 배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5%라는 앞에서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교사와 학생간의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남자교사보다 여자교사에게서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높으며,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군지역보다 부정적 인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참여에 대한 허용도

<표 IV-49>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허용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허용도						계			
		당연히 할수있다		한두번정도 할수있다		가급적하지 말아야한다		절대로 하지말아야한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41	17.4%	61	26.0%	107	45.5%	26	11.1%	235	100.0%
	여자	27	14.7%	62	33.7%	89	48.4%	6	3.3%	184	100.0%
연령**	20대	8	25.0%	12	37.5%	12	37.5%			32	100.0%
	30대	29	20.7%	48	34.3%	61	43.6%	2	1.4%	140	100.0%
	40대	25	14.0%	46	25.7%	89	49.7%	19	10.6%	179	100.0%
	50대이상	6	8.8%	17	25.0%	34	50.0%	11	16.2%	68	100.0%
교급	중학교	29	15.3%	56	29.6%	89	47.1%	15	7.9%	189	100.0%
	인문고	29	20.0%	43	29.7%	65	44.8%	8	5.5%	145	100.0%
	실업고	10	11.8%	24	28.2%	42	49.4%	9	10.6%	85	100.0%
지역*	대도시	22	11.8%	59	31.7%	91	48.9%	14	7.5%	186	100.0%
	중소도시	22	15.1%	46	31.5%	69	47.3%	9	6.2%	146	100.0%
	군지역	24	27.6%	18	20.7%	36	41.4%	9	10.3%	87	100.0%
계		68	16.2%	123	29.4%	196	46.8%	32	7.6%	419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중·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가 46.8%로 가장 높고, '한두번 정도 할 수 있다'가 29.4%, '당연히 할 수 있다'가 16.2%,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가 7.6%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허용적 태도가 45.6%인 반면, 불가적 태도는 54.4%로 나타나 불가적 태도가 허용적 태도보다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참여

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88%였던 앞에서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역시 교사와 학생간의 커다란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불가적 태도는 남자교사보다 여자교사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교사이며, 연령이 많은 교사일수록 아르바이트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더 걱정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대도시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탈선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이해

(1) 한 학급에서 예상되는 현재 아르바이트 참여자 비율

<표 IV-50> 한 학급에서 예상되는 아르바이트 경험자 비율

		한 학급에서 예상되는 아르바이트 경험자 비율							계		
		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82	78.8%	35	15.2%	9	3.9%	3	1.3%	2	.9%
	여자	153	84.1%	17	9.3%	10	5.5%	2	1.1%		
연령	20대	25	78.1%	4	12.5%	1	3.1%	2	6.3%		32
	30대	115	83.3%	16	11.6%	7	5.1%				138
	40대	137	77.4%	27	15.3%	9	5.1%	3	1.7%	1	.6%
	50대이상	58	87.9%	5	7.6%	2	3.0%			1	1.5%
교급	중학교	175	94.1%	10	5.4%			1	.5%		186
	안문고	120	84.5%	17	12.0%	5	3.5%				142
	실업고	40	47.1%	25	29.4%	14	16.5%	4	4.7%	2	2.4%
지역	대도시	139	75.1%	30	16.2%	14	7.6%	1	.5%	1	.5%
	중소도시	124	87.3%	12	8.5%	4	2.8%	2	1.4%		
	군자역	72	83.7%	10	11.6%	1	1.2%	2	2.3%	1	1.2%
계		335	81.1%	52	12.6%	19	4.6%	5	1.2%	2	.5%
										413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한 학급에서 현재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는 질문에 대해 '10% 미만'이 81.1%로 가장 높고, '10% 이상 - 20% 미만'이 12.6%, '20% 이상 - 30% 미만'이 4.6%, '30% 이상 - 40% 미만'이 1.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 학생의 비율이 3.1%인 앞에서의 결과와 대체로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교사와 인문고 교사가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실업고 교사는 '10% 미만'(47.1%)이 중학교와 인문고 교사보다는 낮지만, '10% 이상 - 20% 미만'(29.4%), '20% 이상 - 30% 미만'(16.5%)의 비율이 중학교와 인문고 교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하는 가장 큰 이유 두가지

<표 IV-51>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두가지(1)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두가지 (1)									
		용돈이 부족해서		꼭 사거나 쓸곳이 생겨서		친구의 권유로		남는시간을 활용해서		진로선택에 도움을 받으려고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25	54.1%	120	51.9%	43	18.6%	12	5.2%	7	3.0%
	여자	110	60.8%	112	61.9%	30	16.6%	8	4.4%	3	1.7%
연령	20대	18	56.3%	23	71.9%	1	3.1%	3	9.4%	1	3.1%
	30대	68	49.6%	81	59.1%	24	17.5%	8	5.8%	3	2.2%
	40대	114	64.8%	97	55.1%	32	18.2%	7	4.0%	4	2.3%
	50대이상	35	52.2%	31	46.3%	16	23.9%	2	3.0%	2	3.0%
교급	중학교	107	57.8%	103	58.4%	39	21.1%	9	4.9%	5	2.7%
	인문고	78	54.2%	79	54.9%	28	19.4%	9	6.3%	3	2.1%
	실업고	50	60.2%	45	54.2%	6	7.2%	2	2.4%	2	2.4%
지역	대도시	113	61.7%	111	60.7%	39	21.3%	7	3.8%	3	1.6%
	중소도시	74	51.4%	73	50.7%	24	16.7%	7	4.9%	3	2.1%
	군지역	48	56.4%	48	56.5%	10	11.8%	6	7.1%	4	4.7%
계		235	57.0%	232	56.3%	73	17.7%	20	4.9%	10	2.4%

(1) 유의도 수준 : * = p <.05, ** = p <.01, *** = p <.001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두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용돈이 부족해서'가 57.0%, '꼭 사거나 쓸 곳이 생겨서'가 56.3%로 나타났으며,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위해'가 29.5%, '친구의 권유로'가 17.7%, '남는 시간을 활용하려고'가 4.9%, '진로선택에 도움을 받으려고'가 2.4%,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가 1.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하는 가장 큰 이유로서 자신들의 소비 행위를 위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한다는 중·고등학생들의 응답과 대체로 비슷한 가운데,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위해'의 비율이 교사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51>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두가지 (2)

		중고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두가지(2)				계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서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6	2.6%	70	30.3%	7	3.0%	231	168.7%
	여자	2	1.1%	53	29.3%	5	2.8%	181	178.6%
연령	20대	1	3.1%	12	37.5%	0	0%	32	184.4%
	30대	1	.7%	47	34.3%	5	3.6%	137	172.8%
	40대	5	2.8%	47	26.7%	4	2.3%	176	176.2%
	50대상	1	1.5%	17	25.4%	3	4.5%	67	159.8%
교급	중학교	4	2.2%	50	27.0%	4	2.2%	185	176.3%
	인문고	2	1.4%	48	33.3%	3	2.1%	144	173.7%
	실업고	2	2.4%	25	30.1%	5	6.0%	83	164.9%
지역	대도시	3	1.6%	44	24.0%	4	2.2%	183	176.9%
	중소도시	4	2.8%	49	34.0%	6	4.2%	144	166.8%
	군지역	1	1.2%	30	35.3%	2	2.4%	85	175.5%
계		8	1.9%	123	29.5%	12	2.9%	412	173.0%

(1) 유의도 수준 : * = p <.05, ** = p <.01, *** = p <.001

3) 아르바이트 경험후 청소년의 변화

(1) 학업성적의 변화

<표 IV-52> 아르바이트 이후 예상되는 학업성적의 변화

		아르바이트 이후 예상되는 학업성적의 변화								계			
		약간올라간다		변화없다		약간떨어진다		많이떨어진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7	3.0%	37	15.8%	99	42.3%	91	38.9%	234	100.0%		
	여자			14	7.6%	89	48.1%	82	44.3%	185	100.0%		
연령	20대			7	21.9%	16	50.0%	9	28.1%	32	100.0%		
	30대	3	2.2%	19	13.7%	68	48.9%	49	35.3%	139	100.0%		
	40대	3	1.7%	16	8.9%	81	45.0%	80	44.4%	180	100.0%		
	50대이상	1	1.5%	9	13.2%	23	33.8%	35	51.5%	68	100.0%		
교급	중학교			19	10.0%	100	52.6%	71	37.4%	190	100.0%		
	인문고	7	4.9%	23	16.0%	69	47.9%	45	31.3%	144	100.0%		
	실업고			9	10.6%	19	22.4%	57	67.1%	85	100.0%		
지역	대도시	2	1.1%	11	5.9%	98	49.7%	81	43.3%	187	100.0%		
	중소도시	2	1.4%	27	18.5%	65	44.5%	52	35.6%	146	100.0%		
	군치역	3	35%	13	15.1%	30	34.9%	40	46.5%	86	100.0%		
계		7	1.7%	51	12.2%	188	44.9%	173	41.3%	419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에 학업성적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응답한 교사의 86.2%가 '성적이 떨어진다'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다'는 12.2%이고, '올라간다'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아르바이트가 중·고등학생들의 성적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강하고, 실업고 교사와 중학교 교사가 인문고 교사보다 뚜렷하며, 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 학업성적이 떨어졌다는 응답이 11.7%에 불과했던 중·고등학생들의 주관적 판단결과와 비교해 볼 때, 교사가 학생보다 더 많이 아르바이트경

험이후, 학업성적의 저하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친구관계의 변화

<표 IV-53> 아르바이트 이후 예상되는 친구관계의 변화

		아르바이트 이후 예상되는 친구관계의 변화										제 빈도 퍼센트			
		많이 늘어난다		약간 늘어난다		변화없다		약간 줄어든다		많이 줄어든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7	7.3%	106	45.5%	67	28.8%	35	15.0%	8	3.4%	233	100.0%		
	여자	21	11.4%	76	41.3%	50	27.2%	32	17.4%	5	2.7%	184	100.0%		
연령	20대	4	12.5%	14	43.8%	8	25.0%	6	18.8%			32	100.0%		
	30대	14	10.1%	53	38.1%	48	34.5%	21	15.1%	3	2.2%	139	100.0%		
	40대	17	9.5%	86	48.0%	43	24.0%	28	15.6%	5	2.8%	179	100.0%		
	50대이상	3	45%	29	43.3%	18	26.9%	12	17.9%	5	7.5%	57	100.0%		
교급	중학교	16	8.5%	85	45.2%	54	28.7%	31	16.5%	2	1.1%	188	100.0%		
	인문고	14	9.7%	57	39.6%	45	31.3%	22	15.3%	6	4.2%	144	100.0%		
	실업고	8	9.4%	40	47.1%	18	21.2%	14	16.5%	5	5.9%	85	100.0%		
지역	대도시	21	11.2%	84	44.9%	48	25.7%	25	13.4%	9	4.8%	187	100.0%		
	중소도시	9	6.2%	68	46.9%	42	29.0%	24	16.6%	2	1.4%	145	100.0%		
	군치역	8	9.4%	30	35.3%	27	31.8%	18	21.2%	2	2.4%	85	100.0%		
계		38	9.1%	182	43.6%	117	28.1%	67	16.1%	13	3.1%	417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에 친구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응답 교사의 52.7%가 ‘늘어난다’고 응답했으며, ‘변화없다’가 28.1%, ‘줄어든다’가 19.2%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교사들이 아르바이트로 인한 친구관계의 증가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 친구관계가 늘어났다는 응답이 23.3%에 불과했던 중·고등학생들의 주관적 판단결과와 비교해 볼 때, 교사가 학생보다 더 많이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 친구관계의 증가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비수준의 변화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에 소비수준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응답 교사의 92.3%가 ‘늘어난다’고 응답했으며, ‘변화없다’가 3.1%, ‘줄어든다’가 4.6%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르바이트로 인한 중·고등학생들의 소비수준 증가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 경험이후 소비수준이 늘어났다는 응답이 37.3%에 불과했던 중·고등학생들의 주관적 판단결과와 비교해 볼때, 교사가 학생보다 더 많이 아르바이트경험이후, 소비수준의 증가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4> 아르바이트 이후 예상되는 소비수준의 변화

		아르바이트 이후 예상되는 소비수준의 변화										계			
		많이 늘어난다		조금 늘어난다		변화없다		조금 줄어든다		많이 줄어든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68	28.9%	146	62.1%	10	4.3%	9	3.8%	2	.9%	235	100.0%		
	여자	75	40.5%	99	53.5%	3	1.6%	6	3.2%	2	1.1%	185	100.0%		
연령	20대	11	34.4%	20	62.5%			1	3.1%			32	100.0%		
	30대	37	26.4%	98	70.0%	1	.7%	4	2.9%			140	100.0%		
	40대	71	39.4%	92	51.1%	8	4.4%	6	3.3%	3	1.7%	180	100.0%		
	50대이상	24	35.3%	35	51.5%	4	5.9%	4	5.9%	1	1.5%	68	100.0%		
교급	중학교	65	34.2%	113	59.5%	5	2.6%	6	3.2%	1	.5%	190	100.0%		
	인문고	32	22.1%	95	65.5%	7	4.8%	8	5.5%	3	2.1%	145	100.0%		
	실업고	46	54.1%	37	43.5%	1	1.2%	1	1.2%			85	100.0%		
지역	대도시	71	38.0%	103	55.1%	4	2.1%	7	3.7%	2	1.1%	187	100.0%		
	중소도시	43	29.5%	87	59.6%	7	4.8%	8	5.5%	1	.7%	146	100.0%		
	군자역	29	33.3%	55	63.2%	2	2.3%			1	1.1%	87	100.0%		
계		143	34.0%	245	58.3%	13	3.1%	15	3.6%	4	1.0%	420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4)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의 변화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에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응답 교사의 61.7%가 '늘어난다'고 응답했으며, '변화없다'가 26.1%, '줄어든다'가 12.3%로 나타나, 상당수의 교사들이 아르바이트경험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교 교사보다 중학교 교사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 경험이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응답이 32.2%에 불과했던 중·고등학생들의 주관적 판단결과와 비교해 볼때, 교사가 학생보다 더 많이 아르바이트경험 이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5> 아르바이트 이후 예상되는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의 변화

		아르바이트 이후 예상되는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의 변화										계 빈도 퍼센트			
		많이 늘어난다		조금 늘어난다		변화없다		조금 줄어든다		많이 줄어든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5	10.7%	119	51.1%	59	25.3%	15	6.4%	15	6.4%	233	100.0%		
	여자	22	12.0%	91	49.5%	50	27.2%	9	4.9%	12	6.5%	184	100.0%		
연령	20대	3	9.4%	17	53.1%	9	28.1%	2	6.3%	1	3.1%	32	100.0%		
	30대	20	14.4%	61	43.9%	46	33.1%	6	4.3%	6	4.3%	139	100.0%		
	40대	15	8.4%	95	53.4%	43	24.2%	12	6.7%	13	7.3%	178	100.0%		
	50대이상	9	13.2%	37	54.4%	11	16.2%	4	5.9%	7	10.3%	68	100.0%		
교급 **	중학교	15	7.9%	114	60.3%	47	24.9%	6	3.2%	7	3.7%	189	100.0%		
	인문고	21	14.6%	66	45.8%	38	26.4%	11	7.6%	8	5.6%	144	100.0%		
	실업고	11	13.1%	30	35.7%	24	28.6%	7	8.3%	12	14.3%	84	100.0%		
지역	대도시	21	11.4%	91	49.2%	51	27.6%	10	5.4%	12	6.5%	185	100.0%		
	중소도시	17	11.7%	75	51.7%	33	22.8%	11	7.6%	9	6.2%	145	100.0%		
	군지역	9	10.3%	44	50.5%	25	28.7%	3	3.4%	6	6.9%	87	100.0%		
	계	47	11.3%	210	50.4%	109	26.1%	24	5.8%	27	6.5%	417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4) 청소년 아르바이트참여에 대한 허용도

(1) 아르바이트 허용의사

<표 IV-56> 아르바이트 허용의사

		아르바이트 허용의사								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공부에 영향이 없을정도면 허락한다		가능하면 하지말라고 말린다		절대로 안된다고 못하게 한다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9	4.0%	93	41.7%	104	46.6%	17	7.6%	223	100.0%
	여자	1	.6%	69	38.8%	96	53.9%	12	6.7%	178	100.0%
연령*	20대			16	53.3%	14	46.7%			30	100.0%
	30대	4	3.0%	59	44.0%	66	49.3%	5	3.7%	134	100.0%
	40대	2	1.2%	69	39.9%	82	47.4%	20	11.6%	173	100.0%
	50대이상	4	6.3%	18	28.1%	38	59.4%	4	6.3%	64	100.0%
교급	중학교	2	1.1%	78	42.2%	92	49.7%	13	7.0%	185	100.0%
	인문고	6	4.4%	57	41.9%	66	48.5%	7	5.1%	136	100.0%
	실업고	2	2.5%	27	33.8%	42	52.5%	9	11.3%	80	100.0%
지역	대도시	2	1.1%	63	37.4%	97	53.3%	15	8.2%	182	100.0%
	중소도시	5	3.6%	59	42.4%	66	47.5%	9	6.5%	139	100.0%
	군지역	3	3.8%	35	43.8%	37	46.3%	5	6.3%	80	100.0%
계		10	2.5%	162	40.4%	200	49.9%	29	7.2%	401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05, ** = p <.01, *** = p <.001

만약 제자가 중·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참여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하여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말린다'가 49.9%로 가장 많고, '공부에 영향이 없을 정도면 허락한다'라 40.4%, '절대로 안된다고 못하게 한다'가 7.2%,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가 2.5%로 각각 나타나, 전반적으로 허용적 태도를 취하는 교사가 42.9%, 불가적 태도를 취하는 교사가 5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많은 교사일수록 아르바이트참여에 불가의 입장을 밝히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2) 아르바이트 허락이유

제자가 중·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참여를 원할 경우 허용적 태도를 취하겠다는 교사들은 그 이유로서 '독립심이 생김'(79.3%), '진로선택에 도움이 됨'(15.4%), '경제적 여유가 생김'(3.0%)을 각각 들었다.

<표 IV-57> 아르바이트 허락이유

		아르바이트 허락이유								계	
		경제적 여유가 생김		독립심이 생김		진로선택에 도움이 됨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3	29%	82	79.6%	16	15.5%	2	1.9%	103	100.0%
	여자	2	30%	52	78.8%	10	15.2%	2	3.0%	66	100.0%
연령	20대			11	73.3%	3	20.0%	1	6.7%	15	100.0%
	30대	3	4.8%	50	80.6%	6	9.7%	3	4.8%	62	100.0%
	40대			58	82.9%	12	17.1%			70	100.0%
	50대이상	2	9.1%	15	68.2%	5	22.7%			22	100.0%
교급	중학교	1	1.3%	61	81.3%	11	14.7%	2	2.7%	75	100.0%
	인문고	2	3.1%	52	80.0%	9	13.8%	2	3.1%	65	100.0%
	실업고	2	6.9%	21	72.4%	6	20.7%			29	100.0%
지역	대도시	3	45%	47	71.2%	14	21.2%	2	3.0%	66	100.0%
	중소도시	2	3.1%	54	84.4%	8	12.5%			64	100.0%
	군지역			33	84.6%	4	10.3%	2	5.1%	39	100.0%
계		5	3.0%	134	79.3%	26	15.4%	4	2.4%	169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3) 아르바이트 불가이유

제자가 중·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참여를 원할 경우 불가적 태도를 취하겠다는 교사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음'(77.5%), '학교성적이 떨어짐'(13.8%), '사회적 부정적 인식'(6.0%)의 순으로 꼽았다.

결국 교사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탈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8> 아르바이트 불가이유

		아르바이트 불가 이유										계 빈도 퍼센트	
		학교성적이 떨어짐		사회적 부정적 인식		건강이 나빠짐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음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2	10.3%	8	6.9%			95	81.9%	1	.9%	116	100.0%
	여자	18	17.6%	5	4.9%	2	2.0%	74	72.5%	3	2.9%	102	100.0%
연령	20대	4	28.6%					10	71.4%			14	100.0%
	30대	9	13.8%	5	7.7%	1	1.5%	49	75.4%	1	1.5%	65	100.0%
	40대	15	15.0%	5	5.0%	1	1.0%	76	76.0%	3	3.0%	100	100.0%
	50대이상	2	5.1%	3	7.7%			34	87.2%			39	100.0%
교급	중학교	14	14.1%	5	5.1%			78	78.8%	2	2.0%	99	100.0%
	인문고	9	12.5%	5	6.9%	1	1.4%	56	77.8%	1	1.4%	72	100.0%
	실업고	7	14.9%	3	6.4%	1	2.1%	35	74.5%	1	2.1%	47	100.0%
지역	대도시	18	17.0%	5	4.7%	1	.9%	79	74.5%	3	2.8%	105	100.0%
	중소도시	12	16.9%	5	7.0%			53	74.6%	1	1.4%	71	100.0%
	군지역			3	7.3%	1	2.4%	37	90.2%			41	100.0%
계		30	13.8%	13	6.0%	2	.9%	169	77.5%	4	1.8%	218	100.0%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5)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중요한 것 두가지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정부가 지원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직종개발'이 58.0%, '권익보호'가 50.0%, '사회인식변화'가 37.7%, '취업알선'이 32.1%, '임금인상'이 2.9%로 나타났다.

<표 IV-59>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두가지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두가지										계 빈도 퍼센트		
		취업알선		권익보호		다양한 직종개발		사회인식변화		임금인상		기타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69	29.9%	105	45.5%	131	56.7%	99	42.2%	8	3.5%	6	1.3%	231 179.8%
	여자	64	35.0%	102	55.7%	109	59.6%	57	31.1%	4	2.2%	2	1.1%	183 184.7%
연령	20대	8	25.0%	20	62.5%	16	50.0%	15	46.9%	0	.0%	0	.0%	32 184.4%
	30대	39	28.1%	80	57.6%	77	55.4%	54	38.8%	3	2.2%	1	.7%	139 182.8%
	40대	60	34.1%	82	46.6%	103	58.5%	67	38.1%	6	3.4%	3	1.7%	176 182.4%
	50대 이상	26	38.8%	25	37.3%	44	65.7%	20	29.1%	23	4.5%	1	1.5%	67 177.7%
교급	중학교	55	28.9%	99	52.1%	112	58.9%	71	37.4%	2	1.1%	4	2.1%	190 180.5%
	인문고	49	34.5%	67	47.2%	78	54.9%	65	45.8%	3	2.1%	0	.0%	142 184.5%
	실업고	29	35.4%	41	50.0%	50	61.0%	20	24.4%	7	8.5%	1	1.2%	82 180.5%
지역	대도시	52	28.3%	93	50.5%	123	66.8%	66	35.9%	3	1.6%	4	2.2%	184 185.3%
	중소도시	48	33.3%	72	50.0%	79	54.9%	53	36.8%	4	2.8%	1	.7%	144 178.5%
	군자역	33	38.4%	42	48.8%	38	44.2%	37	43.0%	5	5.8%	0	.0%	86 180.2%
계		133	32.1%	207	50.0%	240	58.0%	156	37.7%	12	2.9%	5	1.2%	414 181.9%

(1) 유의도 수준 : * = p <.05, ** = p <.01, *** = p <.001

9.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로지스틱 회귀모델(Logistic Regression Model)을 구성하였다. 먼저 독립변인으로 교차표의 집단변인으로 사용되었던 성, 교급, 성적, 생활수준, 지역을 포함하였다. 성, 교급, 지역은 모조변인(dummy variable)으로 변환되어 사용되어졌는데, 성변인에서는 남자, 교급변인에서는 실업고, 지역변인에서는 대도시가 각각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던 '학교에서의 소외'는 '학교생활에 어느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한 4점 서열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청소년소비문화'는 '웃, 신발, 가방 등을 살 때 주로 친구들과 함께 간다'와 '마음에만 들면 무리하더라도 산다'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꼭 산다'라는 세가지 문항 각각에 대한 4점 서열척도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청소년소비문화를 측정한 세가지 질문에 대한 신뢰도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5637로서 하나의 항목으로 뷔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인은 아르바이트 경험유무이며, 경험이 있으면 1이고 없으면 2이다.

다음은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IV-60> 모델 적합도 검증

	카이자승 (chi-square)	자유도 (df)	유의도 (significance)
Model Chi-Square	387.464	9	.0000

모델카이자승이 387.464이고, 자유도는 9로서 $p=.0000$ 의 통계적 유의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모델에 포함되는 독립변인들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 원인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61> 청소년아르바이트 참여경험 분류표

		예측치		총계 분류된 비율
		참여경험	미경험	
관찰치	참여경험	230	818	21.95%
	미경험	170	2,358	93.28%
전체				72.37%

청소년아르바이트 참여원인을 밝히는 회귀모델에서 예측치와 관찰치의 차이를 보여주는 분류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올바로 분류된 비율은 72.37%로서 대체로 높은 편이다. 참여경험자들이 올바로 예측된 비율은 21.95%에 불과한 반면, 미경험자들이 올바로 예측된 비율은 93.28%로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청소년아르바이트참여에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IV-62> 청소년아르바이트 참여에 영향을 준 요인

독립변인	B	Wald	R
성	.4519	32.5539***	.0840
교급(중학교)	.9380	78.3369***	.1328
교급(인문고)	.6973	39.5976***	.0932
학교성적	-2.751	41.7706***	-.0959
생활수준	-.2284	11.8500***	-.0477
지역(중소도시)	.1419	2.7897	.0135
지역(군지역)	.7230	36.4439***	.0892
학교생활만족도	-.1955	11.3657***	-.0465
소비문화	.2365	107.4112***	.1561
상수	-.2206	4.626	

(1) 유의도 수준 : * = $p < .05$, ** = $p < .01$, *** = $p < .001$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참여에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역(중소도시)만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문화가 가장 큰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충동적이고, 집단적인 소비행위가 아르바이트참여를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낮을 수록 더 많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성적이 낮고 생활이 어려울 수록 아르바이트에 많이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과 인문고생보다는 실업고생이 더 많

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지역보다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더 많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소결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실태를 본장의 첫부분에서 제기했던 여섯가지의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요약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는 학생이 전체의 29.2%로 나타나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약 3분의 1가량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여름방학 때(2000년 7월~8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2.2%이며, 조사기간(2000년 11월) 중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이 3.1%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특히 실업고생이 더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그리고 학교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지역,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규모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들은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소 용돈이 부족해서(51.3%)'이며, 다음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꼭 사거나 쓸 곳이 생겨서'(38.7%)이다. 이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28.1%), '친구들의 권유'(17.8%)순으로 나타났

으며, 반면 ‘친로선택에 도움을 받으려고’는 2.5%,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는 3.3%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소비행위를 위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자신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밖의 사회생활의 경험을 쌓고 돈도 벌기 위해 참여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과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중복응답)은 ‘보수’(72.2%)이며, 다음으로 ‘시간적 여유’(48.4%),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10.9%), ‘근무환경’(10.1%)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의 내용이나 과정을 중시하기보다는 일의 댓가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을 갖게 된다.

아르바이트 수입의 가장 큰 사용처(중복응답)는 ‘옷이나 신발 같은 것을 산다’(45.8%), ‘친구들끼리 군것질을 한다’(43.8%), ‘노래방이나 PC방에 간다’(3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을 한다’는 19.0%에 불과하여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대부분 자신의 외모를 가꾸거나 친구 교제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은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전단지돌리기(44.4%)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식점 서빙(13.1%), 신문배달(5.6%), 페스트푸드점(4.5%), 음식점 오토바이배달(4.3%), 건설현장일(3.5%), 상점에서 물건팔기(3.0%), 주유소(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한 시기로는 약 60%의 학생들이 중학생일 때라고 응답하였으며, 인문고생과 실업고생이 초등학생때 아르바이트를 처-

음 했다는 응답이 각각 6.2%, 3.6%인데 비하여 현재 중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이 초등학생때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했다는 응답이 29.3%나 되어 최초 아르바이트참여시기의 저연령화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르바이트하는 시기로는 과반수정도가 방학중(47.3%)이며, 방과후는 29.0%, '방과후와 방학중 모두'는 13.6%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인문고생은 방학중에만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데 비해, 실업고생은 방학중 못지 않게 방과후에도 일상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인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시간당 보수를 살펴보면 '1500원 초과 - 2000원 이하'가 39.4%로 가장 많고, 다음이 '2000원 초과 - 2500원 이하'가 14.2%, '2500원 초과 - 3000원 이하'가 11.4%로서 1500원에서 3000원까지의 분포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까지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1678.5원보다 적게 보수를 받는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의 약 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들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취업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보장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평일 근무시간은 '1~2시간'이 31.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6시간'이 24.6%, '3~4시간'이 20.8%, '11시간 이상'이 9.5%, '7~8시간'이 7.5%, '9~10시간'이 6.4%의 순이다. 평일 근무시간이 1시간에서 5시간사이인 학생이 76.5%를 차지하는 가운데, 근로기준법상의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 최대제한범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학생이 1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일 장시간의 아르바이트 근로에 종사하는 중·고등학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지속했던 기간을 살펴보면, '1~2일'이 34.4%로서 가장 많고, '3~7일'이 18.6%, '8~15일'이 12.4%, '16~30일'이 16.7%, '31일 이상'이 18.0%로 각각 나타나 일주일도 안되어 끝나는 아르바이트가 53.0%로서

과반수를 넘으며, 한달이상 지속되는 아르바이트는 단지 18%에 불과하였다.

아르바이트를 구한 방법을 살펴보면, '친구소개'가 49.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점이나 길가에 붙은 광고전단을 보고'가 14.6%,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로'가 12.7%, '벼룩시장, 교차로 같은 곳에서 보고'가 10.9%의 순이다. 반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가 1.1%, '직업소개소 소개로'가 1.1%, '교사나 학교의 소개'가 0.9%에 불과하여 공식적인 구직방법보다 비공식적인 구직방법이 청소년들 사이에 훨씬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넷째,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 학업성적은 대부분의 학생(81.4%)이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가 7.0%인 반면 '떨어졌다'가 11.7%로서 성적이 떨어진 학생이 올라간 학생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 친구관계는 역시 대부분의 학생(73.5%)이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가 23.3%인 반면 '줄어들었다'가 3.2%로서 친구관계가 늘어난 학생이 줄어든 학생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장이라는 더 폭넓은 사회관계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그 속에서 새롭게 사귀게 되는 친구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 가족관계는 대부분의 학생(67.9%)이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부모님이 좋아하신다'가 15.1%인 반면 '부모님이 싫어하신다'가 17.0%로서 부모님이 싫어하신다는 비율이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 소비수준은 과반수 정도(54.9%)가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가 37.3%인 반면 '줄어들었다'가 7.8%로서 소비가 늘어났다는 응답이 줄어들었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아르바이트 경험이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66.2%)의 학생이 변화가 없는 가운데, '관심이 늘어났다'가 32.2%인 반면 '관심이 줄어들었다'가 1.5%로서 변화가 없다는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르바이트 경험이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아르바이트 경험이후, 친구관계가 늘어나고 소비수준이 증가하며,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가 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이 60.0%로서 '도움이 되지 못했다'(40%)는 학생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만족도에서 '만족'이 63.5%, '불만족'이 36.5%로서 대체로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하는 학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그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가 47.7%, '없다'가 52.3%로 나타나 약 절반정도만 그 아르바이트를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참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는 다양하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던 청소년들은 직업체험을 통해 '돈벌기 어려움의 실감', '만만하지 않은 세상', '직접 돈을 벌어보는 보람'을 느낌으로써 사회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직업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아르바이트는 아직도 순기능적 효과만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은 다음의 조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어른들의 아르바이트를 안좋게 보는 시각'(38.9%)이며, 다음으로 '임금수준'이

30.7%, '위험한 주변환경'이 9.5%, '구타나 폭행'이 1.2%로 나타났듯이 어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큰 문제점이며, 청소년들의 인권과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점이다.

기성세대의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은 공부나 열심히 해야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직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특히 여자청소년의 경우)이 평배하다. 선진외국에서는 청소년기에 부모가 일부러 올바른 근로관과 직업관 형성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학생으로서의 일탈이나 금기로 간주하고 있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의 보람을 찾고 전로와 미래를 고민하도록 하기보다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하도록 한다.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던 청소년의 24%가 부모님에게 아르바이트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여가 있을 경우 아르바이트경험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최근의 연구결과(한경혜, 2000)를 고려해보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에 대해 백안시하기보다는 공부하며 일하는 생활태도에 대해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며 또한 동시에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그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기성세대의 인식의 전환은 두 번째 문제점인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보호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보다 적게 보수를 받는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의 약 20%나 되며,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

의 근로시간 최대제한범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학생이 15.9%나 되는 현실은 저임금과 장시간근로에 시달리면서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직장에서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9.4%나 되어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중·고등학생 열 명중의 한 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많으며, 중학생의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률이 고등학생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의 약 2배, 군지역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나 폭행을 가한 가해자를 살펴보면, 정식직원이 23.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장이 20.0%이며, 같이 일하는 선배가 13.3%, 손님이 6.7%, 같이 일하는 친구가 3.3%로 각각 나타나 대부분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식직원과 사장에 의해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구타나 폭행이 가해짐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5.9%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다친 경험이 있는 학생도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이 불과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서'를 회사나 고용주에게 제출하였다는 응답도 1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어떻게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할 것인가?

아르바이트가 '적성에 맞는다'가 37.5%, '적성에 맞지 않는다'가 62.6%로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중 상당수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중·고등학생이 견전한 아르바이트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0.6%가 '적다'고 하였으며, 단지 10.8%만이 '많다'고 하였고, 18.6%는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는 페스트푸드점이 2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4시간 편의점이 14.9%, 컴퓨터 관련 일이 11.4%, 음식점 서빙이 10.6%, 전단지 돌리기가 6.2%, 상점에서 물건팔기가 5.8%, 음식점 오토바이배달이 4.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비율에 대하여 '24시간 편의점'과 '컴퓨터 관련 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적성에 맞으면서 견전한 새로운 직종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견전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정부가 지원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다양한 직종개발'이 54.6%로 가장 많고 사회인식변화가 41.7%, 권익보호가 34.9%, 취업알선이 23.3%, 임금인상이 20.2%의 순서로 나타나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높은 욕구에 비해 실제로 유익하고 견전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가 청소년아르바이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63%, 긍정적 인식이 37%로서, 중·고등학생이 바라보는 인식(긍정적 인식이 85%)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허용적 태도가 45.6%, 불가적 태도는 54.4%로 나타나 청소년의 허용적 태도가 88%였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역시 교사와 학생간의 커다란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 이후 중·고등학생의 변화를 예상하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보다 학업성적의 저하, 친구관계의 증가, 소비수준의 증가,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자가 중·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참여를 원할 경우 허용적 태도를 취하겠다는 교사들은 그 이유로서 독립심이 생기고,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을 들었고, 불가적 태도를 취하겠다는 교사들은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탈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정부가 지원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직종개발'이 58.0%, '권익보호'가 50.0%, '사회인식변화'가 37.7%, '취업알선'이 32.1%, '임금인상'이 2.9%로 나타나 대체로 중·고등학생의 응답과 비슷한 가운데 권익보호의 응답이 조금 높게 나왔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참여에 영향을 준 요인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충동적이고, 집단적인 소비행위가 아르바이트참여를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낮을 수록 더 많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성적이 낮고 생활이 어려울 수록 아르바이트에 많이 참여하고,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과 인문고생보다는 실업고생이, 군지역보다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더 많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외국의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촉진·고용보호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1. 세계의 청소년고용정책 개관
2.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 촉진 및 보호에 관한 사례

V. 외국의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촉진·고용보호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1. 세계의 청소년고용정책 개관

1) 청소년정책의 세계적 조류

(1) 세계 청소년정책 형성의 배경과 과정

UN총회에서 채택된 한 선언(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037(XX), 1965)의 표현처럼, 인류를 공포와 불안 가운데로 몰고 갔던 전쟁들 속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은 것도 청소년이고,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것도 청소년들이었다.

무서운 재앙과도 같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그 이후의 급변하는 사회적 정황 속에서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하기만 했던 청소년들은, <여기·오늘>의 행복과 확실한 미래의 보장을 갈망하며 인고(忍苦)의 세월을 침묵 속에서 보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고뇌와 갈등은 활화산처럼 되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회 속에 분출되기 시작하더니,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마침내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히 혁명(revolution)이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소용돌이들을 일으켰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몸부림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양상으로 크고 격렬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의 변두리에 있던 이들은 '사회적 관심 속에 새롭게 등장한 집단'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세대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욕구에 대한 배려를 세계적 차원에서 반영한 것이, 서두에서 언급한, 1965년 UN총회의 '청소년의 평화·상호존중 및 상호이해의 이념' 증진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s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Resolution 2037 XX)이다.

이 선언은 그 서문에서 '청소년은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자 희망하고 있으며, 평화·자유 및 정의는 그들의 행복을 향한 욕구가 실현될 수 있게 하는 보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인간이 힘을 기울이는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과, 그들이 인류의 운명을 인도하게끔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서 위대한 과학적·기술적·문화적 성취의 시대에 청소년의 에너지·열정 및 창조력이 모든 국민들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진보를 위해 바쳐져야 함을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세계 청소년정책의 기초가 된 이 선언은, 젊은이들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이 그들의 어깨에 짊어져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청소년들의 힘과 열정과 창의력이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공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을 교육함으로써 이들이 사회 속에 통합될 수 있도록 육성하되, 특히 평화와 자유·상호존중 및 상호이해의 이념에 입각하여 개인적·사회적·국제적 자질이 함양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와 비정부단체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세계적 관심과 정책의 방향을 최초로 천명한 것이다.

이 선언에 이어서 1968년에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청소년의 권리·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교육·그들의 문제 및 욕구'(Right of Youth, its Education in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its Problems and Needs, Resolution 2447 XXIII)에 관한 결의안을 UN총회가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청소년을 하나의 '문제집단'이거나 단순한 교육적 대상만으로 여기던 종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청소년을 하나의 주체적 인

격체로 인정하고, 그들을 사회발전의 장해요소가 아닌 '발전의 원동력'으로 새롭게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국제사회적 인식이 크게 전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UN을 비롯한 산하전문기구들은 물론 각국 정부들은 이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시행에 힘을 기울이기에 이르렀으며, 회원국간에도 관련정보를 활발히 교환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79년, UN은 1985년을 '참여·발전·평화'(participation · development · peace)를 주제로 하는 '세계 청소년의 해'(International Youth Year; IYY)로 지정하는 결의안(Resolution 34/151)을 채택하였다.

'세계 청소년의 해'의 목적은; 청소년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고, 청소년의 권리와 열망을 인정하며, 사회·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서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과 평화를 위한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평화·상호존중 및 상호 이해의 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잠재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모든 국가는 발전을 위해 청소년의 힘을 한데 모아 이를 가용화하는 데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자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각국 정부가 저마다의 노력을 기울이다가 1985년 UN총회에서는, 그 동안 각국이 자체적으로 겪은 경험과 수 차례에 걸쳐 열렸던 일련의 유엔세계회의들(UN World Conferences for the IYY)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분야의 향후계획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Further Planning and Suitable Follow-up in the Field of Youth*, Resolution 40/14)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청소년을 단순히 하나의 인구통계상의 존재로만 보기보다는 다양한 하위집단(예; 장애청소년, 도시로 이주한 청소년과 사골의 청소년, 젊은 여성 등)으로 이루어진 폭넓은 범주(broad category)로 파악하고,

이들 하위집단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UN은 이 지침에 따라 지역(region)과 국가들의 정책수립을 지원하였고, 청소년관련 기구간의 협력증진에도 노력하였으며, '유엔청소년기금'이 설립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이 지침과 UN등의 지원이 아·태지역이나 유럽지역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지역과 국가들의 청소년정책수립에 많은 영향과 도움을 주었다.

다시 10년이 지난 1995년, 제50차 유엔총회는 그 동안 실시한 '청소년의 해' 프로그램 및 각 지역 및 국가들의 노력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2000년대의 청소년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로서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세계 실행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 WPA, Resolution 50/81)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프로그램(WPA)은, 청소년의 지위향상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지원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기조의 설정 및 이의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2000년대의 실행방안 등이 그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10대 중점영역(10 priority areas)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교육·고용·기아와 빈곤·보건·환경·약물남용·미성년비행·여가활동·소녀 및 젊은 여성·청소년의 사회 및 의사결정에의 완벽하고도 효과적인 참여 등이다.

이 중점영역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종래의 국가나 성인중심의 추진방식보다는 특히 <청소년의 참여>에 역점을 두어, 청소년에게 참여기회를 확대 부여하자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새로운 진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전에 힘입어 1998년(8월 2~7일) Portugal의 Braga에서 개최된 '세계청소년포럼'에는 150개국에서 청소년단체, UN, 정부간 기구의 대

표들이 참석하여 ‘청소년의 참여가 인류 및 사회발전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는 ‘브라가 청소년실천계획’(Braga Youth Action Plan)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Braga 청소년실천계획은 국가청소년정책, 빈곤퇴치와 발전, 21세기를 위한 교육, 고용, 건강, 인권증진 등에 관한 30가지의 권고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요약하여 보면; 청소년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국제공동체, 민간부문 및 정부들이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것과, 청소년의 정책참여 및 결사의 자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1988. 8. 8-12) Portugal의 수도 Lisbon에서는 최초의 ‘세계청소년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는 각국 청소년담당장관, UN 청소년관련기관 및 기구, 지역별 정부간 조직, 민간단체 대표 등 158개국에서 8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1995년의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세계실행프로그램’(WPA)에 대한 각국의 실천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1985년 UN이 지정한 ‘세계청소년의 해’(IYY)의 주제인 ‘참여, 발전, 평화’ 및 WPA의 10대 중점영역(priority areas)에 대한 각국의 청소년정책 등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회의의 말미에는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리스본선언’이 채택되었다.

Lisbon장관회의의 대 주제는, ‘상상력과 이상과 정열, 그리고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사회·문화·경제·기술적 발전의 핵심이며, 청소년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과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에 모아졌다. 이에 따라 채택된 Lisbon선언은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을 국가적·세계적 수준으로 부각시키려는 그 동안의 수많은 노력들에게 하나의 보람있는 결실로 자리잡게 되었고 청소년문제는 이로써 UN 및 국제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이슈로 등장하여 세계적 관심사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2) 청소년정책의 중점주제: <참여·개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 인식이 변환되면서 형성된 세계 각국의 청소년정책은 대체로 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전략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청소년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쪽으로 그 주안점이 기울여져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욕구·기대와 <여기·오늘>의 현실상황을 무시한 일방적인 개발에의 '동원계획'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국가발전의 주요원동력으로서의 인적자원임에는 틀림없으나, 청소년을 국가발전에 동원하기에만 급급해 한다면, 그것은 청소년의 현실과 욕구·그들의 지위와 열망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 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입장이 도외시된 청소년의 동원계획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교훈 삼아 새로운 접근방법에 따라 청소년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기에서 새롭게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이란 인간됨의 향상(인간개발; 人間化·文化化)과 개인적 능력의 신장(인적자원개발; 主體的 役割機能化)을 포함하는 일련의 사회화(socialization)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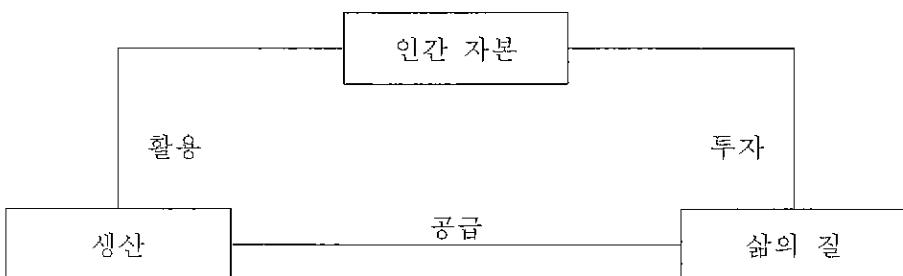
청소년개발은 1) 청소년의 인간성을 발전시킴과 아울러 자신의 개인적·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게 하며, 2)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 속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회적 학습과정(a social learning process), 그리고 3) 한편으로는 이들의 개발을 돋기 위한 환경적 요인을 재정향(reorientation)해 가는 사회적 노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ESCAP)의 '인적

자원개발(HRD)을 위한 자카르타 실행계획'(Jakarta Plan of Action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ESCAP Region; JPA)을 하나의 예로서 좀더 살펴보면 인적자원개발이란 하나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인데, 이는 '개발의 주요수단이면서 동시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그 인적자원개발의 우선적 목표집단(priority target group)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은 1) 생산력의 증진을 위하여 '인간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investment)를 먼저 하고, 2) 생산증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인적자원들을 활용(utilization)하며, 그리고 3) 생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그 생산과정에 참여했던 사람(human capital)들에게 공급하여서 그들이 향상된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혜택을 향유하는 데에 참여(participation)하게 한다는 세 가지 상호의존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을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다시 말하면 청소년(human capital)에게 우선 투자 ⇒ 투자혜택을 받은 청소년(human resources)을 생산에 활용 ⇒ 생산에서 얻은 이익을 생산에 참여했던 청소년에게 배분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상호의존적인 연결고리의 개념 속에는 청소년의 욕구와 그들의 잠재적 가능성들이 요소마다에서 명쾌하게 인지·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래야 청소년의 발전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UN/ESCAP 1997, 이철위 1998-1)



[그림 V-1] 자카르타 실행계획의 HRD과정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인적자원개발은, 발전을 위해서 인간자본(human capital)과 인간의 욕구(human needs)를 한데 모아서, 이를 발전과정에 하나의 '필수적 투입요소'(발전의 수단)로 활용하는 한편 그 소산(이익)을 발전과정에 투입되었던 사람들에게 되돌아가게 하는 방법 즉 발전의 '궁극적인 수혜자'(발전의 목표)가 되게 한다는 전략이다. 즉 <발전의 수단> ⇔ <발전의 목표>가 되게 한다는 발전전략이다.

따라서 이러한 HRD개념은,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일방적 수단으로서의 무리한 동원계획이 아니라 상호의존·상호협력의 개념으로서 각국의 실패를 보완·수정해주는 전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이 실효성을 거두자면 무엇보다 먼저 발전과정에 투입될 청소년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생활여건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참여가 존중되고 권장되는 등의 삶의 질의 개발이 앞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개념의 핵심은 청소년의 <삶의 질의 개발>에 있게 되고, 그 개발의 수단과 목표는 <사람중심>이어야 하며, 인간의 사회·경제·문화적 삶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답게 살 권리의 보장>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자기개발과 국가사회개발에 참여의 보람을 누리게 될 것이고, 거기에 비로소 개발에의 자발적 참여가 있게 된다. 이러한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은 국가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자발적이고 능률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개발을 통한 참여, 참여를 통한 개발> 즉 '자기개발을 통한 국가사회발전에의 참여'와 '국가사회개발에의 참여를 통한 자신의 삶의 질의 개발'이라는 상호의존적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은 결국 하나의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개념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사회·경제·정치·문화적 개발은 물론, 그 이상의 것 즉 내적 성장과 외적 성취,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통합

등의 폭넓은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근래의 세계적 추세이다.

물론 이러한 개발개념의 뒤안길에는, 아직도 정부나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을 위협시하거나 문제시하며, 그 역량을 의심스럽게 여기는 경향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 지역들과 국가들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UN전략을 기초로 하여 각국의 사회·문화·경제적 상황에 맞는 정책개발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에 착실히 노력하고 있다.

(3) 청소년 참여·개발에 관한 세계적 추세

UN을 비롯한 산하전문기구, 국제기구 및 정부간 기구, 각국정부 및 비정부단체 등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선언·결의안·지침 등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세기를 향한 변화에 대비하려고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들은 대체로, 인간중심적 개발(people-centered development),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인권과 기본적 자유(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의 보장 등으로 압축되어 있다.

특히 발전의 수단이나 결과는 결국 인간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젊은이들에게도 적절한 사회적 위상이 주어져야 하며, 그래서 사회·경제·문화부문의 개선을 위한 청소년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청소년관련정책들은 청소년 자신의 삶은 물론 전반적인 미래사회와의 개량·발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젊은이들 사이에서 창출해내기 위한 그런 분위기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청소년의 참여·개발>의 세계적 추세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몇 가지 사례가 흥미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Unesco의 청소년정책

UN산하 전문기구의 하나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청소년에게 관심을 전환하여 그들을 미래사회를 짊어질 수 있는 미래 세대로 양성하며, 청소년관련 기획이나 사업에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강화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 <참여는 청소년관련 전략의 전제 조건>이다. 어떻게 청소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어떻게 청소년과의 동반자관계(partnership with youth)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들은 어떻게 ‘동원될 수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미래를 향한 ‘젊은이들과 더불어·젊은이들로부터’(with and from young people)의 전략수립에 고심(Unesco 1997, 1998) 하고 있다.

제29차 Unesco총회에서도 중장기전략(Medium-Term Strategy, 1996-2001)의 우선집단(priority group)으로서 청소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청소년은 Unesco의 최대관심사 중의 하나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산하에 ‘청소년위원회’(Youth Council)를 구성하되, 30명 정도의 위원 중에서 절반은 30세 이하의 젊은이로 구성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Unesco는 세계 여러 나라의 참여와 협력을 얻어서, 청소년의 참여프로그램의 하나로 ‘Rounding the Cape: Listening to Youth on the Eve of the 21st Century (1996-2001)’라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한편, 국제회의에 청소년대표가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청소년대표가 참여한 바 있다.

② 아·태지역의 청소년정책

‘참여·발전·평화’를 표방했던 ‘세계 청소년의 해(1985)’의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청소년관련 주요과제들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됨으로써 UN

총회의 특별회기가 이 청소년관련 주요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1995년에 소집되었는데, 이 회의는 그 해 12월에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세계 실행프로그램’(*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 WPA*) 결의안 50/81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과 관련하여 UN총회는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지역위원회(Regional Commission)들이 자체활동계획들 속에 이 세계 실행프로그램(WPA)의 목적을 반영함은 물론 그 성과와 문제점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선정하는 지역활동들도 이 WPA와 맥락을 같이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ESCAP은 1996년 4월에 ‘아·태지역 청소년 인적자원개발 증진’(*Promot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mong youth in Asia and the Pacific*) 결의안 52/4를 채택하였고, 지역내 청소년의 상황과 청소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HRD)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관련국 고위관계자 지역회의’를 소집하였다.

이렇게 하여 ‘자카르타 실행계획(JPA)’도 ESCAP이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세 차례의 연속적인 연례회의를 개최한 끝에 1988년 제44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지역의 변화하는 요구를 반영하고 체택된 권고안들이 회원국 정부에 의해서 직접 이행되기 시작한 것도 1994년부터이다.

이 자카르타 실행계획은, 앞에서도 잠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발의 주요수단이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사람’이라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그 인적자원개발의 우선적 목표집단(priority target group)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은, 1)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investment), 2) 그 인적자원들의 활용(utilization), 그리고 3) 사람들이 향상된 삶의 질의 혜택을 향유하는 데에 참여(participation)하게 한다는 등의 세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개념 속에 청소년의 욕구와 그들의 잠재적 가능성들이 명쾌하게 인지되고 있어야 할 것이

라고 이 실행계획은 밝히고 있다.

자카르타 실행계획(JPA)의 기초가 되고 또 이를 보완해주는 세계 실행프로그램(WPA)의 기초요소는 청소년의 교육·고용 등의 10대 중점영역(10 priority areas)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WPA는 이를 각각의 영역을 실행하기 위한 계안들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NGO) 그리고 국제기구 등을 비롯하여 이 프로그램의 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들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 실행계획은 WPA가 밝히고 있는 주요과제와 조치들을 ‘지역내의 결정적인 인적자원으로서 그 역할이 중대된 청소년’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또 한편으로 ESCAP당국은 청소년의 상황과 청소년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HRD)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관련국 고위관계자 지역회의’를 개최하는 등, 갖가지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정부간 또는 관련기구간에서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③ 국가별 사례

이제 범위를 국가적 수준으로 좁혀서, 청소년개발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형태 가운데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만한 몇 가지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이 청소년을 돕는 경우(*youth helping youth*); 태국의 Chulalongkorn대학교 법률학부 학생들이 태국 아동복지협회(CWAT)가 추진하는 ‘농촌 어린이 법 알기 운동’에 참여하여 ‘젊은 농부들’(Young Farmers Group; YFG)이라고 불리는 시룹 청소년지도자들에게 법률지식을 가르친 사례이다. 대학생들은 대학교에서 배운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이를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농촌청소년은 이를 배워 그 지방의 ‘법의 수호자’로 성장하게 되며, 이들 양자간에는 끈끈한 도농(都農)간의 연대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개발도 이루어지는

복합적 효과가 있다.

둘째, 청소년들끼리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는 경우(youth-to-youth scheme); 필리핀 가족계획협회(FPOP)가 실시하는 '청소년개발 및 가족교육'(DAFLEY) 프로젝트에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청소년센터(teen center)를 찾는 청소년들에게 건강과 관련되는 교육, 특히 청소년임신 및 성경험률이 높은 필리핀의 청소년들에게 조기임신 및 조기결혼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등의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셋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간여의 경우(*interventions by youth for youth*); 인도의 청소년단체협의회(ICYO)가 실시하는 'HIV/AIDS 확산 방지운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이 분야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소속 지역사회에서 계몽활동을 벌이기도 하며, 이러한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도 함으로써 AIDS에 관한 지식도 높이고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국면에서 일해야겠다는 각오도 새롭게 하고 있다.

넷째, 직업개발을 위한 청소년들의 상부상조의 경우(*mutual assistance among youth themselves*); 베트남 청소년연맹(VYF)이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 및 고용촉진 프로그램'은 특히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고용기회와 교육기회를 주려는 프로그램인데, 성공한 청년사업가들이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소개해주고 있다. 현재 베트남 내의 성공한 사업가들 중 상당수가 이 VYF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다섯째, 지역공동체운동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경우(*youth participa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스리랑카 Sarvodaya Shramadana 전국연합'(LJSSS)은 스리랑카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국규모의 단체인데, 이 운동에 핵심적인 자원봉사자들로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농촌지역에서 그들의 노동을 일종의 '선물'로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과 나눔을 의미하는 Shramadana의 정신을 행동화한 것이다.

그들은 식수공급·용수로 건설·마을도로 개설·학교 및 마을회관 건설·공중위생시설의 건설 등에 '마을을 돋는 일손들'로서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순수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훈련된 청소년들은 전임(full-time)봉사자로 일하게 하여 지역공동체의 연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뉴질랜드청소년의 참여(*self-reliance and self-management*); '청소년개발이란 여러 가지 활동요소들이 협력하여 청소년을 지원하려는 하나의 폭넓은 접근이며 전전하고 종합적인 개발의 촉진에 초점을 맞추는 선행적 접근방식'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어른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청소년의 권리(rights to be treated as adults)가 정책적·법률적인 면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청소년단체들이나 학생대표조직, 그리고 3년에 한번씩 열리는 청소년의회(Youth Parliament)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뉴질랜드 사회·문화·정치적 구조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일곱째, 청소년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경우(*participation to the national youth policy-making*); 말레이시아 청소년협의회(MYC)는 '새로운 청소년개발정책'(NYDP)을 작성하면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철저히 검토·논의된 정책초안을 세 곳의 엄선된 중등학교 학생지도자들과 논의를 거쳤으며, 대학생들이 참가한 두 차례의 세미나에서도 논의를 거치는 등, 청소년을 그들의 정책수립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 청소년정책의 추세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개발>로 압축되어 있으며, UN을 비롯한 지역과 국가들이 이러한 정책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저마다의

실정과 수준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 청소년 고용에 관한 세계적 관심

(1) 세계적 조망

청소년의 <참여와 개발>이 세계 청소년정책의 중점주제로 부각된 가운데, 여기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 유의하고자 하는 중점영역(priority area)은 <청소년의 고용; Youth Employment>에 관한 부분이다.

1998년 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 제출된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youth; 15-25세)의 실업(unemployment; non-employment/underemployment)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세계에 걸쳐 성인의 실업률보다 아주 높다.

지금 세계에는 10억이 넘는 청소년들이 살고 있고, 이들 중 6억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소한 6천만명의 청소년들이 실업상태에 있다. OECD 국가들에서는 1997년 15-24세 집단의 실업률은 13.4%이었고, 어른들의 실업률은 5.9%이었다. 이것은 OECD 국가에서만 1천 1백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의 실업률 차이가 선진산업국가들에서보다 더 심각하다고 전하고 있다.

'Braga 청소년실천계획'의 서문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부와 권력과 수입에 있어서의 거대한 불평등에서 생겨난 불의와 소외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청소년들은 현재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부터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결과로 계속되는 정부지출의 삭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세계청소년포럼'에 참가한 이들은 '청소년 실업 문제는 심각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사회적 협력자들·시민사회단체들·UN 등에 의한 미시적·거시적 수준의 대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청소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고안·실행을 촉진·향상·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을 고려하는 전략·정책·프로그램과 활동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각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면서,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세계실행 프로그램'(WPA)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Lisbon선언문'을 채택한 각국의 장관들은, 이러한 청소년 고용현실을 고려하여 '직장과 수입에 대한 청소년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완전고용이라는 궁극적인 사회적 목표'를 천명하였다.

이들은 청소년을 위하여 평등한 고용기회를 촉진하되,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기업·교육기관·시민사회기구들의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향상시키며, 청소년실업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키고, 청소년에게 기업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을 위해 노동조건과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선언하고 있다.(정희욱, 1998)

이와 같이, 청소년고용문제가 심각한 만큼 세계적 관심도 높아가고, UN을 비롯한 지역들과 국가들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이 분야의 세계적 추세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2) 아·태지역의 사례들

① Beijing 선언

청소년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과 국가들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는 '아·태지역 청소년인적자원개발 회의 및 베이징 선언'(Asia-Pacific Meeting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Youth,

22~26 October 1996, Beijing/ *Beijing Statemen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Youth in Asia and the Pacific*)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26개 회원국대표와 민간단체대표들, UN 정책총괄 및 지속개발부(DPCSD),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인구기금(UNFPA), 세계보건기구(WHO)등이 참석한 이 회의는 ESCAP 주최로 열렸다.

이 회의는 '아·태지역 청소년 인적자원개발 중진'에 관한 위원회 결의안(52/4)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회의의 구체적인 목적은 'ESCAP 지역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자카르타 실행계획'(JPA)과, 199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세계 실행프로그램'(WPA) 등과 관련하여 이 지역내 청소년들의 상황과 정책 및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검토하며 청소년 인적자원개발(HRD)의 중점영역(priority areas)에 대한 지역협력방안을 작성하는 일 등이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는 아·태지역 청소년 인적자원개발 상황과 이의 중진정책 및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의 교육·보건·고용·참여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에서도 <청소년 고용문제>가 깊게 다루어졌다.(이철위, 1998-5)

② 아·태지역 청소년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청소년의 실업(unemployment)과 불완전 고용(underemployment)은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서, 모든 사람의 고용기회를 창출해내려는 이 거대한 싸움터의 한 쪽에 청소년 고용문제도 자리잡고 있다.

ESCAP지역의 실업은 우선 청소년 실업률이 어른 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수년 동안에 날로 늘어만 가는 '교육받은 사람들의 실업문제'에 대하여 적지 않은 관심들이 개진되어 왔었지만, '교육여부와 상관없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순전히 고용기회의 부족이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다.

이 지역 청소년이 다른 어른 세대들 보다 훨씬 높은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그 첫째는, 노동시장에 갖 들어온 청소년이 받은 교육내용이나 기술수준이 고용주의 요구조건과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는, 특히 공업화된 선진국들이나 태평양 일부지역의 경우,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수준 때문에 고용주들은 노동시장의 신참내기 청소년들을 채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셋째, 고용주들이 인정하는 기술수준이나 고참 숙련인력에 대하여 갖고 있는 경험적 가치비중은 충원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게 마련이라는 점 등이다.

청소년실업의 위기는 젊은이들의 기회의 위기(crisis of opportunities)를 넣어 마련이다. 실업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참여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으로서의 편의시설과 주택을 독자적으로 마련할 기회를 가질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지역내 많은 나라에서 성행하는 조혼(남아시아의 경우 거의 여자의 80%, 남자의 40%,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여자의 50%, 남자의 30%가 24세 이전에 결혼함)은, 그런 가정을 이끌 젊은이들의 실업문제를 고려할 때 이는 심각한 경제적 과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실업상태는 젊은이들에게 큰 폐해를 끼치는 사회적 병폐를 광범위하게 불러일으키기 쉽다. 그러한 병폐란 예컨데 기술개발의 부족 · 낮은 자부심 · 주변인화(marginalization) · 협약함 · 방대한 인간자원의 낭비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히 ESCAP지역내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도시지역에서 심각한 실업상태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도시지역의 실업사태는 우선 지방에서 이주해 온 청소년에게 실직의 고통을 안겨주고, 점차 이 취약한 하위집단들에게 불안정 · 부적응 · 좌절감 등을 더하게 된다. 도시의 청소년들 보다 교육이나 기술이 뒤떨어지는 지방청소년들은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국가나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도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직업계층상의 최하위급에 머물게 되고 만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목에서조차 발언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 이들은 실제로 기계화와 자동화 시대에 가장 역행하는 하위집단으로 몰락해가는 것이다.

ESCAP 지역에서 노동력의 규모는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이나 태국, Singapore 같은 소수의 ESCAP 국가들에서는 앞으로 20년 이상 청소년 노동력의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지만,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1955-1985년 사이에 매년 평균 2.1%로 상승하던 것이 1985년-2015년 사이에는 연평균 2.3%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동력으로 편입되는 청소년의 수효가 Bangladesh, Pakistan, Philippines같이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인 반면, 한국이나 태국, Singapore 같은 나라들에서는 그 반대현상이 예상되는 테,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30년 이상 이 지역의 전반적인 노동력은 거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청소년 노동시장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국제노동기구(ILO)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전세계적으로 1억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그래야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활동성이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밖에도 열악한 처지의 하위집단들 - 예컨데 소녀와 젊은 여성들·장애청소년·청소년 난민·해직청소년·집없는 아이들·토박이와 이사온 청소년·청소년 외톨박이 등- 의 절박한 상황에 시급히 관심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고용의 문제는 최근 수년동안 세계경제의 침체 때문에 더욱 악화되어왔고, 그것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를 맞고 있다. 그렇다고 경제성장이 반드시 고용기회의 확대를 동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여 가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자카르타 실행계획(JPA)은 노동력활용을 위한 투자정

책을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정책에는 비공식적 경제활동이나 소규모 가내공업과 같은 것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자영업이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적절한 교육과 기술훈련을 포함하여 현재 이 지역의 노동환경에 기초를 둔 노동력의 활용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③ Beijing 선언의 내용

‘아·태지역 청소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베이징 선언’(Beijing Statement)은 이러한 청소년 고용상황을 염두에 두고 발표된 것이다.

이 회의는, ESCAP 지역내 여러 나라의 청소년실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노동력 과잉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이 청소년을 흡수해주지 못할 것이 명백한 실정인데도, 교육체계는 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을 해야하는 짐을 짊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교육받은 청소년의 실업률이 높은 몇몇 국가들에서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의 개발이 관심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

‘Beijing 회의’에 참가한 회원국 및 협력회원국 정부대표와 민간단체 대표들은 아태지역내에서 청소년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도전을 검토함에 있어서 ‘자카르타 실행계획(JPA)’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계획은 인적자원개발을 구성하는 세 가지 상호의존적인 요소들, 즉 생산능력 향상을 위하여 인간자본에 투자(investment)하고, 그러한 인적자원을 보다 증대된 수확을 얻어내기 위해서 활용(utilization)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 수확의 결과를 되돌려 주어 소비(consumption)하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청소년이야말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우선적인 목표집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세계 실행프로그램(WPA)’도 지침으로 삼았는데, 이 계획은 청소년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드높이기 위한 통합된 활동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 계획이 제안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중점영역 가운데 특히 아·태지역과 관련하여서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특별한 관심분야로서 교육·보건·고용·참여의 네 가지 영역을 주의깊게 다루었다.

이들 가운데 <청소년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직업세계를 위한 청소년의 준비>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 제안은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도입·강화하고 교육과정 속에 청소년들이 그들의 진로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활동으로는 1) 청소년들의 요구평가조사(needs assessment survey)를 통한 선택적인 진로·직업탐색체계에 관한 조사연구, 2) 정부와 민간단체의 청소년관계요원은 물론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및 카운셀링에 관한 지도자양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3)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운다'는 개념을 조장하기 위한 교육기관과 민간부문간의 협력, 4) 진로교육과 직업지도 및 카운셀링을 위한 교과과정과 학습용구의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Beijing 선언은, 다음으로 <청소년 교육·기술과 취업과의 연계>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 제안은 청소년에게 전수된 고용기술을 변화하는 노동시장 속에서의 고용기회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 주요활동으로는 1) 노동시장의 메커니즘에 관한 각국 경험의 공유, 2) 청소년의 자영업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과 정부부문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과, 이에 관한 정보교환의 촉진, 3) 청소년의 창업의지를 촉진·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계획 개발을 위한 지역회의 개최, 4) 청소년의 소득발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회전기금(revolving fund)의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④ 고용촉진을 위한 아·태지역 각국의 사례

아·태지역내 각국은 이러한 청소년고용문제의 심각성과 긴박성에 부응하여 자국의 경제·사회적 정황과 교육·기술의 수준 등에 걸맞는 청소년고용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그 예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베트남의 ‘기술개발 및 고용촉진 프로그램’ (*Skills Development and Job Promotion Programmes*) : Hanoi에 위치한 민간단체, 베트남 청소년연맹(Vietnam Youth Federation; VYF)은 베트남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 연맹의 활동은 지방의 청소년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 지급·재정적 지원·신용 대부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용기회는 물론 교육기회를 주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38개의 도시와 지역에 장학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17,706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연맹은 총 5,930억동(Dong)을 투자하여 2,935종의 청소년을 위한 사회·경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에는 53개 도시 및 지역의 10만여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다.

연맹(VYF)은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서, 보다 직접적으로 적절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맹은 기술 훈련과 고용촉진을 위해 200여개의 사무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며, 92,000명의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이 혁신적인 이유는 단순히 기술교육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시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여러 능력들을 함께 가르치는 데에 있다.

지방청소년들의 요구에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맹은 영농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준비해놓고 있다. 농촌의 청소년들이 농사에만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농한기에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지방청소년들은 일자리가 필요한 때에 곧바로 취직이 될 수 있을 만큼 시장성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체로 없기 때문에 연맹(VYF)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이 청소년들의 노동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다.

베트남 청소년연맹은 지방청소년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이루고 그들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하여,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놓았다. 또한 농촌 청소년들의 요구에 대한 연맹의 대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원봉사단(Youth Volunteer Teams; YVT)을 발족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목적 중에는 직업이 없는 지방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램 중에, 지방청소년들은 자원봉사단(YVT)에 가입하여 가축 기르기, 조림 등의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탁된 지역으로 파송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험작업들을 3년에서 5년 가량 한 뒤에, 원한다면 기간을 연장하여 그곳에 머무를 수도 있다. 지방청소년을 위한 이러한 민중운동(grassroots movement)은 14개 도시와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15만명의 청소년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이들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연맹(VYF)은 이제 막 자영업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성공한 청년사업가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소개해 주며, 사업자금도 대출해 주려는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직업 개발을 위해 청소년들 스스로 상부상조하는(*mutual assistance among youth themselves*) 요소도 담겨 있다. 성공한 동료의 생생한 경험담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목할 것은, 현재 베트남 내의 성공한 사업가들 중 상당수가 실상은 청소년연맹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이들이라는 점이에서 받은

온혜를 되갚는 셈이다.

연맹(VYF)은 현재 베트남 국민들이 너나없이 보다 나은 경제적 환경을 이룩하려는 분위기를 잘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사회·경제개발사업 현장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가난한 지방민들의 복지에 필요한 사회기간시설 건설에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개발사업에 청소년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농촌의 무직 청소년들이 결과적으로 고용기회를 얻게되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돋보이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연맹(VYF)은 그 재정 상태를 견실히 하는 데에도 성공적이었는데, 이제는 특정 프로그램들을 위한 기금도 증가되어서 장학금 수혜자의 수효와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되는 포상금도 늘어났다.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은 여러 단체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연맹의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솔로몬제도의 기술개발 프로그램 (*Skills Development Programme*) : 솔로몬제도 청소년협의회(National Youth Congress of Solomon Islands; NYC)는 솔로몬제도의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준정부 단체(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이 단체의 주된 활동은 청소년개발에 쓰일 기금운용사업인데, 이는 특별히 학교를 떠나 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농촌지역에서 소득증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이를 진행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개인기업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수년 전부터 실시되었고 그 여파는 아직도 남아있는데, 청소년협의회는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조직적인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협의회(NYC)가 청소년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15-20세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취업을 위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기술개발 프로그램(National Skills

Development Programme)이라는 것이 있다. 이 훈련과정에는 기계·전기·목공·배관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학계획을 통한 기금의 제공이라든지 취업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지원 그리고 면접시험을 치루기 위한 훈련 등도 이 코스의 중요한 내용이다.

NYC는 경제적인 면에서 교육훈련과 지원을 위해 개인기업들과 잘 연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Solomon Telecom Company같은 곳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해 전자 부문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공적이건 사적이건 간에 훈련이 취업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특히 사적인 차원에서는 기왕에 받은 훈련이 취업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일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⑤ 인도의 Barefoot College

농촌청소년들이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에게서 실용적인 기술을 전수 받는(*given by their peers*) 모습은 인도의 'Barefoot College'에서 볼 수 있다.

1995년도 ESCAP의 HRD(인적자원개발부문) 대상이 이른바 'Barefoot College'(멘발대학)에 주어짐으로써 더 잘 알려지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 멘발대학을 주도하고 있는 인도 Rajasthan의 'Tilonia 사회사업 및 연구 센터'(Social Work and Research Centre of Tilonia)가 수상한 것이다.

Barefoot College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심사위원단에 의해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심사위원단이 1995년도 대회를 위해 특별주제로 삼았던 '청소년 고용증대'를 위해서 이 멘발대학이 실시한 혁신적 프로그램에 특별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Barefoot College는 젊은이들이 그들 또래의 젊은이들에게서 실용적인 기술들을 전수 받는(*given by their peers*) -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훈련기구이다. 이곳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와 적용 범위는 지역 주민들에 의

해 결정된다. 이 학교의 교사들도 인근지역 주민들이며,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것이 지역 주민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주목할만한 업적이 이 맨발대학에 의해 이룩되었는데, 그것은 이 대학을 마친 2대에 걸친 교사와 의사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지금은 그들의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때는 ‘취직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이 졸업생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생산적 구성원으로 탈바꿈되었다는 말이다.

농촌 청소년들은 소년·소녀들을 위한 학교들을 경영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고용되고 있는데, 훈련 캠프와 웍샵들이 이 젊은 기능인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설되고 있다. 또 기사나 기계공으로 훈련된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조명을 공급하기 위한 태양전기 시스템의 설비 및 수리, 180만 이상의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수동 펌프의 설치 등과 같은 서비스를 맡고 있다.

1972년 아래로, 모두가 맨발대학 졸업자들인 농촌 청소년들에 의해 이 지역에는 약 1300개의 수동 펌프가 설치되었고 또한 관리·유지되고 있으며, 문자해독교육을 실시하는 약 80여개의 야간학교들도 이 졸업생들이 설치한 태양 전기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1995년도 ESCAP HRD 대상이 Barefoot College에 수여됨을 통하여, 이 대학의 혁신적인 활동이 인도는 물론 ESCAP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생산적인 청소년고용 증진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고무하는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혁신적인 교육을 위한 PROAP : 많은 개발도상국의 교육체제는 어린 청소년졸업생들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교육관계자들은 유리한 자영업이나 시장성 높은 기술에 대한 잠재력을 개발하기보다는 임금고용을 위한 동기부여에 더 강한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정부 기관에서조차 그러한 태도가 발견된다. 지방에서 교육받은 청소년의 대부분은 직업을 찾기 위해 도시로 몰려들지만, 그들의 대다수는 느린 경

제성장과 인구의 증가 때문에 선뜻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인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만큼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기회나 여건이 주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UNESCO Principal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PROAP)는 1989년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업적성 증진을 위한 혁신적 교육 통합프로그램'(Joint Innovative Project on Education for Promoting the Enterprise Competencies of Children and Youth)에 착수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초등 및 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이 직업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또는 그들의 노동시장을 위해서나 혹은 그들 자신의 소규모 자영업 점포관리에 필요한 경영능력을 갖추게 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적이고 쓸모 있는 젊은이들, 즉 창조적·혁신적·자립적이고 분별력 있으며 모험적 도전자를 만들어 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그 실험적 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에 인도네시아에서 실시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오로지 농촌지역의 가난하고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다. 그 활동은 전행 중인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과 통합되어 두 가지 학습단위로 이루어졌다. 그 중 하나는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초등교육 수준까지, 또 다른 하나는 그 이상의 사람들을 중등교육 수준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학습단위(1-20)가 진행되는 동안 적은 양의 돈(미화 5\$)이 이들에게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야체장사와 같은 아주 작은 가게를 시작하는 데에 충분한 것이었다. 나중에 소득을 위해 일해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삶의 실질적 문제들에 중점을 둔 이러한 실습을 통하여, 배움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기업경영 기술의 기초가 개발되었다. 이 학습단위를 마친 이들에게는 협동조합으로부터 2%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음식물·제조식품·바나나·해조류·장작·기념품 등 다양한 형태의 제조업이나 상점을 보다 큰 규모의 업체로 일구어 낼 수 있게 하였다. 이들 업체운영을 지도했던 프로그램 촉진자들은 서로 다른 사업분야들(공업·상업·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에서 투입된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 지역 전문가나 마을의 어른들, 그리고 지역사회교육 담당자들과 협력하였다.

그 결과, 기업경영에서 자금조달은 결정적인 것인데도 영리를 추구하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제한되었다. 또 기업경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지식과 수완을 얻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은 참가자의 소득을 증대시켰고, 기초교육(대출을 얻는 데 전제조건임)에의 참여와 성취 의욕 등을 북돋았다. 자금을 관리하고 늘리기 위한 협동조합의 활용은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위에서 몇 가지 흐름과 사례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세계의 각 지역과 국가들은 저마다의 실정과 수준에 맞는 청소년고용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least developed country)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각국의 실정에 맞게 독특한 교육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청소년직업준비활동 프로그램들을 개발·실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각국이 청소년 고용 촉진과 보호에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청소년 자신에게는 일할 권리를 향유하게 되는 것이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는 것임은 물론, 국가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의 고용촉진과 보호>에 대한 관심 - 그것은 우리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결코 제 2선에 밀려있을 수 없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는 말이다.

2.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 촉진 및 보호에 관한 사례

청소년의 고용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 다루고 있는 부분은 파트타임 고용(part-time employment)이다. 앞에서 파트타임 고용과 관련된 이론과 실태를 살폈고, 본 장의 전반부에서 세계적 청소년 고용정책의 흐름을 조망하였으므로, 이곳에서는 청소년 파트타임의 고용 촉진과 보호를 위하여 각국은 어떤 정책과 제도,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의 검토는 곧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책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사례들이 각국에 산재해 있고, 그것들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 변모도 하면서, 청소년과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파트타임 영역이 다양하고, 각국의 사정이 각각 서로 다르며, 청소년의 관심과 사회의 요구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책수립에 참고할 만한 것 중 몇 가지 사례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역 및 국가들의 노력

(1) EU의 청소년고용계획: Youthstart

청소년의 고용을 창출하고 보호하려는 세계 각 지역의 노력을 중에서 유럽연합(EU)의 노력은 'Youthstart'에 잘 나타나 있다.

Youthstart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여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EU회원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혁신적인 '전유럽 계획'(European wide Initiative)의 하나이다.

현재 유럽에는 5백만명 이상의 16-25세 청소년들이 정규 교육이나 훈련을 이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연구조사는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은 장기실업상태에 빠져있거나 사회적 활동 면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실업과 사회적 소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고용계획'(EU Employment Initiative)의 필수적 과제의 하나로 Youthstart를 내놓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서 자격조건의 미달이나 학력 및 훈련경험의 부족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EU회원국들 속에서 청소년의 직업훈련과 고용을 보장하려는 장기목표를 추진하는 축메역할을 Youthstart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목표는 회원국들의 창의적인 직업훈련 모형과 체계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인 바, 다소 가상적인 계획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현재 유럽사회에서는 EU나 각국의 정책, 그리고 청소년들의 이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하여 이 계획은 실체화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소개한 아·태지역의 노력과 함께 청소년고용개발을 위한 지역적 노력의 또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http://www.iolie/EMPLOYMENT/youthstart/index.html>)

(2) 미국 연방정부의 학생 고용창출 프로그램

① 학생 교육·고용 프로그램: SEE

'학생시절에 가치 있는 일도 경험하고, 용돈도 벌어라!' 미국 연방정부가 인터넷 사이트에 '학생 교육·고용 프로그램' SEE(Student Educational Employment; SEE)를 소개하면서 그 서두에 띄워놓은 말이다.

SEE는 미국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학생대상의 고용창출제의 하나인

데, 이는 미래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능력 있는 학생들을 찾기 위해 학교 수업과 일(school and work)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학생들의 성과에 따라 나중에 학생인턴제도나 장학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종래의 미국내 학생고용 프로그램들(e.g., Cooperative Education, Federal Junior Fellowship, Stay-in-School, Summer Aids Program 등)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서, 학생들이 참여한 일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rewarding)이 있도록 장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고등학교 이상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미국령 소속의 시민으로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자, 미국 이민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라면, 어떤 학위과정의 학생이든지 모두 가능하다. 다만 최소한 시간제(half-time)수업 이상의 과정에 등록되어 학적을 보유하여야 하고, 연방법 혹은 주정부 법에서 정해놓은 최소 취업연령(이는 주정부마다 서로 다르다)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EE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임시고용제(student temporary employment)'와 '직업경험제(student career experience)'가 그것이다.

임시고용제는 학생의 전공이 무엇이건 상관하지 않으며, 잡역에서부터 직책이 있는 일거리에도 종사하는데,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적인 학생 파트타임 고용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직업경험제는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일을 재학중 일정기간 동안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참가하는 학생 자신과 학교, 그리고 채용하는 연방정부 기구 사이에 일정한 약정이 맺어져야 한다. 학교가 이 제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만약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업과 일을 모두 마치게 되어 직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정식으로 고

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이다.

학생들은 SEE 프로그램에 연중 언제라도 참여가 가능한데,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 자신의 학사일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면 학교 취업지도실(school guidance office, career planning and placement office)이나 교사에게 문의하면 되고, 연방정부 산하의 고용안내소(employment office) 등을 방문하거나 정부의 관련 웹사이트(OPM Website)에 접속하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SEE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에 대한 전망은, 결코 손쉽게 연방정부 및 그 산하 기구에 정식으로 고용되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나 산하기구도 고도의 경쟁력과 능력을 갖춘(highly competitive and talented) 인재를 요구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정부 내에 일자리도 그리 풍족하지 않고, 취업경쟁률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이나 전문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주저함이 없이 실력 있는 인물들을 계속 충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뜻있는 청소년이라면 이 프로그램에 많이 지원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에게는 일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주어서 생활과 학업에 보탬을 주고, 이런 과정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정부기구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하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② 협동교육 프로그램: Co-op

미국 연방정부에 의한 ‘협동교육프로그램’(Co-operative Education; Co-op)은 위에서 소개한 SEE 프로그램의 일환인데, 연방정부 인력충원의 주요 원천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갖가지 재능을 가진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육기관과 다양한 연방정부기구들 사이에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 협력 프로그램(work-study partnerships)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에게는 적절한 직업경험 기회를 주어서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고, 정부기구에게는 장래의 노동력을 개발·확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재학 중에 양질의 유급 인턴쉽을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얻은 셈이며, 또 졸업 후에는 연방정부기구에 취업이 보장된다는 행운을 잡은 셈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고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위의 SEE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일의 선택이 가능하고 part-time이나 full-time을 위한 일정조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참여 학생들에게는 병가나 휴가가 허용되며, 의료보험이나 생명보험 가입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Co-o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길도 SEE에서와 같이 학교의 취업지도실이나 교사, 연방정부 산하의 각 지역의 고용안내소, 그리고 OPM 웹사이트를 통하여 장치되어 있다.

③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고용 프로그램: Summer Employment

미국 연방정부는 방학을 이용하여 일자리를 얻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전국에 다양한 일용직 부업거리를 마련하여 이를 알선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쉽도록 인터넷 검색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USAJOBS')에서 각종 부업정보와 고용조건, 지원서 양식 등을 받아볼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전화자동응답시스템(Automated Telephone System: ATS)을 활용할 수도 있게 장치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지원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일할 곳이 결정되면 해당 기관과 직접 협의해야 하는데, 경쟁이 심하므로 다른 곳들에도 지원해둘 필요

가 있을 정도이며, 주(state)에 따라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고용을 금지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한번 채용되어 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이듬해에 다시 그 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면 경쟁 없이 재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받게 되는 급여는 공통적인 액수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학력과 경험유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이 프로그램은,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으로는 꼭 유익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④ 학생자원봉사활동: SVS

미국 연방정부의 청소년 고용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가운데에는,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과는 그 성격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그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보수 없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전문직업을 경험하게 하는 학생자원봉사활동(*Student Volunteer Service; SVS*)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미국정부는 보수 없이 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응급구조, 장애자 고용인 보조, 학문적 목적을 위해 일하는 학생, 국립공원이나 국유림 등에서의 자원봉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SVS는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참여하여, 자신의 전공이나 학과과정, 전문분야 등과 관련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될 경험(experience)을 쌓게 하려는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의 일에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직업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게 하는 SVS는, 학생들에게 별도의 보수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직업(진로)의 탐색, 새로운 전문직종에의 도전, 자신이 수행한 일에 대한 학점인정, 직접적인 실무경험을 통한 취업에의 대비 등과 같은 유익함이 뒤따른다고 생각하면 이는 금전적 보수에 못

지 않은 이득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A Win-Win Experience'라고 부르고 있다. '꿩 먹고 알 먹고'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 학생의 파트타임 일거리로는 제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프로그램에는 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교), 교육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최소한 시간제수업 이상에 등록한 재학생이면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일하기를 원하는 연방정부 해당기구의 담당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면 되고, 자신의 학교 취업지도실 등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가 결정되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전문 프로젝트나 작업에 투입되는데,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일할 수 있는 분야는 주(state)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학생이 다니는 학교나 그 지역의 담당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일터를 배정받게 되어있다.

실제로 일하는 기간은 평균 3-4개월 정도인데, 학기 중이건 방학기간 이건 학생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언제나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⑤ 학생 인턴쉽 프로그램

미국 연방정부는 다양한 배경의 능력 있는 인재를 고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인턴쉽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의 사례만 소개하고 그 밖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은 목록만을 소개한다:

- *Hispanic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ies' National Internship Program (HNIP)* : 대학·대학원에서 최소한 평균 3.0/4.0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비교적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교)내 스페

인어 사용자 협회(HACU)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연방정부의 인턴쉽 프로그램(HNIP)의 하나이다.

연방정부는 학생들이 재학 중에 관심 있는 일터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졸업 후에 취업의 기회를 갖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 사업의 일환이다.

참여 학생의 전공이나 취업경험, 사전교육 정도 등에 따라 업무가 주어지는데, 보통 하절기인 6~8월에 10주간을 근무하지만 가을~봄의 기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급여는 참여 정부기관의 지원으로 지급되는데, 이 급여 가운데에는 워싱턴 등지의 근무지까지 가는 교통비, 의료보험료 등을 포함한 \$390~\$510 정도이며, 대학기숙사를 유료로 소개받을 수도 있다.

HNIP 인턴이 되면 그는 HACU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연방정부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되는데, 업무 스케줄은 그 기관과 협의하며, 시간외 수당이나 휴가, 실직수당 등은 없다.

(<http://www.usajobs.opm.gov> <http://www.opm.gov/employ/students/index.htm>
<http://www.hacu2000.org>)

그 밖에 연방정부가 참여하는 청소년 고용창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Congressional Hispanic Caucus Institute's Fellowship Program (CHCI)
- Presidential Management Intern Program (PMIP)
- Minority Leaders Fellowship Program (MLFP)
- Workforce Recruitment Program for Collage Student with Disabilities (WRP)
- White House Fellows Program
- Asian Pacific American Institute for Congressional Studies' Summer Internship Program

- Organization of Chinese-Americans' Congressional and Government Internships
- Washington Internships for Native Students (WINS)
- INROADS/Greater Washington Internships
- NAFEO Services, Inc. Summer Intern Program
- AISES Student Summer Work Experience Program
- Women in Public Policy Internship Program (WIPP)

(3) 캐나다 연방정부의 학생고용정책

캐나다 연방정부는 청소년·학생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정책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연방정부는 1990년에 ‘학생고용정책’(*Student Employment Policy*)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은 연방 국가재정위원회(Treasury Board)가 고안하여 내놓은 프로그램으로서 ‘연방정부의 학생고용 프로그램’(*Student Employment Program in the Federal Government ; SEP*)으로 불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학생고용프로그램’과 ‘무보수 학생협동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있고, 이 SEP사업의 일환으로 캐나다 문화재관리국(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이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유산 참여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학생고용프로그램: *Student Employment Program*

캐나다 연방정부의 ‘학생고용프로그램(SEP)’에는 ‘학생 직업경험 프로그램’ ‘협동 및 인턴쉽 프로그램’ ‘연구제휴프로그램’ ‘국제교류프로그램’ 등이 있다.

- 학생 직업경험 프로그램(FSWEP) : 캐나다의 ‘학생 직업경험 프로

그램'(Federal Student Work Experience Program; FSWEP)은 연방정부의 학생대상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서, 1990년 아래로 매년 9,000건 이상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FSWEP)은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맞는 직업경험을 재학 중에 쌓고 (반드시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종만 선택하는 것은 아님),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자금도 지원 받으며, 졸업 후에는 취업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게 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도 익히도록 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연방정부 소속기관에의 취업 기회도 확대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공공서비스고용법’(the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에 따라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of Canada)가 모든 사업수행을 관장하며, 이 위원회는 안내책자와 인터넷 등에서 직종이나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참가지원서를 학생 자신이 직접 이 위원회에 제출한다.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이면 참여자격이 있는데,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는 학업성적을 반영할 최저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만 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학기 중에는 part-time 고용만 가능하고, 방학중에는 part-time이나 full-time 고용 모두가 가능하고, 일하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학생신분이 계속되는 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의 내용이나 보수는 SEP계획에 따라 책정하여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적용하는데, 그 내용과 액수는 ‘연방 국가재정위원회’가 책정한 ‘학생고용 기간 및 조건 규정’(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for Students; TCES)에 따라 매년 새로이 발표하고 있다.

- 협동 및 인턴쉽 프로그램(Post secondary Co-op/Internship

Program) : 캐나다 연방정부가 1990년 이후 매년 4,0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협동교육 및 인턴쉽 프로그램으로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턴쉽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자신의 전공지식을 실제 직업현장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전공분야에서 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 학교들은 학생을 배치하는 일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당국의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도 한다. 고용주와 학생과 학교당국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참여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직접·간접으로 참여하여 감독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고등교육과정학생(post-secondary)만 지원이 가능한데, 학생들은 반드시 이 인턴쉽 경력에 대하여 졸업이수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인정된 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캐나다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이러한 인정된 기관과 그 프로그램 내용들을 자세히 제공·안내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은 각 학교에서 결정하는데, 대체로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서 일년이내의 기간동안 캐나다 내의 600여 인정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체로 full-time으로 일한다.

협동과정(co-op)은 전통적으로 4개월 정도 실시되고; 인턴쉽(intership)은 4-18개월 정도로 다양한데,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관계자는 학교의 제안에 따라 학생에게 연속적인(back-to-back) 근무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보수는 FSWEP 학생들과 같은 수준과 방법으로 지급된다.

· 연구제휴 프로그램 (Research Affiliate Program) : 이 '연구제휴프로그램'은, 특히 졸업을 위해서 응용연구(applied research) 분야의 기회·실행·평가 경험이 요구되는 고등교육과정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 다른 한편으로는 캐나다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를 돋고, 지적 자산

과 특허권(intellectual property and patents)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며, 정보의 이용을 조정·통제하고, 과학적 연구조사결과들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연장정부 시설에서 현재 진행중인 연구작업에 배치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학생의 전공학위와 연관되어야 하며, 학생의 전문지식과 연구업무 수행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는 실험실이나 현장연구기관 등의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참여해야 한다. 참여기간은 SEP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한이 없으나, part-time만 가능하고, 주당 평균 최고 25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보수와 같은 성격의 연구장학금(stipend)은 TCES 규정에 따라 매년 새로 발표하고 있다.

· 국제교류프로그램(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 캐나다 연방정부의 SEP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교류프로그램'은; 간접적으로는 캐나다 고등교육과정학생들에게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제적 업무수행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의도 지니고 있긴 하지만; 해외에서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실시하는 개발 프로그램 (developmental assignments)에 참여하기 위하여 유학 온 고등교육과정학생들을 도움으로써 좋은 국제관계를 형성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외국의 학생을 자국내의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은 청소년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돋보이는 계획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참여자격은 캐나다에서 일하는 데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외국인 고등교육과정학생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대체로 12개월 정도를 full-time으로 일하며, 그 밖의 보수나 행정 절차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같다.

② 무보수(Non-paid assignments) 학생협동교육 프로그램

캐나다에서의 모든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는 '캐나다 기업·교

육간 협력을 위한 윤리지침 협의회'(Conference Board of Canada's Ethical Guidelines for Business Education Partnerships)에 가입되어 있다. 이 자침의 정신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은, 학점인증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사전에 급료·수당·연구장학금·사례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보수로 학생을 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중등교육과정의 학생청소년들에게 무보수 '학생협동교육 프로그램'(Secondary School Co-op Educational Program)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인증(academic credits)을 받기 위한 중등교육과정 학생들에게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Co-op 프로그램은 '국가재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작업습관·책임감·필수적인 직업기술·직업적 가능성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작업과정이 전국적으로 정착되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중등학교에서 학술적으로 Co-o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거나, 학교행정당국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만학도가 졸업을 위해 무보수 훈련과정이 필요한 경우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학교 측에서 이 프로그램 참여를 알선하여 참여하게 되며, 이 경우에 '공공서비스위원회'는 간여하지 않아도 된다.

참여 학생은 대체로 학기 중의 4달 정도를 part-time으로 일하며, 하루에 반나절정도를 일하는데 근로시간을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물론 보수는 지불하지 않으나 TCES 규정의 범위 내에서 관리자는 학생에게 교통비 정도의 수당(travel allowance)은 지급해도 된다.

③ 청소년 문화유산참여활동: Young Canada Works

캐나다 연방정부의 문화재관리국(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에서는 ‘캐나다 청소년고용전략’(*Canada’s Youth Employment Strategy*)’의 일환으로 5년째 ‘청소년문화유산참여활동’(Young Canada Works; YCW)을 진행 중이다. 문화재관리국은 전국 또는 지역사회에서 민간영역과 제휴하여 캐나다의 젊은이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간 2,500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소득의 기회도 주면서 주요분야에서의 실무경험도 쌓고, 학교에서 일터로의 진출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YCW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젊은이들에게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캐나다가 이룩한 업적들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심어주며, 캐나다인 간의 또는 캐나다연방 각지역 간의 유대와 일체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YCW는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4개는 고등학교 (high school)와 고등교육과정 학생들의 방학중 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고, 2개는 대학생들의 인턴쉽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다.

-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과정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 제 2 공용어 사용가능 학생을 위한 YCW : ‘제 2 공용어 사용가능 학생을 위한 YCW’(*YCW in Both Official Languages*)는 영어와 불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대학(교)생들에게 제 2 공용어도 익힐 겸 자신의 학교공부와 관련되는 영역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기업이나 NGO 또는 NPO(non-profit Organization)가 조성한 기금의 지원을 받아 다른 지방에 가서 일하게 된다. 영어문화권 학생은 불어문화권을, 불어문화권 학생은 영어문화권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 역사 · 문화유산활동에 참여하는 YCW : ‘역사 · 문화유산활동에 참여하는 YCW’(*YCW in Heritage Institutions*)는 캐나다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배우려는 16-30세의 학생들에게 다른 지방에 있는 박물관 · 자료전시

관·도서관 등에서 연구활동·유물보존·전시작업 등의 일을 돋겨 함으로써 일을 통한 경험 쌓기(on-the-job experience)를 도모하는 한편, 캐나다와 캐나다 국민에게 자신의 노력을 쓸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국립공원 및 국가역사유적지 활동에 참여하는 YCW : '국립공원 및 국가역사유적지 활동에 참여하는 YCW'(National Parks and National Historic Sites)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각지의 미리 선정된 국립공원이나 국가역사유적지 등에서 여름동안 일하면서, 주로 방문객안내나 유산보호작업, 특별행사기획 등의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다른 지방에 가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서로를 알고 캐나다의 풍부한 다양성도 배운다.

· 도시거주 원주민청소년을 위한 YCW for Aboriginal Urban Youth : '도시거주 원주민청소년을 위한 YCW'(YCW for Aboriginal Urban Youth)는 도시에 거주하는 원주민청소년들이 캐나다 전국의 123개 '원주민친선센터'(Aboriginal Friendship Centre)와 협력단체들에서 도시원주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300가지 이상의 하절기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이들 원주민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삶을 영위할 기술을 개발하고 그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http://canada.gc.ca> <http://www.youth.gc.ca>)

④ 프랑스의 새로운 '청소년고용' 서비스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고용 창출과 개발을 위하여 법률을 토대로 1997년 새로운 '청소년고용' 서비스 프로그램(New 'Youth Employment' Services)을 작성·추진 중이다.

이 청소년고용 서비스 프로그램은,

첫째,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있거나, 프랑스의 각 지방에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일 등에 대하여 새로운 활동을 창출·개발하고, 둘째, 2000년말까지 약 35만명의 청소년들을 이

활동들에 참여시켜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관련된 직업경험을 쌓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회적으로, 특히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미개척분야의 파업도 해결하고, 여기에 청소년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촉진하여 청소년 고용 및 직업경험의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게 하려는 ‘새로운(new)’ 전략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이 참여하는 영역은 비상업적 부문이다: 지방 정부, 공공법인체, 협회나 재단 등의 NPO,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사단법인 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청소년들은 이미 있는 직종이나 일자리에서 직무대리인격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문인 양성 및 새 고용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새 분야·새 자리에서 일하게 한다는 점에서 특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new)’ 면모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새로운 일을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호기심과 자부심을 줄 수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청소년고용 프로그램에는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받지 않은 26세 이하의 젊은이들이거나, 30세 미만의 장애인 또는 전문직 경험이 4개월 미만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고, 60개월간의 고용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데, 국가에서는 1년에 한 일자리(job position) 당 98,043프랑을 지원하고 있으며 5년마다 그 예산을 증액할 계획으로 있다. (http://www.nsej.travail.gouv.fr/index_en.html)

⑤ 아일랜드 정부의 ‘학생 부업지원계획’

아일랜드는 파트타임 고용제도를 반드시 청소년에게만 국한시키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복지차원에서 일반 실업자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파트타임과 관련하여, 아일랜드에는 세

가지 개념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파트타임 교육과정' '파트타임 구직장려계획' '학생 부업지원계획' 등이다.

'파트타임 교육과정'(Part-time Education Courses)은 취업을 희망하는 실직자를 위한 일종의 사회부조적 부업교육과정이다. 실업에 따른 사회복지수당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코스이다. 이 코스에 등록하려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Social Welfare Office)에 가서 상의하면 되는데, 실직자들은 이 파트타임 과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넓히고 있다.

'파트타임 구직장려계획'(Part-time Job Incentive Scheme)은 장기 실업자를 위한 제도로서 이들에게 파트타임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또 특별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 학생 부업지원계획 : '학생 부업지원계획'(Student Summer Jobs Scheme)은 지역사회가 청소년에게 파트타임 일거리를 주어서 지역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불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서 '지역사회에 유익한 일'을 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아무 일이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 정부의 '가정 및 지역사회부' (Department of Social, Community and Family Affairs)에 등록된 지원단체들(지역사회단체나 자원봉사기구, 특수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봉사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교육적 효과도 있고, 이러한 의미 있는 부업을 통하여 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보통 6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시행된다. 학생들은 6-17주 동안 200시간 정도(6주 이하 과정에서는 200시간을 넘지 못함, 주당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일하게 되며, 시간당 £3의 보수를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의 원칙(the Type of Work)을

제시하고 이를 엄격히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학생 부업지원계획’ 아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일거리는, 부가적(additional)이고, 임시적(temporary)일 것, 기존하는 일자리를 해고하거나 대체하지 말 것, 학생과 지역사회에 모두 유익한 일거리이어야 하며, 반면에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일이나, 개인자산을 증식하는 일, 사적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일거리는 학생들에게 말기지 못하도록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하여 고용촉진원(Job Facilitators)을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들 고용촉진원은 실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독거노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등, ‘가정 및 지역사회부’나 그 밖의 기관들로부터 제공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소개해주고 있다.

고용촉진원들은 지역내 모든 실업자들 개개인에 대한 기술 및 취업분야를 자료화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실업자들의 취업·자영업·교육·훈련·실무경험·자기개발 등을 돋기 위해 그 지역 자원봉사단체나 지역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http://www.welfare.ie/home.htm>)

(5) 영국의 파트타임 근로자 보호법

영국은 최근에 파트타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Statutory Instruments)을 제정(2000. 6. 8. No.1551)하였다.

‘고용 기간 및 조건’(*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이라는 제목에 이어 ‘파트타임 근로자(부당한 대우에 대한 예방)에 대한 규정 2000’(*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법률은 2000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였는데, 전체가 4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영국이 1996년에 제정한 ‘고용권리법 1996’(*the Employment*

Rights Acts 1996[2])에 이어 특히 파트타임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후속적 장치로서 제정한 법률이다. 영국은 이 법을 통하여 파트타임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하고 있어서, 앞으로 각국 정부나 의회가 이 분야의 정책입안이나 입법활동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법은 제 1부 총론 및 해설(GENERAL AND INTERPRETATION)에서 ‘피고용인’(employee), ‘근로자’(worker) 및 ‘파트타임 근로자’(part-time worker) 등에 관하여 그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 2부 권리와 구제책(RIGHTS AND REMEDIES)의 <5.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서 ‘파트타임 근로자가 그의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특히 <6.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진술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는, ‘(1)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위배되는 대우를 그의 고용주로부터 받았다고 판단되면, 노동자는 그러한 대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명시된 진술서를 고용주로부터 요구한 지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2) 이 진술서는 소송에서도 증거물로 쓰일 수 있다. (3) 법정에서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a) 고용주가 합당한 이유 없이 진술서의 제출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b) 진술서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 고용주가 위법을 했을 수 있다는 결론을 포함한 적절한 추론에 의해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부당한 해고와 상해에 대한 권리>에서는, ‘피고용인은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상해나 고용주의 고의적인 실수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 (3)에서 부당해고의 경우들을 예시하고 있다.

영국의 이와 같은 입법사례는 파트타임 고용에 대한 일반적 경시풍조를 불식하고, 파트타임 근로자의 권익을 국가의 제도적 장치로서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http://www.legislation.hmso.gov.uk/si/si2000/20001551.htm>)

그 밖의 외국사례들을 참고하는 데에 도움이 될만한 website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http://advance.boden.se/>
- * <http://www.ccc.ca.gov/frame.htm>
- * <http://www.stemnet.nf.ca/finaly/menu.html>
- * <http://www.jugendarbeit.ch/>
- * <http://www.bls.gov/ocohome.htm>
- * <http://www.sfcclc.org/>
- * <http://www.wdb.org/>
- * <http://www.idrc.ca/socdev/research/youth/>
- * <http://www.youthwork.net/>

2) 사례들의 시사점

- 한국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정책에의 응용을 위하여 -

청소년 파트타임고용과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 본 외국의 사례들은 한국사회 청소년들의 파트타임 고용의 증대와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많다. 이 사례들이 시사해주는 점들을 살피기 앞서, 여기 이쯤에 이르러서 Lisbon 청소년관계장관회의가 채택한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Lisbon선언'의 청소년고용부문을 새움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선언은 청소년 고용현실을 고려하여 '직장과 수입에 대한 청소년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완전고용이라는 궁극적인 사회적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하여 평등한 고용기회를 촉진하되,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기업·교육기관·시민사회기구들의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향상시키며, 청소년실업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키고, 청소년에게 기업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기술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을 위해 노동조건과 학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대목 말이다.

이 Lisbon 선언이 밝히고 있듯이, 청소년의 고용기회는 보장되어야 하고, 청소년고용의 현실은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세계적 관심의 영역 속에 자리잡아야 한다. 한국청소년 파트타임 고용도 이러한 범주 속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 살펴 본 각국의 사례들이 한국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일에 어떤 점들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첫째로, 우선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것은, 선진 외국에서의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은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태지역의 '자카르타실행계획'(JPA)이 제시한 인적자원개발(HRD) 이론이나 EU의 Youthstart에 나타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청소년고용계획을 비롯하여, 각국의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정책들은, 한결같이 청소년 part-time 고용을 그저 '간단한 잡역에 종사하여 용돈이나 버는 식'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국가가 정한 염밀한 규정과 방침에 따라 보장·보호받는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는 청소년의 인격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수용·파악하고, 청소년이 어떤 강제나 착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고용의 전과정 - 취업기회확보·고용계약·근로조건·보수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 등의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영국의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규정 2000'이나 캐나다의 '학생고용 기간 및 조건 규정'(TCES) 등이 그 좋은 예라 하겠다.

둘째로, 그러므로 청소년 part-time은 '청소년들이 알아서 챙길 일'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정책(national policy)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의 학생고용정책(SEP)이나 프랑스의 ‘청소년고용서비스’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모두 법률을 토대로 청소년고용 창출과 보호를 정책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창출과 고용보호라는 국가정책적 배려가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계획적인 청소년고용정책 프로그램이 개발·운용되는 효율성까지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셋째로, 이와 함께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은 ‘청소년의 필요와 고용주(기관)의 수요에 따른 단순한 개별적 수요공급관계’가 아니라, 국가가 노동력 개발 및 창출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이 과정에 개입하여, ‘청소년에게 교육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미국의 SEE, Co-op, SVS 및 다양한 인턴쉽 프로그램이나 캐나다의 FSWEP, Co-op 및 인턴쉽 프로그램, 프랑스의 청소년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아일랜드의 학생부업지원계획 등이 그것이다.

자기의 전공과 관련된 전문기술을 현장에서 익힘으로써 직업경험과 능력을 쌓는 한편 졸업에 필요한 학점도 이수하는 인턴쉽의 경우가 그러하고, 청소년이 종사하는 일들이 상업적인 목적의 것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일을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시절부터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태도를 익히도록 하는 점 등은 본받아야 할 것이며, 한국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것이 마땅하리라 여겨진다.

넷째로, 이러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 외국에서는 교육제도와 직업계가 아주 밀접하게 상호의존적 연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SEE 프로그램의 직업경험제(student career experience)나 Co-op, 인턴쉽 제도, 그리고 캐나다의 FSWEP나 Co-op, 인턴쉽 프로그램 등은 하나같이 학교와 일터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았다.

학교와 일터의 이와 같은 협력관계는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일시적인 취업’이 아니라 졸업후의 취업과도 직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배려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섯째로,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을 위해서는 학교와 일터의 산학협동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량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의 청소년문화유산참여활동(YCW)이나 프랑스의 청소년고용서비스, 그리고 아일랜드의 학생부업지원계획에서 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인체, NGO, NPO 등 다양한 집단의 참여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긍지를 갖게 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활동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여섯째,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고용창출과 공공서비스활동에의 참여를 촉진·증대하기 위하여 재원을 스스로 확보하여 국가의 정책과 호흡을 함께 하고 있다.

캐나다의 YCW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게 모든 재정적 부담을 안기지 않고, 지역사회가 솔선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청소년의 현재를 보장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참여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니 부러운 정황이 아닐 수 없다. <학교-일터-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체계 모형>이야 말로 우리가 가장 소망스럽게 여기는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개발체계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로서, 학교에는 청소년에게 일터를 소개하고 알선해주는 취업지도실(취업지도교사)이 있고, 전국 각지에는 정부의 고용안내소(고용촉진원)가 있어서, 청소년에게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체계적 장치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학교 취업지도실(school guidance office, 또는 career planning and placement office), 미국연방정부 산하의 고용안내소(employment office)나 아일랜드의 사회복지사무소(Social Welfare Office), 그리고 아일랜드의 고용촉진원(Job Facilitator) 등이 그 예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년의 필요에 즉각적이고 실질

적으로 응답·조력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끝으로, 각국은 청소년의 취업정보나 신청서 서식 등을 청소년의 접근과 이용이 쉽고 편리하도록 pc통신망 등을 통하여서도 홍보하고 있다.

미국의 'USAJOBS'와 같은 것이 그 예인데, 이것은 digital 세대들의 취향에도 맞고, 편리하고 신속·정확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

위에서 선진 외국의 청소년고용촉진 및 고용보호정책 사례들이 한국 사회의 청소년고용문제 해결에 건네주는 시사점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청소년 고용에 관한 국가사회적 인식이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미 앞에서 반복하여 서술하였듯이, 지금 세계적 청소년정책의 흐름은 <청소년의 참여와 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관련문제들은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정책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각 지역과 국가들은 너 나 없이 청소년을 '발전의 원동력'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그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저마다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하고, 귀가울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 고용은 청소년의 생존권적 기본영역에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과제이기에 UN은 이를 10대 중점영역(priority areas)의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보장·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형편과 수준에 맞는 갖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착실히 이 과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청소년 고용과 관련한 이러한 논의가 한국사회에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 사회 속에서는 1970, 80년대부터 국가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써 청소년 기술인력 개발문제가 중요현안으로 다루어져서 많은 청소년기

술인력을 기발해내어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되기조차 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청소년인력개발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고용의 문제가 새로운 과제인양 다루어지고 있는 본질적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청소년의 입장과 처지'에서 고용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그 첫째이고, 다음으로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자체가 청소년을 하나의 객체 또는 정책의 수혜자 정도로만 바라보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 청소년은 분명히 자신의 삶의 주체이며, 욕구와 열망과 기대를 지니고 사는 사회적 실존들이고, 국가사회발전의 원동력이자 동반자임에도 말이다.

이제는 청소년 고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할 때다. 정부나 학교나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을 비롯한 노동시장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고용 창출과 고용보호의 철학이 '인간중심'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고, 그 접근방식이 '청소년중심'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청소년고용에 대한 정책우선순위의 조정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infra) 구축 등의 사회적 수용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도 바로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새롭게 접근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VI. 결론 및 정책제언

V

VI. 결론 및 정책제언

청소년아르바이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들에게 전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아르바이트를 양성화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르바이트가 중·고등학생들에 의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약 3분의 1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지금까지 경험이 없는 중·고등학생의 68%도 일자리만 생긴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아르바이트를 발생시키고 있는 세가지 원인이 앞으로 약화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청소년아르바이트의 첫 번째 원인은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소비욕구를 창출하는 유행과 광고에 의해 집중적으로 공격받음으로써 예전보다 높아진 청소년들의 소비수준이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10대 청소년층을 주고객 대상으로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불황을 덜 겪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도 점차 10대 청소년층을 자신들의 주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구사하며 이들의 꾸미에 맞는 신제품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TV나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며, 인기연예인이나 스타들을 동원하여 새롭게 들 수 있는 ‘유행’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10대 청소년을 대상(target)으로 한 이와 같은 기업의 노력과 수익은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

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소비수준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상업적인 유행과 광고를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청소년아르바이트의 두 번째 원인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 따른 학교에서의 소외감을 느끼고 학교공간이외에서 다른 탈출구를 통해서 여가 시간동안 자기자신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 따른 학교에서의 소외감은 '학급붕괴'라는 현실로 다가왔듯이 상당히 보편적이고, 제도적으로 우리사회에 존재해왔던 문제점이 오랫동안 축적된 결과이다. 지금도 계속해서 교육개혁정책은 시행되고 있지만, 그 정책의 방향과 세부적 내용에 아직도 많은 논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설사 교육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소년아르바이트의 세 번째 원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파트타임고용의 확산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경향은 전세계적인 정보화사회로의 흐름과 우리사회의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볼 때,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청소년아르바이트의 발생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기업과 자본의 유행과 광고',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 따른 학교에서의 소외감',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앞으로 짧은 시간안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상황에 따라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문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고용실태가 대체로 열악하여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아르바이트경험이 청소년에게 가져올 부작용이 매우 커질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넷째, 서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소년아르바이트고용은 국가가 인적자원의 개발 및 창출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적극 개입하여 '청소년에게 교육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네가지 이유로 청소년아르바이트를 양성화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일하면서 그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앞으로는 정부가 청소년아르바이트의 촉진과 보호를 명문화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차원에서 아르바이트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먼저 청소년아르바이트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업무를 수행할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청소년아르바이트 관련법령에서는 아일랜드의 학생부업지원계획에서 제시되었던 '청소년파트타임 고용의 원칙'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학생에게 제공되는 일거리는 부가적(additional)이고, 임시적(temporary)일 것, 기존하는 일자리를 해고하거나 대체하지 말 것, 학생과 지역사회에 모두 유익한 일거리이어야 하며, 반면에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일이나, 개인자산을 증식하는 일, 사적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일거리는 학생들에게 맡기지 못하도록 철저히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캐나다의 '공공서비스위원회'는 '공공서비스고용법'에 근거하여 가 '학생고용프로그램(SEP)'의 모든 과정에서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감독과 지원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구과 기능은 우리사회에도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현행 청소년아르바이트에 관련된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에서 청소년아르바이트고용에 관련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제5장 여자와 소년(제62조 - 제75조)'에서의 연소자로서의 고용보호에 관한 내용과 제21조와 제25조에서의 '단시간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본문의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실적으로 휴일노동과 중학생의 아르바이트참여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허가를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만들기보다는 휴일의 노동시간을 정하고, 방학기간동안만 일시적으로 중학생도 부모의 동의하에 '경노동'에 해당하는 업종에 제한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는 것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방학중 공공기관들의 주도하에 청소년아르바이트 고용창출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를 받으면서 건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경우에서와 같이 "학교 - 일터 -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며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도 지역사회단위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학교, 기업, 사회단체 등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통해 청소년에게 건전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보람을 얻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직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상업적 부문에 속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의 발굴이 중요하며, 역사유적지나 국립공원, 박물관 등에서 방문객을 안내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아르바이트

의 업종을 전전한 방향으로 더욱 다양화하여 자신의 적성을 고려할 수 있고, 장래 희망하는 직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아르바이트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에 대한 아르바이트안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사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경험이 자신의 진로와 직업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일의 맷가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통해 단지 돈을 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일하면서 직접 돈을 벌어보는 보람', '돈벌기 어려운 현실과 부모님의 이해', '진로탐색과 직업준비의 중요성'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아르바이트에 대한 안내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여섯째,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청소년들에게 공식적으로 중개해줄 수 있는 공공성을 갖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특히 방학중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일시에 아르바이트 구직에 나서기 때문에 좋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주로 친구나 친척을 통하는 비공식적 구직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 선택의 기회와 폭을 좁게 한다. 지역사회 단위에서 구인 구직의 공식화된 창구의 개설은 청소년들에게 마찰적 실업을 줄여주고, 적성을 고려한 업종의 선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의 권리보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곱째, 현재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아르바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방학기간동안 청소년아르바이트 고용을 촉진하고 보호하자는 전국적인, 혹은 지역사회단위의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근로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청소년권익 보호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지금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는 청소년과 고용주 모두 노동자로서의 청소년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업장을 단위로 하기보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전국 혹은 지역사회단위내에 있는 사업장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청소년아르바이트를 발생시키고 있는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먼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를 부추기고 있는 청소년소비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의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청소년문화의 생성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매체를 통한 유행과 광고는 청소년들의 기호와 취향을 집단화 시킨다. 집단화된 청소년의 소비욕구는 비슷한 개성을 유발하며,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비슷한 상품들을 집단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청소년각자가 소비행위를 통하여 또래청소년들의 일원으로서归属감을 갖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체적인 문화는 이와 같은 물개성화의 경향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교육과 올바른 소비행위에 대한 교육에 실시된다면 청소년들은 각 개인의 개성도 존중하면서 자신들만의 동질적인 하위문화를 간직해나가는 보다 성숙한 청소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청소년들은 유행과 광고에 의한 자극을 적절하게 통제하며,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교육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정상화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정규교육을 통해 자기 인생의 전망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가 명실상부한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기술적 전문성과 경쟁력을 가지며, 그 분야에서 자신의 인생의 전망을 가질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에서 기업의 학벌위주의 고용관행이 개선되어야 하고 능력위주의 인력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아직 어리고 미숙련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곧 성인으로서 우리사회에서 발을 내딛을 청소년들이다. 이들이 성인으로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하여 어른들로 받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되고, 힘든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지 못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는 경험을 한다면, 이들이 청년이 되고 나서 사회에 대한 비뚤어진 편견을 갖고서 정상적으로 땀흘리며 노력하지 않고,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여 많은 돈을 벌려고 할 때, 기성세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다른 그 누구에게로도 들릴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장대근, 박창남, 윤옥경, “고졸청소년실업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장순희, ‘청소년실업의 구조와 대책’, “오늘의 청소년”, 2000년 11월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00
- 권혜자, “경제위기후 청년고용의 변화와 노동조합 정책과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9
- 권혜자, “비정규노동자의 실태와 노동운동”,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6
- 김기홍, ‘청소년실업의 현황과 실업개선을 위한 대책’, “오늘의 청소년”, 2000년 11월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00
- 김장호, “한국노동경제론I, II”, 한길사, 1999
- 김태관, “99년판 노동관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1998
- 김홍근, “파트타임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논문, 1998
- 노동문제연구소, “한국의 노동문제”, 비봉출판사, 1991
-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1998
-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문화관광부, 1998
- 박창남, “청소년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박창남, “실업계 고졸청소년의 직업적 성취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박창남, ‘청소년아르바이트, 어떻게 볼 것인가’, “건강한 아르바이트 청소년 문화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토론회”, 안산YMCA, 2000
- 박창남, ‘일하는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와 인권증진방안’, “일하는 청소년의 실태와 지원방안 모색”, 이천YMCA, 2000

-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 “십대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연구”, 서울특별시,
- 송호근, “노동과 불평등”, 나남, 1990
- 신광영,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나남, 1994
- 심윤종, 유홍준, 박승희, 정태인, “산업사회학”, 경문사, 2000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1997,
내일을 여는 책, pp84-85.
- 어수봉외, “21세기 노동시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997
- 오문완, “단시간근로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7
- 유홍준, “직업사회학”, 경문사, 2000
- 윤성한, ‘실업계 고고생 아르바이트가 늘고 있다’, “우리교육(중등용)”,
1995
- 이각범, “현대자본주의와 노동시장”, 한울아카데미, 1989
- 이용교, 김영지, 임지연, “청소년권익증진을 위한 국내의 활동동향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이종복 외, “현대청소년복지론”, 양서원, 2000
- 이주호, “고용정책과 인적자원개발”, 한국개발연구원, 1996
- 이주호, “청년층 고용문제와 교육·노동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93
- 이주호외, “노사관계개혁과 노동시장 변화”, 한국개발연구원, 1997
- 이철위, ‘근로청소년의 욕구·기대와 근로조건’, “청년연구”, 제8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5
- 이철위, ‘전환기적 상황의 한국청소년정책’, “청년연구”, 제17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철위(1998-1), 아·태지역 청소년정책 비교연구(I), 청
소년연구자료집 1998-1, 유네스코한국위원회(UN/ESCAP(1997) 제1
부의 편역)
- 이철위, ‘아·태지역 청소년정책 비교연구(II)’, “청소년연구자료집”,
1998-5, 유네스코한국위원회(UN/ESCAP(1997) 제2,3부의 편역)
Review of the Youth Situ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in Asia

- and the Pacific(ST/ESCAP/1757, ISBN:92-1-119753-8)
- 이철위, '뉴질랜드 청소년정책과 현황', "청소년연구자료집", 1998-9, 유네스코한국위원회(Hon Deborah Morris, Issue Paper: Youth Affairs 및 뉴질랜드 청소년부의 15 to 25 - A Youth Statistical Profile(1994)의 편역)
- 이혜정,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보고', "청소년아르바이트 소비욕구의 분출인가? 일할 권리의 실현인가!", 서울YMCA, 2000
- 이효수, "고학력화 현상과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1991
- 이효수, "노동시장구조론", 법문사, 1984
- 임희섭, 박길성,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1993
- 장원섭, "교육과 일의 사회학", 학지사, 1997
- 장원섭, '청소년시간제취업의 진단과 대책', "청소년아르바이트 소비욕구의 분출인가? 일할 권리의 실현인가!", 서울YMCA, 2000
- 정진화, "고학력화와 인력정책의 방향", 산업연구원, 1996
- 정희욱, "세계청소년장관회의 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 조홍식, 김경준, 김경호, "청소년 고용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천정웅, '수련활동과 청소년참여의 정책제도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5-3호, 한국청소년학회, 1998
- 천정웅, 김영지, 김경호, "청소년이 알아야 할 인권이야기",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최경수, "단시간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7
- 최경수, 박기성, "청년층 노동시장과 교육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5
- 최윤진,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한국청소년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 최충옥, '청소년정책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소외', "2000년대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학회/사회교육연구회, 1991

한경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함병수, ‘청소년관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3권 제3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홍두승,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2000

- Borman, K. M., “The first “real” job: A study of young workers, Alban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1
- Bowen, W., & Finegan, T.A., “The economic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Diane, C. K., and Forrest, A. D.(1995), “Households, Local labor markets, and Youth labor force Participation, Youth and Society”, 26, 463-492.
- ESCAP, “Jakarta Plan of Action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ESCAP Region”, Bangkok: ESCAP, 1988
- Horan, P., and Hargis, P., “Children’s work and schooling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family econom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583-596. 1991
- J. E. Thuman and Gabriel Trah, ‘국제적 관점에서 본 파트타임 근로’, “노동”191호, 1991
- Jacob Alex Klerman & Lynn A. Karoly, “The transition to stable employment: the experience of U. S. youth in their early labor market career”, RAND, 1995
- Joachim Girmsmann, “The ILO - Minimum Age Convention”, 1973,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Lisa M. Lynch, “The youth labor market in the 80s: determinants of re-employment probabilities for young men and women”, National

-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1986
- Mayor, Federico, 'Acting with and for Youth', DG/Note/98/23, Paris:
- Unesco Peter Kuenstler(1969), "Youth Policy is a Must in the 1970's", Way Forum No.73, Brussels, Belgium, 1998
- Michael E. Borus, "Youth and the labor market : analyses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W. 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1984
- OECD, "Entry of young people into working life", OECD, 1977
- OECD, "Improving youth employment opportunities : policies for Ireland and Portugal", OECD, 1984
- Paul Osterman, "Getting started : the youth labor market", MIT, 1980
- Richard B. Freeman and David A. Wise,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Chicago UP, 1993
- UN, "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s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037(XX), UN, 1965
- UN, "Right of Youth, its Education in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its Problems and Needs",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447(XXIII), UN, 1968
- UN, 'Guidelines for Further Planning and Suitable Follow-up in the Field of Youth',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0/14", UN, 1985
- UN, "The Situation of Youth in the 1980s and Prospect and Challenge for the Year 2000", UN, 1986
- UN,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 Social Development, Including Questions Relating to the World Social Situation and to Youth, Ageing, Disabled Persons

- and the Family”, UN. 1995
- UN, “Report: Expert Group Meeting on Phase III of the Jakarta Plan of Action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ESCAP Region, and the Regional Meeting on Youth Training Needs(Bangkok 18–21 March 1997)”, UN. 1997
- UN/ESC, “Assessment of National Youth Policies for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1998
- UN/ESCAP, “Review of the Youth Situation, Policies and Programmes in Asia and the Pacific”, UN. 1997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0”, UN Development Program, 1990
- Unesco, “In Partnership with Youth”, Paris: Unesco, 1969
- Unesco, “Tuning in to Youth: How to Involve it in Unesco’s Ideals”, 151 EX/17, Paris: Unesco, 1997
- Unesco, “Consultation on the Preparation of the Draft Programme and Budget for 2000–2001”, Unesco, 1998
- Unesco/PROAP, “Organiz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Youth in the Asia and the Pacific”: Feasibility Study, Unesco Principal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1992

- * <http://advance.boden.se/>
- * <http://www.bls.gov/ocohome.htm>
- * <http://canada.gc.ca> <http://www.youth.gc.ca>
- * <http://www.ccc.ca.gov/frame.htm>
- * <http://www.hacu2000.org>

- * <http://www.idrc.ca/socdev/research/youth/>
- * <http://www.iol.ie/EMPLOYMENT/youthstart/index.html>
- * <http://www.jugendarbeit.ch/>
- * <http://www.legislation.hmso.gov.uk/si/si2000/20001551.htm>
- * http://www.nsej.travail.gouv.fr/index_en.html
- * <http://www.opm.gov/employ/students/index.htm>
- * <http://www.sfcclc.org/>
- * <http://www.stemnet.nf.ca/finaly/menu.html>
- * <http://www.usajobs.opm.gov>
- * <http://www.wdb.org/>
- * <http://www.welfare.ie/home.htm>
- * <http://www.youthwork.net/>

부 록

1. 학생용 설문지
2. 교사용 설문지

<부록 1> 학생용 설문지

총 ·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총·고등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진로지도, 권익보호 등의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과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단지 연구를 위한 통계처리에만 이용될 뿐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 11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전화 : (02) 2188-8825

다음은 여러분의 신상과 가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 ① 남자 ② 여자

2. 당신은 몇 학년인가요?

-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④ 인문고 1학년 ⑤ 인문고 2학년
 ⑥ 실업고 1학년 ⑦ 실업고 2학년

3. 당신의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① 남학교 ② 여학교 ③ 남녀공학

4. 당신의 성적은 현재 반에서 어느 수준인가요?

- ①-----②-----③-----④-----⑤
 아주 잘하는 대체로 잘하는 중간정도 대체로 못하는 아주 못하는
 편이다 편이다 편이다 편이다 편이다

5. 당신의 부모님은 현재 모두 계신가요?

- ① 부모님 모두 계신다 ② 아버지만 계신다
 ③ 어머니만 계신다 ④ 부모님 모두 안 계신다

6. 당신의 부모님중 누가 직장에 다니시나요?

- ① 맞벌이를 하신다 ② 아버지만 직장에 다니신다
 ③ 어머니만 직장에 다니신다 ④ 모두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
 ⑤ 부모님 모두 안 계신다

7. 아버지의 학력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안 계실 경우 어머니의 학력)

- ① 무학 ② 국졸(초등학교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졸 ⑥ 대졸 ⑦ 대학원졸

8. 아버지의 직업은? (아버지가 안 계실 경우 어머니의 직업)

->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9. 당신 가정의 경제형편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 ①-----②-----③-----④-----⑤
 아주 잘사는 대체로 잘사는 중간정도 대체로 못사는 아주 못사는
 편이다 편이다 편이다 편이다 편이다

다음은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기]

- | | | | | |
|-------------------|---------|-----------|-----------------|--------------|
| 1) 교사 | 2) 교수 | 3) 회사원 | 4) 공무원 | 5) 사업가 |
| 6) 의사 | 7) 약사 | 8) 간호사 | 9) 프로그래머 | 10) 과학자, 기술자 |
| 11) 경찰 | 12) 군인 | 13) 성직자 | 14) 판사, 검사, 변호사 | |
| 15) 디자이너 | | 16) 통역사 | 17) 코디네이터 | 18) 광고인 |
| 19) 만화, 애니메이션 제작자 | | 20) 기자 | 21) 연예인 | 22) PD(프로듀서) |
| 23) 운동선수 | 24) 파일럿 | 25) 스튜어디스 | 26) 자영업(장사) | |

10. 당신이 현재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인지 위의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적으세요.
(위 보기의 없을 경우에는 직접 적으세요) _____
11. 부모님이 현재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인지 위의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적으세요.
(위 보기의 없을 경우에는 직접 적으세요) _____
12. 아래의 문항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오른쪽 보기에서 골라 V표 하시오.
- | | | | |
|-----|-----|--------|--------|
| 매우 | 대체로 | 별로 | 전혀 |
|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 12-1) 나의 작성 및 앞으로의 진로 등에 대해
주위사람과 깊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①-----②-----③-----④
- 12-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잡지를 구입하거나
읽어 보았다 ①-----②-----③-----④
- 12-3) 나의 작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①-----②-----③-----④
- 12-4) 관심이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학원 등에 다니면서 준비를 하였다 ①-----②-----③-----④
13. 당신은 현재의 학교를 졸업한 이후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 ① 인문고로 진학을 하겠다 ② 실업고로 진학을 하겠다
③ 대학으로 진학을 하겠다 ④ 취업을 하겠다 ⑤ 아직 모르겠다
14.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당신의 진로와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나요?
- | | | | |
|-------------|-------------|------------|---------------|
| ① ----- | ② ----- | ③ ----- | ④ ----- |
| 아주 큰 도움이 된다 |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5. 당신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오른쪽의 보기에서 골라 V표 하시오.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 15-1) 학교생활 ① ----- ② ----- ③ ----- ④
 15-2) 담임선생님 ① ----- ② ----- ③ ----- ④
 15-3) 수업내용 ① ----- ② ----- ③ ----- ④
 15-4) 가정생활 ① ----- ② ----- ③ ----- ④
 15-5) 친구관계 ① ----- ② ----- ③ ----- ④

16. 당신은 학교에 등교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 ② ----- ③ ----- ④
 자주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17. 당신의 가장 큰 고민이나 걱정거리는 무엇인가요?

- ① 공부와 성적 ② 진로와 취업 ③ 가족관계
 ④ 외모 ⑤ 성격 ⑥ 건강
 ⑦ 친구관계 ⑧ 기타 _____

18. 당신은 스스로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 ② ----- ③ ----- ④ ----- ⑤
 모범생 약간 모범적 평범하다 약간 문제가 문제학생
 이다 이다 있다 이다

19. 담임선생님이나 같은 반 친구들은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 ② ----- ③ ----- ④ ----- ⑤
 모범생 약간 모범적 평범하다 약간 문제가 문제학생
 이다 이다 있다 이다

다음은 여러분의 소비행위(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 당신은 현재 핸드폰을 갖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③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갖고 있었다

21. 당신에게 핸드폰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 ② ----- ③ ----- ④
 아주 필요하다 필요하지 전혀 필요하지
 필요하다 않는다 않다

22. 당신은 10만원이상의 청바지를 몇 벌정도 갖고 있나요? _____ 벌

23. 아래의 문항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오른쪽 보기에서 골라 V표 하시오.

매우	대체로	별로	전혀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23-1) 나는 물건을 살 때, 브랜드(상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②-----③-----④

23-2) 나는 옷, 신발, 가방 등을 살 때 주로 친구들과 함께 간다 ①-----②-----③-----④

23-3) 나는 마음에만 들면 무리하더라도 산다 ①-----②-----③-----④

23-4)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꼭 산다 ①-----②-----③-----④

다음은 여러분의 용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4. 당신은 일주일동안 평균 얼마정도의 용돈을 쓰나요?

- | | | |
|--------------------|--------------------|--------------------|
| ① 5,000원 이하 | ② 5,001 - 10,000원 | ③ 10,001 - 15,000원 |
| ④ 15,001 - 20,000원 | ⑤ 20,001 - 25,000원 | ⑥ 25,001 - 30,000원 |
| ⑦ 30,001 - 35,000원 | ⑧ 35,001 - 40,000원 | ⑨ 40,001원 이상 |

25. 용돈은 주로 어떻게 마련하나요?

- | | |
|--------------|----------------------|
| ① 부모님에게서 | ② 급식비나 참고서 구입비에서 남겨서 |
| ③ 아르바이트로 벌어서 | ④ 기타 : _____ |

26. 용돈은 주로 어디에 쓰나요?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두가지만 고르세요.

- | | |
|----------------------|---------------|
| ① 핸드폰 구입 및 이용료 | ② 옷이나 신발 등 구입 |
| ③ 친구들끼리 간식비, 군것질 | ④ 참고서, 학용품 구입 |
| ⑤ 영화, 연극, 비디오 등 공연관람 | ⑥ 저축 |
| ⑦ 학자금(학비) | ⑧ 집안 생활비로 드림 |
| ⑨ 기타 : _____ | |

27. 당신은 현재의 용돈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 | | |
|--|--|
| ①-----②-----③-----④-----⑤ | |
| 아주 많다 약간 많다 적당하다 약간 적다 아주 적다 | |

28. 용돈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어떻게 충당하나요?

- | | |
|---------------|--------------|
| ① 부모님에게 더 받는다 | ② 친구들에게 빌린다 |
| ③ 아르바이트를 한다 | ④ 기타 : _____ |

다음은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9. 중·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① ----- ② ----- ③ ----- ④ -----

아주 좋게	약간 좋게	약간 나쁘게	아주 나쁘게
생각한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30. 중·고등학생이 학생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 ② ----- ③ ----- ④ -----

당연히	한 두번정도	가급적 하지	절대로 하지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말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

31. 당신은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36번으로 가시오

② 없다 -> 32번으로 가시오

* 다음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 학생에게만 질문하겠습니다 [32번 - 35번]

32.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할 시간이 없어서	② 하고 싶어도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없어서
③ 공부에 방해되니까	④ 문제학생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⑤ 기타 :	_____

33. 만약 당신에게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긴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34. 만약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다면 어느 시간대에 하고 싶은가요?

① 방과후에

② 방학 중에

③ 방과후와 방학중 상관없이 언제나

④ 기타 : _____

⑤ 할 생각이 없다

35. 만약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는 무엇인가요?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② 페스트푸드점 ③ 24시 편의점

④ 상점에서 물건팔기 ⑤ 신문배달 ⑥ 주유소

⑦ 사무보조 ⑧ 건설현장 일 ⑨ 이벤트 행사장

⑩ 음식점(피자, 치킨, 분식점 등)에서 서빙

⑪ 음식점(피자, 치킨, 중국집 등)에서 오토바이 배달

⑫ 컴퓨터 관련된 일 ⑬ 기타 : _____

⑭ 할 생각이 없다

-> 70번으로 가서 70번부터 응답해 주세요(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

※ 다음은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 학생에게만 질문하겠습니다 [36번 - 69번]

36. 당신은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모두 몇 번 정도 해 보았나요? _____ 번

37. 올해(2000년) 7~8월에 있었던 지난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38. 당신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나요?

- ① 하고 있다
 ② 하고 있지 않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구하고 있다
 ③ 하고 있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

39. 당신이 가장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 ① 초등학생 ② 중1 ③ 중2 ④ 중3
 ⑤ 고1 ⑥ 고2

◎ 다음은 당신이 현재하고 있거나, (현재 하고 있지 않다면) 최근에 해보았던 아르바이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40. 당신이 현재 하고 있거나, (현재 하고 있지 않다면) 가장 최근에 해보았던 아르바이트는 무엇인가요?

-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② 페스트푸드점 ③ 24시 편의점
 ④ 상점에서 물건팔기 ⑤ 신문배달 ⑥ 주유소
 ⑦ 사무보조 ⑧ 건설현장 일 ⑨ 이벤트 행사장
 ⑩ 음식점(피자, 치킨, 분식점 등)에서 서빙
 ⑪ 음식점(피자, 치킨, 중국집 등)에서 오토바이 배달
 ⑫ 기타 : _____

41. 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두가지만 고르세요.

- ① 보수 ② 시간적 여유 ③ 나의 적성
 ④ 일하는 근무환경 ⑤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⑥ 고용주(사장)의 성격 ⑦ 숙식제공
 ⑧ 오랫동안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가의 여부
 ⑨ 기타 : _____

42. 그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구하였나요?

- ① 친구소개로 ② 벼룩시장, 교차로 같은 곳에서
 ③ 상점이나 길가에 붙은 광고전단을 보고 ④ 직업소개소 소개로
 ⑤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⑥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로
 ⑦ 교사나 학교의 소개로 ⑧ 기타 : _____

43. 그 아르바이트의 보수는 시간당 얼마 정도였나요? 시간당 _____ 원
 (· 일당의 경우 _____ 원 · 전단지의 경우 _____ 부당 _____ 원)

44. 그 아르바이트는 일하는 날에는 하루에 보통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 했나요?

- ① 평 일 : _____ 시 부터 _____ 시까지 ⇒ _____ 시간동안 근무
- ② 토요일 : _____ 시 부터 _____ 시까지 ⇒ _____ 시간동안 근무
- ③ 일요일 : _____ 시 부터 _____ 시까지 ⇒ _____ 시간동안 근무

45. 그 아르바이트는 주로 어느 기간에 하였나요?

- ① 방과후
- ② 방학 중에
- ③ 방과후와 방학중 모두
- ④ 기타 : _____

46. 그 아르바이트는 일주일에 보통 몇 일정도 출근하였나요?

- ① 매일
- ② 1-2일
- ③ 3-4일
- ④ 5-6일
- ⑤ 정해져 있지 않다

47. 그 회사(직장)의 전체 종업원은 몇 명정도 였나요? 그 중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은 몇 명이었나요?

전체 종업원 약 _____ 명 중 아르바이트생 _____ 명

48. 그 아르바이트를 몇 일동안 계속했나요?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까지로 계산)

- ① 1-2일
- ② 3-7일
- ③ 8-15일
- ④ 16-30일
- ⑤ 31-60일
- ⑥ 61-90일
- ⑦ 90일 이상

49.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만 고르세요.

- ① 평소 용돈이 부족해서
- ② 중요한 무언가를 꼭 사거나 쓸 곳이 생겨서
- ③ 친구들의 권유로
- ④ 남는 시간을 활용하려고
- ⑤ 진로선택에 도움을 받으려고
- ⑥ 친구들을 푹넓게 사귀고 싶어서
- ⑦ 집안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 ⑧ 기타 : _____

50. 그 아르바이트로 벌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가장 많이 쓴 곳 두 가지만 고르세요.

- ① 웃이나 신발 같은 것을 산다
- ② 핸드폰을 샬거나 월 이용료로 낸다
- ③ 노래방이나 PC방에 간다
- ④ 영화나 비디오를 본다
- ⑤ 친구들끼리 군것질을 한다
- ⑥ 저축을 한다
- ⑦ 기타 : _____

51.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직장에서 구타나 폭행 등을 당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51-1번으로 가시오
- ② 없다 -> 52번으로 가시오

51-1) 주로 누구에게서 구타나 폭행을 당했나요?

- | | | |
|-------------|--------------|--------|
| ① 사장 | ② 정식직원 | ③ 손님 |
| ④ 같이 일하는 선배 | ⑤ 같이 일하는 친구들 | ⑥ 기타 : |

51-2) 구타나 폭행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 | | |
|------------------|--------------------|
| 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 ② 개인적으로만 항의하였다 |
| ③ 가족들에게 알려주었다 | ④ 경찰이나 노동사무소에 신고했다 |
| ⑤ 기타 : | |

52.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나요?

- | | |
|------|------|
| ① 있다 | ② 없다 |
|------|------|

53. 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나요?

- | | |
|------|------|
| ① 있다 | ② 없다 |
|------|------|

54. 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성적으로 희롱당한 적이 있나요?

- | | |
|------|------|
| ① 있다 | ② 없다 |
|------|------|

55.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

- | | |
|------|----------|
| ① 했다 | ② 하지 않았다 |
|------|----------|

56. 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서’를 회사나 고용주(사장)에게 제출하였나요?

- | | |
|-------|----------|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

57. 그 아르바이트를 한 후에 당신의 생활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나요?

57-1) 학업성적

- | | | | |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많이 올라갔다 | 약간 올라갔다 | 변화없다 | 약간 떨어졌다 | 많이 떨어졌다 |

57-2) 친구관계

- | | | | |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친구가 많이 늘어났다 | 친구가 약간 늘어났다 | 변화없다 | 친구가 약간 줄어들었다 | 친구가 많이 줄어들었다 |

57-3) 가족관계

- | | | | |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부모님이 아주 좋아하신다 | 부모님이 조금 변화없다 | 부모님이 조금 싫어하신다 | 부모님이 아주 좋아하신다 | 부모님이 싫어하신다 |

57-4) 소비수준

- ① ----- ② ----- ③ ----- ④ ----- ⑤
 씁쓸이가 씁쓸이가 변화없다 씁쓸이가 씁쓸이가
 많이 들어났다 조금 들어났다 조금 줄어들었다 많이 줄어들었다

57-5)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

- ① ----- ② ----- ③ ----- ④ ----- ⑤
 많이 들어났다 조금 들어났다 변화없다 조금 줄어들었다 많이 줄어들었다

58.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경제적 여유가 생김 ② 독립심이 생김
 ③ 진로선택에 도움이 됨 ④ 기타 : _____

59.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학교성적이 떨어짐 ② 부모님과의 갈등
 ③ 건강이 나빠짐 ④ 기타 : _____

60.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① 낮은 임금수준 ② 어른들의 아르바이트를 안 좋게 보는 시각
 ③ 구타나 폭행 ④ 위험한 주변환경
 ⑤ 기타 : _____

61. 당신은 앞으로도 그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생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62. 당신이 그 아르바이트했던 것을 부모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 ① 알고 계신다 ② 모르고 계신다 ③ 부모님께서 안계신다

63. 그 아르바이트에 대해 얼마나 만족했나요?

- ① ----- ② ----- ③ ----- ④
 아주 약간 약간 아주
 만족한다 만족한다 불만이다 불만이다

64. 그 아르바이트가 당신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① ----- ② ----- ③ ----- ④
 아주 큰 약간 도움이 별로 도움이 전혀 도움이
 도움이 되었다 되었다 되지 못했다 되지 못했다

65. 그 아르바이트는 당신의 적성에 얼마나 맞나요?

- | | | | | | |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아주 잘
맞는다 | | 약간
맞는 편이다 | | 별로 맞지
않는 편이다 | | 전혀 맞지
않는 편이다 |

66. 주위의 친구들에게 그 아르바이트를 권하고 싶은가요?

- | | | | | | |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꼭 권하고
싶다 | | 권하고
싶은 편이다 | |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 |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다 |

67.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났던 여론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느꼈나요?

- | | | | | | |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아주 좋게
생각한다 | | 약간 좋게
생각한다 | | 약간 나쁘게
생각한다 | | 아주 나쁘게
생각한다 |

68. 그 아르바이트가 당신이 앞으로 갖게될 직업과 얼마나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 | | | | | |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많이 연결된다 | | 약간 연결된다 | | 별로 연결되지 않는다 | |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

69.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는 무엇인가요?

- | | | | | | |
|---|------------------------------|---|--------|---|---------|
| ① |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 ② | 페스트푸드점 | ③ | 24시 편의점 |
| ④ | 상점에서 물건팔기 | ⑤ | 신문배달 | ⑥ | 주유소 |
| ⑦ | 사무보조 | ⑧ | 건설현장 일 | ⑨ | 이벤트 행사장 |
| ⑩ | 음식점(피자, 치킨, 분식집 등)에서 서빙 | | | | |
| ⑪ | 음식점(피자, 치킨, 중국집 등)에서 오토바이 배달 | | | | |
| ⑫ | 컴퓨터 관련된 일 | | | | |
| ⑬ | 기타 : | | | | |

70. 우리사회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다고 보나요?

- | | | | | | | | |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아주 많다 | | 많다 | | 적당하다 | | 적다 | | 아주 적다 |

71. 전전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 가지만 고르세요.

- | | | | | | |
|---|--------|---|--------------|---|----------|
| ① | 취업알선 | ② | 권익보호(고발센터운영) | ③ | 다양한 직종개발 |
| ④ | 사회인식변화 | ⑤ | 임금인상 | ⑥ | 기타 : |

72. 당신은 현재 이성친구가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③ 사귄 적이 있다(현재는 없다)

73. 다음의 행동들 중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를 오른쪽 보기에서 클라 V표 하시오

있다 없다

- | | | |
|---------------------|---|---|
| 73-1) 무단결석(학교 땡땡이) | ① | ② |
| 73-2) 음주 | ① | ② |
| 73-3) 흡연 | ① | ② |
| 73-4) 가출 | ① | ② |
| 73-5) 자살하고 싶은 충동 | ① | ② |
| 73-6) 폭행을 가함 | ① | ② |
| 73-7) 남의 물건 몰래 훔치기 | ① | ② |
| 73-8) 남의 물건 강제로 빼앗기 | ① | ② |

74. 당신은 학교에서 근신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교사용 설문지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에 관한 사회적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중·고등학생 아르바이트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진로지도, 권리보호 등의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과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단지 연구를 위한 통계처리에만 이용될 뿐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 11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전화 : (02) 2188-8825

다음은 선생님의 신상과 가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1. 선생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선생님의 연령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선생님께서 주로 담당하고 계시는 학년은 몇 학년인가요?

-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④ 인문고 1학년 ⑤ 인문고 2학년 ⑥ 인문고 3학년
 ⑦ 실업고 1학년 ⑧ 실업고 2학년 ⑨ 실업고 3학년

4. 선생님의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① 남학교 ② 여학교 ③ 남녀공학

5. 중·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 | | |
|---------|---------|---------|---------|
| ① ----- | ② ----- | ③ ----- | ④ ----- |
| 아주 좋게 | 약간 좋게 | 약간 나쁘게 | 아주 나쁘게 |
| 생각한다 | 생각한다 | 생각한다 | 생각한다 |

6. 중·고등학생이 학생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 | | | |
|---------|---------|---------|---------|
| ① ----- | ② ----- | ③ ----- | ④ ----- |
| 당연히 | 한 두번정도 | 가급적 하지 | 절대로 하지 |
| 할 수 있다 | 할 수도 있다 | 말아야 한다 | 말아야 한다 |

7.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고르세요.

- | | |
|--------------------------------|---------------------------|
| ① 평소 용돈이 부족해서 | ② 중요한 무언가를 꼭 사거나 쓸 곳이 생겨서 |
| ③ 친구들의 권유로 | ④ 넘는 시간을 활용하려고 |
| ⑤ 진로선택에 도움을 받으려고 | ⑥ 친구들을 꽂넓게 사귀고 싶어서 |
| ⑦ 집안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 |
| ⑧ 기타 : _____ | |

8. 선생님의 학교에서는 한 번에 약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 | |
|-----------------|-----------------|
| ① 10% 미만 | ② 10% 이상-20% 미만 |
| ③ 20% 이상-30% 미만 | ④ 30% 이상-40% 미만 |
| ⑤ 40% 이상-50% 미만 | ⑥ 60% 이상 |

9.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생활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9-1) 학업성적

- ① ----- ② ----- ③ ----- ④ ----- ⑤
 많이 올라간다 약간 올라간다 변화없다 약간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

9-2) 친구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친구가 많이 친구가 약간 변화없다 친구가 약간 친구가 많이
 늘어난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

9-3) 소비수준

- ① ----- ② ----- ③ ----- ④ ----- ⑤
 쓴쓸이가 쓴쓸이가 변화없다 쓴쓸이가 쓴쓸이가
 많이 늘어난다 조금 늘어난다 조금 줄어든다 많이 줄어든다

9-4)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

- ① ----- ② ----- ③ ----- ④ ----- ⑤
 많이 늘어난다 조금 늘어난다 변화없다 조금 줄어든다 많이 줄어든다

10.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가지만 고르세요.

- ① 취업알선 ② 권익보호(고발센터운영) ③ 다양한 직종개발
 ④ 사회인식변화 ⑤ 임금인상 ⑥ 기타 : _____

11.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① ----- ② ----- ③ ----- ④
 아주 큰 어느 정도 별 도움이 전혀 도움이
 도움이 될 것임 도움이 될 것임 되지 않을 것임 되지 않을 것임

12. 만약 선생님의 제자가 중·고등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한다
 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② 공부에 영향이 없을 정도면 허락한다 [] → 13번으로 가시오
 ③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말린다 []
 ④ 절대로 안된다고 못하게 한다 [] → 14번으로 가시오

13. 선생님께서 제자의 아르바이트를 권장 또는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경제적 여유가 생김
- ② 독립심이 생김
- ③ 진로선택에 도움이 됨
- ④ 기타 : _____

14. 선생님께서 제자의 아르바이트를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학교성적이 떨어짐
- ② 사회의 부정적 인식
- ③ 건강이 나빠짐
- ④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음
- ⑤ 기타 : 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자문 · 협력진

- 김지선 노원 자활지원센터 청소년교실 실장
김진태 교육부 산업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
김찬호 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
박권수 (주) 다심섬유 대리
변웅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정화 성북 자활지원센터 청소년교실 실장
신경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명화 서울 YMCA 서초지회 청소년상담실 실장
이상균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장기영 (주) 예안정보 기획실장
장원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가나다 순)

